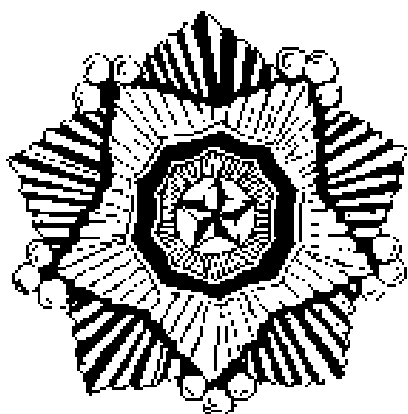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4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4호

(루계 제 666 호)

◇◇◇◇◇◇◇◇◇◇

차 례

◇◇◇◇◇◇◇◇◇◇

수령님은 웃으십니다.....	4
총대철학	4
만경대가문	5
수령님추억속에(1).....	9
만경대의 지명유래와 《화춘 10 경》	10
유서깊은 골짜기	11
포부와 희망	23
새 세기의 첫 태양절에 펼쳐 진 신기한 자연현상.....	23
위인과 성지	24
어머님과 봄	29
우리 수령님의 《습관》	30
만경대	30

시대의 명작과 작가의 기교(2).....	31
준엄한 10 년	36
인민대중은 선생	37
영원한 사열	37
력사람구와 책임	38
기슭	45
수령님 추억속에(2).....	54
한 녀성종군기자를 품어 안고 48 시간	55
한 처녀의 시간을 두고	57
대각바위와 오봉산 옛 전설	59
이싸꼽스끼	62
별과 물이 속삭인다	63
소설에도 음악이 흐른다	67
제대되던 날	72
어머니는 영웅이 되였다네	72
옛 병사시절에 대한 추억.....	73
장	76
외국소설문학의 발생발전에 대하여	77

수령님은 웃으십니다

박현철

산에 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난
4월 15일, 태양절의 이 아침
내 마음 그대로 한송이 꽃이 되어
아버이수령님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상앞에 서니
자꾸만 축축히 젖어 드는 눈시울이여

추녀 낮은 만경대
수수한 초가에서 탄생하시여
뜨락우에 첫 자옥 떴신 그날로부터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위해
헌신의 자옥만을 이 땅우에 새기신
우리 수령님!

조용히
입속으로
불러만 봐도
목메이는 한 생각에
눈가엔 방울방울 뜨거움이 맺히고

뵈고 싶어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 오면
그 언제나 환하게만 웃으시며 반겨 주시니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은
이 가슴에 흘러 들며 샘도랑을 파나니

정녕
베푸신 그 사랑 바치신 그헌신
쌓으신 업적이 하늘에 닿아
인민은 뜨거움에 눈시울 적시건만

오직 한분 아버이 우리 수령님
환하게 웃으시는
이 땅
이 하늘
이 세상이여!...

계절이 따뜻한 봄날이어서
가다가닥 이 몸에 닿는 해살이
이리도 포근한것 아니었구나

우주를 가득 채운 영생의 미소로
이 강산에 해빛을 뿌려 주시여
끝없이 밝은 우리의 4월
끝없이 창창한 우리의 이 세월

웃으십니다
우리 수령님 웃으십니다
인민에게 무궁토록 기쁨만을 주시려고
웃고
또 웃으시는
아버이 우리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아 그리워 인민이
그품 향해 목 메여 달려 가는 4월의 이 아침
두팔 벌려 어서 오라 우리들을 부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가야 할
천만리 선군의 그 앞길우에
해빛을 뿌리시며 웃으십니다
이 조선을 밝히시며 환히 웃으십니다

총대철학

안정기

사람의 상상봉에 총대가 있다
목숨마저 바치는 어머니사랑이
노예된 아들을 구원했던가
오직 총대만이 철책을 끊나니

자주와 생존은 인류의 갈망-
국가가 원하고 민족이 바란다고
제국주의침략자가 선심을 쓰던가
오직 총대만이 그걸 쟁취하더라

총대가 약하면 노예
총대가 흔들리면 죽음
이것은 력사가 새겨 준 피의 교훈
오직 선군의 총대만이 자신을 지켜 내나니

오, 우리의 총대 백두산의 총대
이것은 나라의 자주이며 민족의 존엄
세계는 경탄속에 받아 안았다
장군님의 위대한 총대철학을

만경대가문

1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인 임진(1592)년의 일이었다.

홍포한 왜적이 침노하여 나라엔 전란이 일었고 도처에서 의병이 창궐하였다.

고도인 평양성의 남너로소가 왜적에게 쌀 한톨, 물 한모금, 간장 한종지 주지 않으려고 우물을 메우고 장독을 깨뜨려 왜적은 기근에 쓰러질 지경이었다.

의병들은 먹을것을 찾아 싸다니는 왜병들을 잡기 위해 성밖의 길목들에 함정을 파고 허병다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왜적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그만 큼직한 호랑이 한마리가 걸려 들었다.

사람들은 처음 황소만 한 호랑이를 보고 아연하여 어쩔바를 몰라 하다가 장사 몇을 골라 호랑이를 창으로 찔러 잡기로 하였다.

장사 서넛이 먼저 함정우에 호랑이가 뛰여 오르지 못하게 장대를 건너 지르고 그우에 그물을 쳤다.

그러나 호랑이의 요동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었다.

산을 찌렁찌렁 울리는 포호소리, 이마에 뚜렷한 임금왕자의 무늬, 바위를 부실듯 한 역센 앞발, 길길이 뛰여 오르는 맹수를 향해 창을 던지고 돌을 던져 보았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사람들은 밤중까지 해불을 켜들고 와와 소리만 질러 댔다.

이때 길 가던 한 장정이 그 사연을 듣고 유유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마을의 좌상로인에게 호랑이를 건져 널테니 대신 그 호랑이를 자기가 데리고 가도록 해달라는 청을 하였다.

좌상로인은 호환을 걱정하던 참이라 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되려 간청을 하였다.

구척장신의 그 젊은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홀로 우뚝 함정에 이르러 섰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시각에 젊은이는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부리부리한 눈으로 호랑이를 뚫어지게 내려다만 보았다.

그러자 지금까지 날뛰던 호랑이가 갑자기 조용해 지며 쭈그리고 앉았다.

이때에 젊은이가 그물을 스적스적 걸어 내고 긴 통나무 하나를 넣어 주자 호랑이는 경충 밖으로 뛰여 올랐다. 그리고는 젊은이의 옆에 온순하게 꿇어 앉는것이였다.

사람들은 그가 호랑이를 이끌고 강 건너 수림쪽으로 사라지는 때까지도 났을 잃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얼마후 젊은이가 호랑이를 끌고 간 아미산쪽에 서 이따금 왜적들이 호환을 입어 간 곳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나왔다.

풍문을 통해 그 젊은이의 이름이 김계상이며 본향은 전주사람으로서 얼마전에 이 근처로 복상해 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왜적이 쫓기여 가고 평양성이 수복된 이후에도 젊은이는 아예 이곳에 눌러 앉게 되었는데 평양장안에서는 호랑이이야기로 하여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전해 지는 말에 의하면 어느 봄날, 그 젊은이가 평양성안의 대성산이며 룡악산, 금수산을 거쳐 대소군봉들을 날날이 편답하고나서 만경봉에 올라 산하를 굽어 보며 《이야말로 천하제일의 금성탕지요, 절승경개로다. 일찌기 단군성왕이 점치하고 고구려가 천년사직을 의탁했던 이 땅을 오늘에 와서 멀리 하였으니 이 나라의 국운은 결코 길지 못하리라.》라고 하며 장탄식을 하였다 한다.

그의 이러한 범상치 않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시국형편에 대해 물으니 흔연히 답하기를 《액운이 진하면 다시 흥할 때가 오련만 아직은 무진한 세월이 류수해야 하리로다.》 하였다.

그런 다음 문득 《내 오늘 어찌하여 천기를 루설하였던고.》 하고는 소매를 떨치고 일어 나 종적없이 사라져 버렸다는것이였다. 그 소문이 퍼져가 관가에서는 소동이 일어 났고 시국을 혼란케 하는 예언을 한 사람을 잡으려고 좌우포청이 펼쳐 나섰으나 종시 헛물만 켜고 말았다 한다. 그런속에서도 세월은 세월대로 거침없이 흘러 이제 그 모든것이 까마득한 옛말처럼 되여 버린 때에 다시 김계상이라는 이름이 상기된 일이 있었다.

때는 병인 (1866)년 8월 유미렬강들이 저마다 《문호개방》을 구실로 이양선들을 몰고 오던 무렵이였다.

대동강하구쪽에서 괴상한 이양선 한척이 거슬러온다는 흥흥한 소식이 퍼져 오더니 며칠후에는 세곡을 싣고 부리던 나라배가 양포에 맞아 물에 가라앉고 양국놈들이 부녀자들을 릉육한다는 급보가 평양성안에 다달았다.

그 미국침략선 《서먼》호가 만경대밀의 두루섬 앞까지 기여 든 때였다.

성안은 온통 죽가마처럼 끓었고 감영에서는 이를 조치하기 위한 화의책과 주전책으로 갑론을박이 밤낮없이 진행되였다.

누구보다도 끝이 아픈것은 평안감사 박규수(원

암 박지원의 손자)였다.

이양선이 대동강상에 떠오른지도 어언 보름째, 침략자들은 날마다 총포를 쏘아 대고 지나가는 배들을 랏치하며 한치한치 성 가까이로 접근해 왔다.

벌써 수일전에 관청에서는 침략선이 분명했으나 조난선의 례에 따라 그들이 요구한 쌀이며 고기류, 닭알과 뽕나무 등을 공급해주고 다시한번 외국과의 교역은 국법에 의하여 엄금되었음을 알리었다. 그랬으나 배는 계속 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시끄러움을 참아야만 한단 말인가.

박규수가 넓은 대청마루에 나가앉으니 오늘도 이양선이 한사정부근까지 올라 왔으며 몇놈은 작은 배를 타고 성아래인 오탄에 기여 들어 수심측량과 정탐행위를 일삼다가 격분한 백성들에 의하여 도망치고 말았다고 했다.

《지금에 성안밖 군대와 백성들은 한결같이 격분한 마음을 품고 명령이 없이도 모이고 북을 울리지 않아도 다투어 진격하여 기어코 침략자를 쳐엎애고 말겠다고 나서고 있소이다.

특히 이양선이 두루섬에 정박했을 때 만경대의 한 젊은이는 사람들을 휘동하여 집집의 바줄을 다 모아 곤유섬과 만경봉사이에 겹겹이 건너 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침략선의 앞길을 가로 막았다 하나이다...》

파발의 급보에는 이밖에도 그 젊은 기인이 이양선을 하루빨리 쳐엎애 명안을 내여 관가로 보내온것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어서 그걸 이리로 가져 오도록 해라.》

감사의 령이 떨어 지자 붉은 술이 달린 병거지를 쓴 두 군사가 석자는 실히 될 묵직한 널쪽을 랑손으로 맞들고 섬돌계단으로 올라 왔다. 널쪽은 무명으로 정히 감싸기까지 하였는데 풀고 보니 이런 활달한 필체가 나타났다.

火不因薪(화불인신)

萬祖一孫(만조일손)

《영? 화불인신 만조일손. 그러니 쏘으로 불을 일구지 아니하면 만명의 할아버지중에 손자 하나만 남는다는 말이렸다.》

《그렇소이다. 만경대의 그 젊은이가 일필휘지로 저 글을 적어 내리자 그곳 백성들은 너도나도 나무단을 가득 실은 매생이들을 강안으로 끌고와 이양선을 태워 버릴 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박규수는 그제사 머리를 끄덕이며 일어 섰다.

《불배를 띄워 화공으로 적선을 태워 버린단 말이지. 과시 명안일다! 과시 장한 생각일다!》

이리하여 침략선 《서면》호를 소멸하기 위한 일대 화공전이 시작되었다.

마침 불었던 장마물이 줄어 들어 침략선은 한사정 앞여울목에 걸린 상태였다.

만경대의 젊은 기인은 오래도록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심한 대동강흐름의 특성을 따져 본후 화공날자를 택하였고 나무단들에 류황을 뿌리도록 명하였다.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춘 날에 성안의 군민들을 향하여 젊은이는 불을 토하듯 웨쳤다.

《수수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례의를 숭상해 온 나라 백성으로 어찌 서양오랑캐들의 오만무례함을 묵묵히 묵도하고만 있겠는가. 양국놈들과 싸우지 않는것은 곧 화친이요, 화친은 백성을 남의 노예로 말기는 길이다. 단군성왕의 자손들이며 고구려의 후손들인 평양성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에 보여 주자. 자, 불배를 띄워라!》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삼단 같은 불길이 지퍼 올랐고 불배들은 바람과 물결에 실려가증스러운 침략선이 있는 곳으로 떠밀려 갔다. 총포소리, 북소리, 고함소리로 천지가 진동했고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침략자의 말로가 어떤것인가를 새기고 있었다.

침략선의 선체가 불 탄채로 강물속으로 기울어지는 때에 감사는 국왕에게 곧 첩보를 올리였다.

《... 그리하여 곧 성밀의 방어를 말고 끝내 불배를 떠내려 보내는 전술로써 씨앗도 남지 않게 몽땅 격멸해버린것은 모두다 이들 군대와 백성들이 용감성을 발휘하고 정의에 불 탄데서 나온것이며 처음부터 나의 지휘와 계획이 정확했기때문은 아니옵니다.》

그런 다음 관리들에게 이번 침략선을 격멸하는 데서 가장 큰 공로자인 만경대의 그 젊은이를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랬으나 관리들이 다시 강가로 뛰어갔을 때는 이미 침략선이 침몰된후여서 바이 그 젊은이를 찾을 길이 없었다.

며칠후 한 관리가 감사앞에 나서며 이런 말을 하였다.

《이번에 화공전술을 발기하고 지휘한 그 젊은 기인으로 말하면 듣건대 임진년의 호랑이로 소문이 자자했던 김계상의 후손으로 본향은 전주이며 함자는 응자 우자라 하옵니다. 그 기인은 몇해전까지 평양성안에서 기거하였사운데 근간에 갑자기 만경대로 옮겨갔다하옵니다.》

《김응우라?! 그 기인이 만경대에서 산단 말이지... 자고로 만경대는 산천경계가 류달리 빼여진 곳으로 그러한 기인이 있을법 한 고장이로다.》

감사의 그 말에 관리들은 저마다 발을 달았다.

만경대는 산천경개도 그렇지만 또한 유서 깊은 곳이다. 옛적 신선의 글이 이곳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고려때에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루정을 세우고서 하도 경치가 아름다와 《다경루》 혹은 《만경대》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한다.

그 신령스럽고 수려한 산천에서 오늘은 김응우

라는 기인이 나타났으니 명승이 기인을 불렀던가 아니면 기인이 명승을 알아 보았던가.

그러나 흔히 세상의 소문과 다른것이 인간개개의 운명이였다. 만경대의 기인으로 불리우는 김응우는 너무도 구차한 생활로 하여 한 지주의 묘지를 보아 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얻은 청년이였다.

대대로 뼈 빠지는 소작살이로 집안은 몹시도 어려웠고 어딜 가나 가난은 그림자마냥 따라 다녔다.

그랬으나 많은 사람들은 산당집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도리머리를 젖곤 하였다.

그렇듯 애국열에 불 타고 더우기 《서면》호를 수장시킨 기인이 어찌하여 남의 집 산당지기가 되었던 말인가. 필시 그 무슨 계시로 하여 하늘의 뜻을 좇는것이 분명하리라.

그로부터 산당집을 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레사롭지 않았고 산당집의 일이라면 뭐든지 관심 안되는것이 없었다.

누군가가 무정한 세월은 물결과도 같이 흐른다고 했다. 그랬으나 그 세월은 만경대사람들의 이 눈길과 관심이 결코 헛된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침략선 《서면》호가 대동강에 처박힌지 다섯해가 되어 오는 해에 산천의 정기는 슬며시 산당집으로 찾아들었다.

만경대의 기인이 뜻밖에도 생남 김보현을 본 것이였다.

《허허허... 외독자의 집안에서 생남을 보았은즉 가문의 명줄은 잇게 되였도다. 오늘로 만경대의 첫 세대가 뿌리를 내렸은즉 장래에 가문이 번창하고 흥하리로다.》

이것은 생남을 축하하러 온 한 늙은이의 말이였다.

전국각지에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척화비》가 세워 졌다는 말을 듣고 급히 평양성안에 들어 갔다가 뒤늦어 돌아온 만경대기인은 늙은이의 이 진심에 넘친 말을 듣고 호걸스런 웃음을 지었다.

그때로부터 산당집에는 자손복이 들어 3대독자였던 가문이 정말로 다음대에는 어느덧 아들딸 6형제로 불어 났다.

만경대기인은 아드님인 김보현선생에게 손주들의 이름을 차례로 형자돌림을 정하여 각각 김형직, 김형록, 김형권으로 짓도록 하며 손녀들은 김구일녀, 김형실, 김형복이라고 지어 주었다.

비록 가난은 사나운 악어처럼 이를 갈며 달려 들어도 자손이 번창하니 산당집에서는 웃음이 피어 났고 이웃간에 서로 돕는 마음이 극진하였다.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수 없느니라.》

이것은 늘 자손들을 앓혀 놓고 만경대기인이 타이르던 말이였고 김보현할아버님이 자식들에게 가르치던 훈계였다.

2

예로부터 위인이 탄생하거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에는 여러가지 놀라운 일들이 먼저 생기곤 하였다고 한다.

지동이 일거나 상서로운 별이 비치고 꽃나무에 꽃이 일찍 피어 나는 등 이상한 조화는 다 나라에 대통운이 틀 조짐을 예고해 주는것이라고 하였다.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망국노의 신세가 된지 여러 해가 지난 임자년(1912년) 초봄의 일이다.

이해 4월초, 길 가던 한 로인이 만경대에 들려 샘물터에서 웬 너인에게 물을 청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너인은 바가지에 샘물을 정히 떠서 로인에게 두손으로 받쳐 주었다.

그것을 받아 시원스레 마신 로인은 바가지를 돌려 주며 하는 말이 《내 풍수로 한생을 살아 오면서 안다녀 본 곳이 없는데 보던중 만경대처럼 땅생김새와 나무와 풀이 조화되어 한눈에 일만경치를 볼수 있는 고장은 처음이요. 만경대는 좌청룡, 우백호, 배산림수한 곳이니 그야말로 명당자리요. 그런데 물맛 또한 이처럼 달고 바람도 고르로우니 필시 여기가 귀인이 내릴 땅이 분명하오.》라고 하였다.

풍수설에서 주산의 왼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좌청룡》이라 하고 오른쪽 산줄기는 《우백호》라 하며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한것이 《배산림수》라 한다.

그러나 만경대와 같이 세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앞이 확 트인 고장을 《좌청룡 우백호배산림수》라 부르며 명인이 나는 고장이라고 일러 왔다.

그 너인에 의하여 로인의 말이 온 동리에 짝 퍼진 어느 날 산당집의 김보현할아버님은 간밤에 꾸신 꿈이 하도 신기하여 식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꿈에 할아버님이 무저 놓은 나무단을 저내려 오시려고 어뜩새벽에 만경봉으로 오르시였다. 못별들도 자취를 감추어 날은 퍼그나 어두웠으나 늘썩 다니던 길이어서 할아버님은 헛갈리지 않고 오솔길을 따라 오르시였다.

할아버님이 산중턱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갑자기 앞이 환해 저서 살펴 보니 만경봉우에서 무엇인지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할아버님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수 없어 봉우리를 향해 걸음을 다그치시였다.

봉우리에 올라 서보니 만경봉의 넓다란 공지에 대여섯자폭의 둥그런 방석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눈부신 빛이 뿜어 나와 주변을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너무도 신기하여 자세히 살피던 할아버님은 깜짝 놀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방석이었는데 그우에 림름하게 생긴 옥동자가 점잖게 앉아서 만경대를 굽어 보는것이 아닌가.

할아버님은 옥동자의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불시에 안아 보고 싶으신 충동이 일어 나 두팔을 벌리며 달려 나가시었다.

그런데 그만 나무가지에 지게다리가 걸치였다.

할아버님은 안간힘을 쓰며 당기셨는데 나무가지가 꺾어 지는 바람에 무릎방아를 찢게 되시었다. 그러나 옥동자를 잃을가봐 아픔도 잊고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던것이다....

할아버님의 이 꿈이야기를 전해 들은 만경대사람들은 그 꿈이 정말로 신통하다고 하면서 이제 나저제나 산당집에서 울려 나올 고고성을 기다렸다.

며칠후 온 동리에 때 이르게 살구꽃이 활짝 피어 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피여 나는 꽃을 보며 이 고장에 귀인이 내리는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바로 그날 우리 인민이 것처럼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고대하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었다.

그날은 주체 원년 1912년 4월 15일 이른 새벽이였다.

김보현할아버님은 이날에 맏손주가 태어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과시 꿈에 본 옥동자가 틀림없다고, 어서 커서 빼앗긴 내 나라를 찾는 큰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성주라는 이름을 달아 주시었다. 생각해 보면 만경대에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반세기, 벌써 만경대가문의 4대손이 태어난 것이였다.

허구한 그 세월, 나라는 어느 지경에 이르렀던가. 백성은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국권수호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건만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제 일신의 안락과 영화를 위해 왜적에게 나라를 팔아 먹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제 맏손이 자라 저 왜놈들을 한손아귀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며 해방의 새날을 안아 올것이다.

할아버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오래동안 건사해온 만경대가문의 세보에 《김성주》라는 이름을 적어넣었다.

이로써 대대로 애국만을 알고 민족만을 아는 집안에 새 기둥이 태어난것이였다.

그러나 할아버님의 이 기대는 너무도 값 비싼 것이였으며 만경대일가분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초는 너무도 모진것이였다.

벼루에 먹을 갈아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고 떠나간 만이는 32살이라는 젊음을 독립제단에 바쳤고 셋째도 그 길에서 돌아 오지 못하였

다.

어찌 이뿐이라. 만경대의 대식술을 위해 굶은 일, 마른 일을 다하고 만이의 뒤바라지를 열심으로 해온 맏며느리(강반석녀사)가 이역의 황야에서 운명하였다는 비보가 왔다.

《아! 빼앗긴 나라와 겨레는 어찌하랴 하고 피가 동이채로 끓는 너희들이 이리도 자꾸만 간단 말이나. 성주야, 어디에 있느냐?》

이 나라 백성모두가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다.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결코 살아서 오지 못할 고향이거늘 부디 왜놈을 내몰고서 만경대가문의 자손답게 몇몇한 금의환향을 하거라!》

할아버님과 할머니, 만경대의 일가분들은 왜놈들의 학정이 아무리 모칠어도 맏손이 반드시 나라를 찾고 집으로 돌아 오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꾀끗하게 살아 오시었다.

할아버님의 그 소원이 전해 졌는지 백두산쪽에 서 희한한 소식들이 들려 왔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새로운 조선군대가 태어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항일대전을 선포하였다는것, 바로 그 독립대장이 다름 아닌 **김일성**장군, 만경대의 맏손이라는것이였다.

《과시 금방석의 옥동자로 났으니 누리를 밝히는 태양이 될만 하다.》

김일성장군님이 도처에서 왜놈군대를 벼락같이 치신다는 소식은 날마다 만경대의 사립문으로 찾아 왔다. 그러한 소식이 전해 진 날이면 만경대집은 온 밤 기쁨에 잠 못들며 백두산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던 어느 해 정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를 떠나신지 열여섯해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립춘이 지나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만경대의 산과 들에 쌓였던 눈이 일시에 녹아 내려 눈석이물이 랑수를 이루었다.

며칠이 지나자 꽃나무들에 움이 트기 시작하였다.

《거참, 조화로군...》

《나라에 무슨 큰 경사가 생기려는 조짐이 아닐가?》

《언젠가 때 이르게 살구나무에 꽃이 피더니 우리 고장에서 **김일성**장군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소.》

만경대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번에는 리보익할머니이 이상 한 꿈을 꾸시었다.

꿈에 할머니는 왜놈들이 무서워 벌벌떠는 **김일성**장군이 보고 싶으시여 백두산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가는 곳마다 **김일성**장군님이 신출귀몰의 측지법으로 왜놈들을 삼대 배듯 쏘아 버리신다는 소식이여서 할머니는 아예 이번 길에 백두산이라는

높은 곳에까지 찾아 가보실 작정이시였다.

할머니가 백두산 어느 골짜기에 들어 서시였을 때였다.

너무 힘이 들어 바위우에 앉아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호흥!-》하는 말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할머님은 하도 신기한 일이어서 사위를 둘러 보시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맞은편 산봉우리에 눈 부신 빛발이 뿜어 나오는 금빛룡마가 서 있었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 룡마우에 툼툼하게 생긴 옥동자가 앉아서 사방 천하를 굽어 보는 것이었다.

할머님은 웬일인지 그 룡마우에 앉은 옥동자가 펑 낫이 익어 보여 안아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 하시였다.

그래 옥동자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안개가 자오룩이 피어 났다.

그 안개로 하여 옥동자의 모습을 볼수 없는 것이 무척 안타까우시였다.

할머님이 그 옥동자를 한참 찾다가 눈을 뜨시니 꿈이었다.

너무도 이상한 꿈이어서 그날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니 모두가 그 꿈이 범상치 않다고 하며 무슨 일이 있는게 확실하다고 하였다.

《백두산에서 싸우는 말손에게 무슨 경사가 생긴게 아닐까요?》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며칠동안을 꿈이야기로 보내시였다.

몇달이 지나서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백두산에서부터 황간에 전해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인즉 백두산대장수 **김일성** 장군님의 뒤를 이으실 새 위인이 금빛룡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위인들이 태여날 때에는 꼭 하늘에 새로운 별이 솟는 법인데 바로 그날에 백두산상공에 광명성이라고 부르는 새별이 솟았다는 것이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신기한 그 꿈이 맞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김보현 할아버님은 해방후 만경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맞이하시던 날 만경대가문의 5대손이 하늘에서 내려 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어리신 장군님을 무릎우에 앉히시고 증손자가 들어 오니 방안에 해가 뜬것처럼 환해 진다고, 파시 룡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 온 광명성이 틀림 없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너의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한다. 할아버지의 그 뜻을 너의 아버지가 지켰으니 장차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나라를 세상에 보란듯이 빛내거라.

대대손손 애국하며 사는 것이 만경대가문의 가풍이고 법도이다.》

이날 할아버님은 다시 벼루를 꺼내놓고 향먹을 갈았다.

그 벼루는 일찌기 김형직선생님이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시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새기시였으며 어리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새기신 뜻 깊은 가보였다.

할아버님은 대북에 먹을 듬뿍 적시고 만경대가문의 세보에 정히 《**김정일**》이라는 세 글자를 써넣으시였다.

반만년의 찬란한 력사와 더불어 년년이 이어지고 이어진 만경대가문!

하늘땅이 열리고 민족창생의 성업이 이룩되던 아득한 그때로부터 민족의 성지로 정해지고 수천년을 아껴온 만경대! 바로 여기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 올라 삼천리를 비쳤다. 하여 오늘은 백두산대장수와 녀장수의 품에서 민족의 향도성이 솟아 올랐다.

오늘도 만경대고향집은 그 성스러움을 고이 간직하고 수천만으로 불어 난 자기 가문의 후손들, 이 나라의 아들딸들모두를 날마다 반겨 맞고 있다.

수령님추억속에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어렵게 살면서도 돈에 대한 타산과 욕심이 없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 산다.>, <돈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 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철학이었다.》

만경대의 지명유래와 《화촌 10 경》

만경대는 위대한 태양이 솟아 오른 혁명의 성지로뿐만 아니라 산천경계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그 이름을 널리 알려 진 명승의 고장이다.

만경대라는 지명은 원래 만경봉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이다.

18세기에 편찬된 《화은집》에 의하면 만경봉이 대동강과 순화강, 보통강의 합수목인 남호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만경봉을 포함한 이 일대를 일명 남호라고 하였고 만경봉을 남산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던것이 봉우리자체의 형세가 높은 벼랑으로 이루어 진데다가 그 정수리가 밀어 낸듯 평퍼짐한것이 마치 하나의 정교한 무대를 방불케하고 또 산마루에 올라 서면 사방 100리안팎의 일만경치를 환히 바라볼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경대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만경대라는 이름은 그후 만경봉뿐만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지명으로 굳어 지게 되었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만경대가 솟아 있는 남호일대의 뛰여 난 풍경을 《평양8경》의 하나(《차문 나무에 배 띄우기》)로 꼽았으며 특히는 만경대에서 바라보이는 일만경치를 10가지로 함축하여 《화촌10경》이라고 명명하면서 널리 자랑하여 왔다.

《화촌10경》에는 《만경대의 봄경치》(《만경상춘》), 《세 섬의 달밤정경》(《삼도범월》), 《봉포에서의 고기잡이》(《봉포타어》), 《우산에서의 소방목》(《우산목독》), 《광촌마을의 밥 짓는 연기》(《광촌취연》), 《석호의 돛배》(《석호풍범》), 《양산의 푸르른 기상》(《양산창취》), 《원암의 붉은 절벽》(《원암적벽》), 《추교의 씨불임 광경》(《추교관가》), 《동림나무터에서의 손님배웅》(《동림송객》)이 속하였다.

여기서 세 섬은 만경봉앞의 두루, 두단, 문발섬이며 봉포는 만경봉좌측 봉황대앞에 있던 옛 나무터의 이름이다. 그리고 우산은 지금의 만경대구역 원로리 차가골로 추정되는데 지난 날 이곳에서 짐승을 많이 길렀기때문에 일명 짐승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또한 광촌은 순화강 서쪽의 현재 만경대구역 대평동에 있던 광탄동으로 보아 지고 석호는 보통강과 대동강이 합수되는 지점에 있던 나무터로서 옛날 이곳에 석호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양산은 오늘의 만경대구역 룡봉리의 양산이며 원암은 만경봉에서 동평양쪽으로 곧추

바라보이는 락랑구역 원암산기슭의 절벽이다. 이 밖에 추교와 동림은 각각 만경대구역 금천동의 추자벌과 만경봉기슭의 동림산창을 의미 한다.

《화촌10경》에서는 봄날 온갖 꽃들이 만발하게 피여 나 하나의 꽃동산을 련상시키는 만경대의 봄경치(《만경상춘》)를 첫째가는 경치로 내세우고 있다.

밤이면 만경봉을 감도는 대동강물결우에 은빛쟁반마냥 반짝이는 달빛이 어린 세 섬의 그윽한 자태, 푸른 정기를 내뿜는 양산의 웅건함, 송아지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애뜻한 정서를 자아내는 우산이며 물고기잡이와 씨불임으로 흥성이는 봉포와 추교의 광경 등 《화촌10경》의 매 대상은 각기 자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만경대를 둘러싼 일만경치를 함축하고 이 산세 수려한 곳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의 다정다감한 인정세계와 고상한 생활지향을 풍만하게 반영하고 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옛 문헌들에서는 《화촌10경》을 소개하면서 《평양일대의 산수치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으나 화촌일대야말로 그 경치에서 최고》이며 특히 만경대와 같은 절경을 두고 《나라안에 이만한 곳이 다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많은 시인, 문인들도 만경대의 아름다움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는데 18세기 평양의 재능있는 향토시인인 리시향은 《만경대에 올라》라는 시에서 비취색구름속에 솟은 만경대의 자태를 시에 담자고 하니 보면 볼수록 더더욱 아름다와 차마 시구절을 찾을수 없다고 하였고 당시 실학자 문인으로 유명했던 홍량호 역시 시 《만경대》에서 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 어떤 명승지도 《동방조선의 으뜸》 만경대에는 비기지 못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참으로 만경대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화촌10경》은 예로부터 《평양8경》과 함께 우리 인민들속에서 끝 없는 사랑과 찬탄을 받아 온 조선의 자랑이었다.

오늘 만경대는 우리 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진보적인류가 우러러 받드는 천출위인 경애하는 수령님을 받들어 올린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로, 천하절승으로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유서깊은 골짜기

문상봉

1

무선전화기에서 파란 신호등이 반짝 켜지며 종 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듯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나요, 껌질 벗긴 나무를 발견했다! 정말 수고들이 많았겠소. 곧 현출작업을 하겠단 말이지?... 웁소. 틀림 없는 구호나무일거요...》

전화상대는 당력사연구소 일군인 리석범이다. 그는 지금 탐사밭굴대를 인솔하고 소백수굴에 가 있었다.

전례없이 흥분하시어 이야기를 주고 받으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통화가 끝난후에도 송수화기를 감아 쥐신채 한동안 움직일념을 모르신다.

창밖의 시내가를 병풍마냥 둘러 선 이깔숲이 그 어떤 환희로운 순간을 맞이한듯 술렁거리며 설레었다. 나무우듬지에 앉아 부리로 깃을 다듬던 보라매가 몸을 솟구치더니 백두산쪽으로 훨훨 날아 간다. 장마뒤에 한껏 열려진 파란 하늘에서 정오해빛이 대산줄기의 수려한 기복들을 유난스럽게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윽하여 **김일성** 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제 자리에 내려 놓으시고 원주필을 집어 드시었다.

집무탁에는 원고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어간에 집필속도가 더욱 빨라진 회고록의 초고들이었다.

그이께서는 원래 회고록을 쓰실 생각이 별로 없으시었다. 껌 오래전부터 항일혁명투사들과 일군들이 기회가 있을적마다 건의도 하고 간청도 하였으나 매번 웃음으로 대하시곤 하였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의 고통스러운 지속, 그로부터 초래된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아직은 남들보다 월등하지 못한 인민생활 등이 심중을 매사건건 붙들고 놓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의 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까지 접견때는 물론 서신으로 주석님의 한생이 후대들에게 고귀한 인생관과 투쟁의 참된 교훈을 일깨워 줄것이라면서 자꾸 권유해 왔다.

생활은 주마등 갈다더니 항일의 로투사들도 하나 둘 자신의 결을 떠나가고 이제는 새로 자라난 세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진으로 혁명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사정은 그대들에게 세기와 더불어 주체위업을 개척해 오시면서 체험한 만단사연과 선렬들이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해 어떻게 청춘과 생명을 바쳤는가를 알려 주는것도 어쩔수 없는 현실적인 의무로 나서게 됨을 감득하시었다.

최근에는 **김정일** 동지께서 당과 군대의 전반사

업을 맡아 보시고 국가일의 막중한 부담들을 많이 덜어 주시어 어느 정도 여가를 얻게 되시었다. 그래서 짬이 생기는대로 한두단락씩 적어 놓으신 것이 이제는 퍼그나 부피가 두터워 졌다.

파란중첩한 수십성상의 이야기줄거리는 보통사람은 엄두도 낼수 없도록 방대하다. 하지만 혁명과 건설에 피와 심혼을 다 바쳐 오신 《이민위천》의 인생로정은 그이의 뇌리속에 일목로연히 새겨진 것이어서 필만 드시면 일사천리로 자리가 났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집필을 잠깐 멈추시고 아득한 수림너머에로 눈길을 주시었다. 백두의 험산준령이 시야에 우뚝하게 안겨 들었다. 그 중중심쳐인 소백수굴에 가 있는 석범이네의 다음일이 은연중 조급증을 일으킬 정도로 기다려 지었다.

(구호들이 제대로 나타날까?)

오랜 나날 눈비와 강풍속에 퇴색할대로 퇴색해진 구호문헌을 원상으로 현출하기가 조련치 않을 것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일류급에 속하는 연구사들이 달라붙긴 했지만...

쉬임없이 흐르는 세월은 항일전의 그날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가 백두산 《천도》를 단행한 때로부터 50년이란 시간간격개념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웅근 반세기의 년륜이 구호나무들에 덧새겨졌을 것이다. 그 거목들이 천변만화하는 백두의 기후풍토와 세상살이의 온갖 곡절을 겪으면서도 자기 존재를 끄떡없이 보존하고 있는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어느 시인이 썼더라? 푸른 기념비라고... 정말 생동하고도 적중한 표현이야!)

김일성 동지께서는 팔걸이결상등받이에 옷몸을 기대시고 조용히 시구절을 읊으신다.

금문자로 새겨 진것이 아니여라
옥돌을 다듬어 세운것은 더욱 아니여라
하건만 이 세상 억만금을 다 합친대도
비길수 없는 혁명의 만년재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토록 빛 뿌릴
오, 너는 백두의 푸른 기념비
...

회고록집필과 때를 같이 한 소백수굴에로의 탐사밭굴조직, 이것이 과연 우연한 일치이겠는가? 아니, 세대와 세대의 분수령에서 의례히 파생되는 필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백두산밀영지로 부르던 소백수굴은 자신께서 조국을 해방하신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 기간 어느 한순간도 마음속에

서 떼어 놓을수 없었던 청춘시절의 보금자리였다.

어제도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백두산에 오르셨었다. 그 길로 주변의 혁명전적지들까지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다음번 현지지도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오셨던 길을 되짚어 차머리를 돌리시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가면서도 《백두산밀영… 백두산밀영지는 어느 골짜기에 있는가?》고 안타까이 부르짖었다는 박영순의 목소리가 걸음걸음 귀전을 울리면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감으로 심증을 짊어 잡았던것이다.

차창밖으로 낮 익은 옛 친구들이 언뜻언뜻 스쳐 지나갔다. 새록새록 감회를 불러 일으키는 유명한 산천이었다.

소백수다리를 건너 가려는 찰나 **김일성** 동지께서 불시에 승용차를 멈춰 세우시었다.

수행하고 있던 리석범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길설에 내려 서신 수령님곁으로 다가갔다. 백두산으로 가실 때에도 이 다리를 지나시며 주변의 지형상태를 류다르게 살펴 보시던 모습에 잔뜩 의문을 품고 있던 그였다.

《흠… 보면 볼수록 눈에 익단 말이야…》

혼자소리로 뇌이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산세가 너무 험하여 그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골짜기의 안쪽을 손채양밑으로 바라보고 계시었다.

《이곳의 풀 한포기, 흙 한줌에두 항일전의 자취가 력력한데 왜 눈에 익지 않겠습니까!》

리석범이 별로 생각없이 말쑥 올리자 그이께서는 고개를 가로 저으시며 손채양을 내리우셨다.

《허, 그래서가 아니요. 가만… 차안에 쌍안경이 있지?》

《예… 가져 오랍니까?》

《응, 그래 주요.》

석범은 인차 쌍안경을 가져다 드리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위를 둘러 보시다가 앞의 경사진 둔덕우에 올라 서시었다. 그러시고는 소백수가 흘러 내려 온 옷쪽 골짜기에 대고 오래동안 망원렌즈를 조절하셨다. 각도와 방향, 거리를 이리저리 바꾸며 그러시기를 여러번…

그이께서는 쌍안경을 내리우시고 잠시 기억을 가다듬으셨다. 다음에는 둔덕을 내려 서는 길로 소백수의 흐름을 거슬러 가시며 지세를 찬찬하게 살펴보시는것이였다.

(?…)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고 슬금슬금 뒤따르던 리석범은 다리에서 펴고나 멀어 진 다음에야 펄쩍 정신이 들어 숨 가쁜 소리를 내였다.

《수령님, 길두 없는 곳으로… 어찌실려구 이렇게…》

쭉새풀과 가시덤불, 울퉁불퉁한 돌서덕, 장마비에 험상스럽게 패여 진 흠채기들…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구.》

김일성 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부축해 드리려는 그를 가볍게 제지하셨다. 고향의 걸음새

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씨엉씨엉 앞을 헤쳐 가시었다.

당황해 난 석범은 앞질러서 길을 내드리느라 분주히 돌아쳤다. 길아닌 비탈길은 갈수록 험악했다.

《이보라구.》

수령님께서 석범을 부르시었다.

《박영순 동무가 이쪽으로 해서 백두산에 들어가 본적이 있소?》

석범은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던 석범은 떠오르는것이 없어 그대로 대답 올렸다.

《제가 동행할 때에는 이쪽으루 방향을 잡은적이 한번두 없었습니다. 대개 혜산이나 대흥단에서부터 밟아 들어 갔구 그다음은 압록강건너편에서 동쪽으루 방향을 정하군 했습니다.》

백두산의 술한 골짜기들을 박영순이와 함께 누벼 온 석범이였다.

《흠… 그랬을거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려깊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항일의 옛 친구들을 찾아 내고 고종하는 사업에 누구보다 심혈을 바쳐 온 박영순이지만 이 소백수는 전혀 생소하였을것이다. 백두산시절에 그가 동남방향으로 발걸음을 해본적이 없었으니까…

문득 가파로운 둔덕이 앞을 가로막았다. 수령님께서는 예돌지 않으시고 풀과 잡관목줄기를 휘여 잡으며 곧추 올라 가시었다. 순간 그이의 안광이 번쩍하시었다. 그렇다. 눈에 띄는 까닭이있다. 1938년 여름 함남도 신흥지구로 진출할 때전우들과 함께 이 둔덕에 올라 건너편 산중턱의 저기묘하게 생긴 바위를 바라보던 기억이 난다.그때 누가 말했더라? 신통히 백두산을 지켜 선 호랑이의 형국이라고…

쌍안경으로 석양이 비친 골안쪽을 한식경이나 살펴 보시던 **김일성** 동지의 사색 짙은 눈가에는 점차 그 어떤 확신이 서리서리 어려 들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어 리석범은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집무탁우에 펼쳐 놓은 지도를 들여다 보시다가 기척소리를 내고 들어 서는 그를 가까이로 부르시었다.

(?…)

확대한 백두산지구의 지형도인데 소백수를 거슬러 올라 가다가 두갈래로 가지친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것이 유묘하게 눈에 띄였다.

《우리 이제부터 여기를 소백수골이라구 부르지요.》 하고 그이께서는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친 아래에다 소백수골이란 지명을 써놓으셨다.

《…합수목에서 시내물을 거슬러 한참 가노라면 100여길쯤 되는 벼랑바위봉우리가 나질거요.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소. 우리 동무들은 그전에 장수봉이라구 불렀었지…

그 아래에 넓은 공지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마 새초밭이 되었을수도 있소.》

김일성 동지께서는 안경을 벗어 드시고 쓰르시 눈시울을 좁히시었다.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던 그이의 뇌리에 섬광 같은것이 편뜻 스치었다.

《그곳에서 동무가 먼저 찾을것은 수십년전에 꺾질을 벗겨 놓은 나무들이요. 내 기억엔 많았다고 보아 지는데 강산이 몇고래씩이나 뒤번져 졌으니 무슨 일인들 없었겠소. 다문 한대라도 나지면 즉시 나한테 연락해 주오.》

수령님께서 청봉에 있던 현출조를 이미 부르셨다시며 그들과 호위성원들을 포함시켜 탐사발굴대를 무어 주겠으니 구체적인 준비를 하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그래 언제쯤 떠나겠소?》

그이께서는 안경을 다시 끼시며 물으셨다.

《날이 밝으면 인차 떠나겠습니다.》

《그렇다!… 로정은 어떻게 잡으려고 하오?》

백두산일대의 지형을 손금 보듯 환히 꿰뚫고 있다고 자처하는 석범은 즉석에서 대답 올렸다.

《자물차로 강안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물꺾을 따라 골안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령님께서 두팔을 엇걸으시고 잠시 어둠이 깃든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그곳은 산과 산들이 서로 엇갈려 맞붙어 있기 때문에 바투 가서도 알아 보기 힘든 골짜기요.

그러니 직승기를 타고 공중에서 확인한 다음 행동하는것이 좋을것 같소.》

리석범은 입을 벌리며 눈을 크게 떴다.

《저… 수령님! 100리길두 채 못되는 그곳으로 직승기까지 띄울 필요가…》

《아니요. 내 말대로 하오. 거기는 미궁과도 같은 곳이란 말이요. 몇해전 참관도로를 내기 위하여 우리 책임서기와 군사무관이 그쪽으로 지형로해를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를 동무두 알고 있지 않소.》

수령님의 그 말씀은 사실이였다. 태고연한 원시림속에서 그들은 꺾을 헛갈려 좌왕우왕하다가 오리무중에 빠졌었다. 갈수록 험산이라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겪었다. 그때 수령님께서 직승기와 호위중대까지 동원시켜 주시여사야 위험속에서 가까스로 구원되었던것이다.

《날새도 고적속에 애를 태우다가 떠나버린다는 백두의 중심골짜기요.

옛날 우리가 그 골안을 처음으로 개척할 때는 거기서 산짐승의 발자국조차 찾아 보기 어려웠었소.

그러길래 지금까지두 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던거구…》

다음날 리석범은 수령님께서 몸소 무어 주신 탐사발굴대를 인솔하고 직승기에 올랐다.

《아직은 우리 둘만이 알고 있자구.》

그를 바라우시며 **김일성** 동지께서는 의미심장하게 두눈을 깜빡하시었다.

2

나라의 전반적인 농사작황로해, 항일무장투쟁시기 유적, 유물에 대한 영구보존문제를 놓고 도안의 관계부문 일군협의회가 끝나니 벌써 오후시간이 퍼그나 흘러 갔다.

비로소 한숨 들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원고지를 마주하시는데 서기가 외신자료를 집무탁에 조심히 놓아 드리고 나간다.

《미하일 고르바초브가 시도하고 있는 사회개혁은 비스팔린화의 두번째 시도이다》라고 쓴 표제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려겨되어 있었다.

…1985년 7월 1일 쏘련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당중앙위원회 중공업 및 군수공업 담당비서이며 레닌그라드주당 제1비서인 로마노브가 별인간 《건강상의 리유》로 은퇴 당하였다. 그는 체르넨꼬서거후 열린 당정치국회의에서 고르바초브추천에 반기를 들고 그리신을 총비서후보로 추천하였던 사람이다.

1985년 10월 14일 고르바초브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데서 주되는 《적》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니콜라이 바이바코브를 년금생활로 돌려 앉혔다.

1985년 12월 그리신은 수도시민들의 생활을 잘 《돌보지 못한 과오》와 모스크바주택건설에서 나타난 《부정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스크바시당 제1비서직을 박탈 당하였다.

그외에도 고르바초브에 의하여 해임 및 실각된 일군들은 모두 레닌과 쓰팔린의 위엄에 충실한 사람들이였다.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전까지 고르바초브는 당일군, 행정간부들의 과반수를 측근으로 갈아 치움으로써 《개편로선》의 현실적가능성을 마련하였다.

고르바초브는 이런 면밀한 준비밑에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 개시날자를 1986년 2월 25일로 잡았다.

30년전인 바로 이날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니키타 흐루쇼브가 쓰팔린을 약탈하게 혈뜬었던것이다. 고르바초브는 이렇게 당대회날자를 제정함으로써 흐루쇼브가 다하지 못한 《개편》정책을 강행하려고 굳게 결심했던 모양이다.

고르바초브는 《개편로선》을 정책화한 이른바 《촉진전략》을 27차당대회에 정식 제출하고 당대회결정으로 눌러 버렸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피이한 낱말을 쏘련공산당의 대의정책리념으로 선포하였다. 그 《새로운 사고방식》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였으므로 제국주의자들과 사이 좋게 지내자

는것이였다.

결국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는 로동계급의 피 어린 투쟁에 의하여 전취된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복귀로선을 채택한 배신과 변질의 대회로서 력사에 치욕스러운 페이지를 남겨 놓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못 볼것을 보신듯 얼른 외신 자료에서 눈길을 떼시였다. 자신도 모르시게 틀어 켜 주먹에서 뼈마디들이 몹시 쭈시여 났다.

물론 그 심상치 않은 기도를 이미전부터 간파 못 하신것은 아니였다. 제때에 경종도 울려 주시였고 사회주의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 오셨다.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였던가.

한때는 세계피압박민들의 동경속에 승승장구하던 사회주의대국이 오늘날에 와서 이 지경이 될줄 레닌과 쓰딸린은 상상이나 했으랴...

집무실에는 천근만근으로 무거워 진 말자국소리가 탁상시계의 초침소리를 누르며 시름겹게 울렸다. 이제라도 사태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겠는가?

김일성 동지께서는 심장이 저려 나시여 한손을 가슴부위에 얹으시고 지그시 눌러 대시였다. 이제 또 무슨 희비극이 연출될것인가는 볼 보듯 뻔하다. 근 70년간 인류의 리상사회를 향하여 기운차게 달려온 쏘련이라는 기관차가 이제는 돌려놓은 전철기에 의하여 자기본래의 궤도를 바꾸었다. 종착역이 파산의 낭떠러지라는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미친듯 질주하는 저 바람난 룰전기계를 무엇으로 어떻게 멈춰 세운단 말인가.

얼마전 자신께서와 조성된 국제정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피로운 안색으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신다.

《... 저 상태로 나아가다가는 쏘련이라는 실체가 몇년어간에 이 행성에서 자기 존재를 끝 마칠것 같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흐루쇼브때부터 홀시되어 온 쏘련의 사상교양실태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구체적인 레를 들어 가며 해부하시였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사업을 차요시하고 혁명전통을 외면하면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옹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종당에는 배신자들에 의해 사회주의전취물이 룡락되고 만다. 이것은 국제로동운동의 좌우경기회주의자들과의 백수십년에 걸치는 투쟁속에서 찾은 력사적교훈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때 동유럽으로 먼저 가는 돌개바람에 대한 **김정일** 동지의 명철하신 분석판단과 그에 대처한 우리 당건설의 당면한 활동방향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시였었다.

자본주의복귀에로 내달리는 쏘련의 현 사태는 그 책임이 결코 로병들이나 일반당원대중에게 있다고 볼수는 없다. 당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이 변질되는데 대하여 가슴 아파 하였다. 중요하게는 혁명적령도의 계승성을 옹계 보장하지 못한데

관건적인 문제가 있는것이다.

《이민위천》의 길을 한생토록 걸으시며 자신께서 체득하신 당건설경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적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예견성 있게 풀어나가는 사업이였다. 명실공히 이 고리를 틀어 쥐면 얼마든지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한 인민의 지도자를 내세우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완성해 나갈수 있다는것을 우리 당은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당중앙위원회를 찾으시였다. 전화로나마 **김정일** 동지와 이야기를 나누면 아픈 가슴이 좀 가라앉을듯 싶으셨다. 그런데 서기의 말이 **김정일** 동지께서 지금 광복거리건설장에 나가계신다고 한다. 만경대지구를 천지개벽 할 작전을 통이 크게 벌리시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건설에로 청년들을 불러 일으키고 계시였다. 거기에는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된 우리 청년들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이 행성우에 우뚝 보란듯이 내세워 주시려는 그이의 웅심 깊은 의도가 구석구석 숨배여 있다.

《수령님, 이제 곧 건설지휘부와 련결하겠습니다.》

서기가 바빠 교환을 찾는 소리가 들려 왔다.

《아니, 그만 두오.》

늘 현장에서 청년건설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휘부에 계시리 만무한것이다.

《부락인데 **김정일** 동지의 건강에 동무들이 각별한 관심을 돌려 주길 바라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내려 놓으시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서시였다.

연연 백두산기슭으로 굽이쳐 간 천리수해가 굽실거리며 시야에 안겨 들었다. 하늘로 우듬지를 쳐들고 조용히 설레이는듯 한 저 밀림에도 실상평화가 깃들 때는 극히 드물고 온갖 풍파가 무시로 덮쳐 든다. 그러나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고목을 쓰러뜨리고 눈보라가 가지를 물어 뜯어도 숲은 여전히 존재할뿐아니라 싱싱하고 억세며 그리고 또 언제나 푸르다.

철이 바뀔때 따라 일시적인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저 거창한 밀림이 줄기차게 생명력을 이어 온것은 나무우듬지를 끝추 쳐들고 태양의 빛발을 자양으로 삼없이 받아 들였기때문이다. 그 자양분이 없었더라면 이 땅은 태고적에 벌써 화산재만 날리는 불모지로 되돌아 갔을것이였다.

불현듯 **김일성** 동지께서는 오래전의 어느 여름날을 떠올리셨다.

점심때였다. 저택으로 들어 서시던 수령님의 발걸음이 무춤 멈추어 지셨다. 정원에서 한창 복숭아를 따고 계시는 **김정일** 동지를 보신것이다.

나무아래 놓인 지함안에는 알알이 풀라 따놓은 막물복숭아가 그들먹이 차 있었다.

《이건 무엇하려구?...》

수령님께서 물으시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빙긋이 웃으시었다.

《림춘추아바이한테 갖다 주려구 그러니까.》

《?!...》

수령님께서 저으기 놀라시었다. 아니 놀라기보다 가슴이 뭉클하였다. 복숭아에 어려 있는 그이의 웅심 깊은 생각을 읽으셨던것이다.

림춘추는 실과중에서도 복숭아를 제일 좋아 하였다. 한번은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뭉으로 남겨 놓은 복숭아인줄도 모르고 입에 넣었다가 부인한테서 주책머리 없는 경감이라고 꾸중을 받은적도 있다.

《음... 좀전에두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 와서 림춘추가 외교관례에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조직 문제를 보자구 제기했는데 여기서는 그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구 있구만.》

수령님께서도 손수 복숭아를 골라 따시며 짐짓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례의 그 림춘추는 해외에서 대사로 사업하다가 원칙을 지켜 주재국의 당국자들과 되게 충돌하고 엇그제 조국으로 돌아 왔었다. 당안에 있던 한 종파사대주의자는 산 범을 잡은 포수마냥 기고만장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저는 그 사람과 문제를 달리 봅니다. 림춘추 동지는 수정주의자들과 잘 싸워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어조는 공손하였으나 내용은 정의감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두분께서는 복숭아지함을 함께 포장하시었다. 무언의 손놀림속에서도 수령님께서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내세워 주시려는 **김정일** 동지의 고결한 인간미를 뜨겁게 헤아리셨다.

그후 림춘추는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정립하고 소개선전하는 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이 빨찌산출신의 문필가를 적극 후원해 주시고 집필활동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분은 다름 아닌 **김정일** 동지이시었다. 이런 과정에 그는 **김정일** 동지의 인간적매력에 탄복하였으며 그이를 스승으로, 령도자로 따르고 흠모하게 되었던것이다.

혁명선배를 어떻게 대하여 선렬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참다운 후계자와 너절한 배신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내세워 주시는 이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 보아도 **김정일** 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모를 훌륭하게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어느덧 수령님의 뇌리에 **김정일** 동지께서 당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이룩해 오신 빛나는 업적들이 만족스럽게 떠오르신다. 20세기의 문예부흥기로 일컫는 문학예술혁명,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를 나포하고 미국놈들에게서 받아 낸 사죄문,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적지와 사적지들에 꾸려 놓은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 인민적방위체계의 수립, 온 나라 방방곡곡에 시대의 기상을 떨치며 일떠서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 그중에서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강력한 주체를 이루게 하고 주체의 위력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력사적변혁을 이룩할수 있게 한것은 **김정일** 동지의 특출한 공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자신께서 우리 인민이라는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 오신 주체위업을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 백두의 밀림처럼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여 억년 푸르려 설레이게 하시었다.

인민을 위하여 진심으로 애 쓰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지도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인민대중이 스스로 받들고 내세우기 마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그 존칭에는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존경과 사랑, 신뢰와 믿음이 집대성되어 있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시대의 민심이였다.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해 나가시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되어 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일** 동지가 계심으로 하여 양양한 우리 혁명의 전도를 믿어 의심치 않으시었다.

3

백두산!

이 나라 3천리지맥을 한품에 안고 북변에 거연히 솟아 있는 조종의 산!

기기묘묘한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듯 서술 푸르고 천변만화하는 그 모습 또한 장관이여서 세상사람들은 태고적부터 백두산을 신성한 령봉으로 일러 왔었다.

수수만년의 풍상을 이고 선 태고의 산은 한팔을 펼쳐 2천리 압록강을 이루고 또 한팔을 벌려 용용장수 두만강흐름을 만들어 그 시원을 천지호반에 잇대여 놓았다. 그리고 이 땅의 사계절을 하나하나 대산줄기를 통하여 만들었다. 봄과 여름이 이곳 산팔짜기에서 끝나고 가을과 겨울철은 여기 산봉우리에서 시작된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체현한 백두산은 금수강산 3천리기슭에 아름다운 인간세상을 꾸려 놓고 자연을 풍요하게 자래워 왔다. 또한 긴긴세월 희로애락의 교차속에서 개개 인간들의 운명과 더불어 몸부림도 쳤고 바다 건너 섬도적들에게 나라를 강탈당한 비감을 목새기지 못해 통곡의 분화구도 터뜨리였었다.

허나 백두산은 절망에 빠져 무너지지 않았다. 조종의 산은 매일같이 넓은 가슴을 펴고 이 나라의 영웅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

사시장철 흰 눈을 이고 예이제 변함없이 서있

는 백두산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의 다음 문장들을 달필로 이어 가시었다.

…1930년대 중엽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진출을 단행한것은 칠칠암야와도 같은 민족의 수난사에 눈 부신 광망을 뿌려 준 사변이었다. 후날 력사자들이 항일혁명투쟁의 전성기라고 표현한 현대조선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장거였던것이다.

군사지형학적으로 볼 때 백두산은 아군이 지키기에는 유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한 천연 요새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니 무장투쟁을 강화하는데서 백두산보다 더 적중한 기지는 없었다.

바로 이 백두산의 험준한 골짜기가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타승할수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강철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륜과 명월구, 다홍왜와 요영구, 남호두와 동강에서 제시된 리정표를 따라 노도같이 달려 온 길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으로 진출할수 있는 힘을 충분하게 키웠다.

(조국이 우리들을 부른다. 백두산이 자기의 아들딸들을 기다린다. 어서 빨리 백두산을 타고 앉아 당건설준비도 힘 있게 내밀고 조국광복희망도 통이 크게 펼치여 결정적인 반일항전으로 왜놈들을 모조리 쓸어 버리자. 하여 치욕스러운 망국사의 흐름을 끝장내고 온 겨레를 불러 일으켜 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하자!)

이것이 백두산진출을 결심하실 때 **김일성** 동지께서 심중속에 다지시였던 맹세였고 의지였었다.

그러고보면 조선혁명은 《ㄷ. ㄷ》를 무은 때로부터 장장 10년동안이나 백두산행을 준비한 셈이었다. 백두산을 타고 앉아야만 민족의 모든 력량을 결전의 마당으로 불러 낼수 있고 그 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사상은 193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투쟁이 가져다 준 총화이며 웅당한 귀결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원주필을 고누어 드신채 고산지대의 자연풍경에 눈길을 주시었다.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커다란 새의 품만한 날개인양 온통 깃털 같은 흰 구름으로 뒤덮였다. 그사이에 어찌다가 남빛을 띤 심연이 뚫렸는데 거기로부터 태양이 얼굴을 내밀고 대지를 굽어 보자 이 세상 만물은 눈 부시게 번쩍거렸다. 반쯤 열려 진 창문가로 흘러 드는 소슬바람이 어디선가 감자꽃향기를 실어 왔다.

(우리가 그때 백두산의 소백수풀을 바라고 만강부락을 떠날 때에도 지금처럼 감자꽃들이 만발한 8월말경이었지…)

그날도 만강의 하늘가엔 붉은 구름장들이 축복의 꽃보라인양 높다랗게 뿌려져 있었다.

대렬은 묵묵히 남쪽으로 흘러 갔다. 사령관으로부터 애젊은 전령병인 최금산이에 이르기까지 백두산진출이 가지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석달전에 선발대의 사명을 띠고 소백수풀에 대한 탐색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돌아 온 김주현과 리동학이 길잡이가 되어 대오를 안내하였다.

친솔부대는 만강천기슭을 따라 되골령의 울을 창창한 원시림속에 스며 들었다. 계절을 따지면 여름철이 끝나지 않은 때였으나 고산지대의 넓은 일나무들에는 어느새 누르끼레한 단풍빛이 물들고 평길은 오를수록 선기가 났다.

되골령을 넘어서자 부대는 행군길을 변경하였다. 예정했던 직선로정이 아니라 압록강연안을 에돌아 백두산에 들어 가기로 했던것이다.

《저… 어째서 질러 가지 않구 장백현쪽으루 에돌아 가나요?》

사령관동지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 오던 최금산이 걸음새를 조금 늦추어 김정숙동지와 보조를 맞추면서 묻는 말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불이 켜진 부은 어조였다.

《호호, 어서빨리 조국땅을 밟고픈 생각이 불당기듯 하는 모양이지?…》

《체… 누난 안 그래요? 몽당치마시절에 회령을 떠났다고선…》

《그래그래. 나두 한시바빠 조국땅을 밟고 싶어…》

하지만 슬피 울면서 떠나온 조국땅에 소문없이 들어 서겠니? 왜놈들이 벌벌 떨게 호통소리를 팡팡 내면서 우리 집대문을 열어 제끼자는거야.》

《나두 알아요. 국경지대 인민들도 만나구 국내 동포들에게 우리의 총소리도 들려 주자는것이지요 뭐.》

《저런! 나보담 더잘 알면서두 그러했구나.》

《하지만 야아참, 이거 조급증이 나서 건디겠어요? 어제밤 숙영때 난 백두산의 산신령할아버지를 만나는 꿈을 다 꾸었어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귀가에 흘러 드는 김정숙동지의 웃음소리에 화답하시는듯 싱긋이 웃으시었다. 이국땅에서 나서 자란 금산의 가슴속에 언제부터 저런 동심에 가까운 조국애가 움 났을가?…

고즈넉하던 압록강연안일대는 벌등지를 쭉서 놓은것처럼 삽시에 소란해 졌다. 대덕수, 소덕수, 장백현15도구… 이르는 곳마다에서 큰 규모의 전투들이 벌어 졌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으로 왔다는것을 조국인민들에게 알리는 총성이었고 적들에게는 최후통첩과도 같은 천동소리였다.

우회로정을 택하면서 세웠던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하자 이제는 백두산으로 들어 가 보급자리를 틀어야 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주현과 리동학을 앞세우고 소백수풀로 향하시었다. 부대의 기본 지휘성원들과 경위대 그리고 일부 전투중대들이 동행하였다.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장백쪽에서 좀더 소란을 피우라는 과업을 주어 떨구어 놓으셨다.

부대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락엽이 끊

임없이 떠나려 오는 소백수물줄기를 따라 깊숙이 올라 갔다.

꿀짜기는 미궁처럼 끝이 없을상 싶었다. 쉬임없이 주알주알 흘러 내리는 소백수의 여울물소리, 들크르레하고 씩쓰레한 숲향기와 송진냄새, 걸음걸음 막아서는 몇아름이 잘되는 진대나무들...

갑자기 대렬중간에서 소동이 일어 났다. 황소만큼 이나 큰 갈색곰이 나타났다. 구새먹은 진대나무안에서 낮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깨어난 모양이었다. 유사 이래 처음 보게 되는 사람의 행렬에 무척 호기심이 동하였는지 아니면 화약냄새가 어떤것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는지 슬금슬금 대렬과 얼마만큼 간격을 두고 옆으로 따라왔다.

《저것 봐, 어제 금산이가 꿈에서 본 산신령할 아버지야.》

김정숙동지께서 금산의 팔소매를 잡아 당기시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여, 뭘하구 있어? 어서 가 큰절 세번을 해야지.》

앞에서 걷고 있던 김주현이가 돌아 보며 금산을 시까슬렀다.

《헐, 내가 못할줄 알아요.》하고 금산은 꿈앞으로 뿌르르 달려 가더니 넋죽 옆드렸다. 그러자 꿈은 정중 뛰며 대렬을 앞질러서 끝안으로 냅다 달려 들어 가는것 이었다.

《에이고... 아, 산신령님! 절이나 마저 받구서 가소이다.》

피춤을 추슬르며 발까지 굴러 대는 금산의 거동에 녀대원들은 허리를 새우처럼 꼬부리었고 남대원들도 덩달아 고개를 제끼고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유쾌한 웃음소리들이 잦아 들고 대렬은 또 한 굽이를 돌아 섰다.

《히야-!》

이번엔 전 대오가 일시에 환성을 터치었다. 기이하게도 꿈이 사라진 쪽에서 목격했던 벼랑바위 봉우리가 눈앞에 불쑥 나타났던것이다. 아마 100여길은 실히 될것 같았다.

《정말 멋 있구나!》

최금산은 두팔을 활 벌리고 빙빙 돌아 갔다.

《가만... 여기가 인간세상이 옳긴 옳은가?...》

염낭에서 대통을 꺼내든 리동백이 저도모르게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낡은 거연히 솟아 신령스러운 빛을 뿌리는 봉우리에 뚝뚝 빼앗긴듯 멍청히 서서 구레나룻만 실룩거렸다.

행군대오모두는 선정속에 들어 선 기분으로 황홀해 진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마치 하늘나라 장수가 술한 천병들을 이끌고 우뚝 서서 신비로운 갑옷을 번쩍이며 누리를 호령하고 있는듯 한 봉우리의 위용에 저저마다 경탄의 목소리를 터쳤다.

개벽이래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던 당시 소백수굴은 그 뛰여 난 산천경개와 천험의 요새

다운 지세부터가 매혹적이였다...

원고지를 여백없이 메우고 다음장으로 옮겨 지던 달필이 문득 멈추어 졌다. 리석범이 전화를 걸어 온 것이다.

김일성 동지께서 송수화기를 드시자 몹시 흥분된 그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수령님, 방금 구호문헌을 허... 현출하였습니

다.》
《그렇소?! 고생들이 막신했겠구만... 이제는 하루 오래되어 현출해 내기가 무척 어려웠을거요. 그래 글발들은 제대로 나타났는가?》

《어머님께서... 김정숙어머님께서 친히 써놓으신 구호가 지금 막 살아 나...》

별안간 도중에서 음성이 탁 갈리더니 북받치는 걱정을 참아 내기 어려워 하는 숨소리만 흐느끼듯 진동판을 두드린다. 그것은 수령님의 흥벽에도 둔중한 충격으로 부딪치었다.

《이보라구 석범이! 진정하라구.》

그이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전류를 타고 흘러 갔다.

리석범은 자기를 가다듬고 구호문헌을 획 하나 틀릴세라 정중히 불러 드린다.

《백두산에 장수벌 폈다. 백두산장수벌 삼천리를 비친다.》

아득한 시절의 메아리였다.

어느결에 **김일성** 동지께서는 50년전의 그 유서 깊은 꿀짜기로 추억의 노를 또다시 저어 가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을 타고 앉은 다음날 아침 소백수굴에는 첫 서리가 내렸었다.

사령부천막에서는 지휘성원들이 일찍부터 모여 앉아 진지한 토론들을 하였다. 소백수굴을 중심으로 백두산지구의 여러곳에 위성밀영을 꾸릴 당면과업과 당조직은 물론 조국광복희망을 국내의 광범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 백두산을 기지로 하여 진행할 본격적인 대부대선회작전 등등...

회의를 끝 마치고 모두들 김주현이네 선발대가 내정한 건물위치들을 돌아 보려 밖을 나서니 어느 사이에 김정숙동지께서 나무마다 구호를 써놓고 계셨다. 최금산이 단도로 여기저기 맞춤한 나무들에 꺾질을 적당하게 벗기면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특이한 서체로 붓글을 써내려 가시는것이였다.

정치위원인 김산호가 결으로 다가서서 구호를 소리내어 읽고는 회열에 넘쳐 돌아 섰다.

《사령관동지! 금방 채택된 회의결정을 정속동문 벌써 관철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도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응수하셨다.

《그렇소. 백두산의 새 주인들을 대표하여 세상에 성명문을 발표한셈이지.》

삼시에 홍시얼굴이 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붓을 왼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시고 어쩔줄 모르시였다.

《아이참! 제가 어떻게 감히...》
 이번엔 김주현이 한술 더 떴다.
 《가만, 리동백아바이가 어딜 갔냐? 이 사변적인 거사를 제각 기록하지 않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대답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습니다. 아무렴 이 <대통령감>이 후세에 두 길이 전해 갈 글밭들을 먼 산 보듯 할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네 천막에서 먹을 갈아 가지고 서둘러 나오는 길이었다.
 호탕한 웃음소리들이 골짜기를 흔들며 오래도록 메아리쳐 갔다.

4

김정숙동지의 필적인 구호문헌을 찾아 내고 리석범이 그토록 격정을 금치 못한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던 때 김정숙동지께서 사령관동지의 단독임무를 받고 장백현에 공작을 나가신적이 있었다. 그해 겨울의 강추위는 참으로 지독하였었다.
 공작임무를 마친 김정숙동지께서는 돌아 오시던 로상에서 난데없이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인적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자지러지게 울리는 그 소리에 한순간 귀를 의심하시던 그이께서는 부리나케 길옆의 수수짚무지를 헤치시었다.
 아, 그런데 하늘아래 이런 번고도 있단 말인가. 애기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낳은지 몇달밖에 안되는 사내애가 엄마의 젖가슴을 허비며 애처롭게 울어대고 있었다.
 녀인의 손에 꼭 쥐여 진 언 시래기, 녀마 같은 포단, 바람에 나뭇기는 썩진 치마자락, 아래도리를 채 못가리운 아이의 찌꺼바지, 해진 짚신감발에 걸려 있는 애어머니의 상처투성이 발가락들... 무슨 원한을 품고 숨졌는지 동포녀인은 눈도 못 감고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도 억이 막히고 철통하여 땅을 치셨다. 그러나 오열을 터뜨리실 겨를도 없었다. 아이의 실오리 같은 생명도 끊어 저 가고 있었던것이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이름 모를 녀인의 눈을 가까스로 감겨 주시고 걸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안으신 그이의 랑볼로는 피보다 진한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후날 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리며 자신께서 어떻게 덕수골에 있는 조국광복회 특수회원네 집까지 가내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눈을 뜨고보니 두 랑주가 미음그릇과 손가락을 그이의 머리맡에 놓은채 울며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었다.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음을 벌떡 일으키셨

다. 혼미한 속에서도 안고 오신 아이가 떠오른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애기는 옆자리에서 쉼근쉼근 잠자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다시 의식을 잃으시었다. 걸옷도 없이 강추위속으로 수십리를 달리다니니 축한이 끝수까지 파고 들었던것이다.
 리동무(조국광복회 특수회원)네 내외는 꼴물도 타주고 록두지침도 지저 주고 닭을 잡아서 곰도 해 주면서 극진히 간호하였다. 그런 지성이 아니었다면 자신께서 살아 다시금 백두산근거지로 돌아 오지 못하였을것이라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여러번 외우시었다.
 그 아이를 석범이라고 호적에 등록시킨 리동무는 백두산밀영에도 드문히 찾아 왔었다. 비밀임무를 맡고 있던 그는 누구도 몰래 사령관동지를 만나뵙곤 하였다. 김정숙동지께도 어김없이 들리어 석범이가 탈없이 잘 자란다고 알려 주었다.
 석범은 해방후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식을 며칠 앞두고 리동무의 손에 이끌리어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앞에 나타났다. 열살치고는 퍼그나 숙성한 편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오래도록 부둥켜 안으시고 놓을줄 모르시었다. 정말 기이한 인연이였다....
 어느덧 해는 서쪽의 수림우로 기울어 졌다.
 잔잔한 물결하나 일렁이지 않는 고요한 시내가에는 나무그림자들이 우중충 길다랗게 드리워 져고 저 멀리 동쪽에 들쭉날쭉 툽날같이 솟아 있는 산봉우리들은 석양을 받아 채색옷을 울긋불긋 걸치였다. 그 우의 하늘가를 땡기처럼 장식한 우유빛구름장들도 점차 선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시내를 건너 이웃해 있는 골안의 답사숙영소에서는 때 이르게 저녁오락회가 열렸는지 노래와 함께 즐거운 웃음소리들이 울려 왔다.
 팔결이결상등반이에 몸을 기대시고 귀를 기울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현듯 소백수골의 탐사발굴대원들이 걱정되시었다. 아침부터 기재를 들고 그 험한 골짜기를 오르고 내리며 하였으니 피곤인들 오죽하겠는가.
 두시간전에 석범이로부터 밀영지의 집터자리를 찾아 보겠다는 연락이 왔었다. 그래서 김정숙동지가 써놓은 구호나무에서 200보쯤 동북쪽으로 가면 사령부귀틀집자리가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조금 지나서 전혀 뜻밖의 정황이 보고되었다.
 그이께서 지적해 주신 좌표에는 이외에도 나지막한 등성이가 솟아 있다는것이다.
 이럴수가 있는가?
 분명 기억하고 계시건대 사령부귀틀집자리는 등성이가 아니였었다. 그 주변은 넓지는 않았지만 잡관목이 듽성듬성한 공지였다. 한옆에는 소백수로 흘러 드는 골개물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변화무쌍한 백두산의 기후풍토가 그런 엄청난 지각변동

을 가져다 주었는가?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 등성이의 흙을 파내어 감정해 보라고 이르시었다. 어떤 판단이 불쑥 떠오른 것이다. 아나나다를가 감정결과는 탕수와 사태로 인하여 오래전에 생겨 난 퇴적물이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다섯번이나 뒤번져 졌으니 무슨 조화가 없었으랴!

그이께서는 소백수풀이 본래의 백두산밀영지 모습을 갖추자면 품을 어지간히 들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었다. 탐사발굴대의 범위를 벗어 나서 강력한 발굴복구집단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이다. 그래서 석범이더러 일단 작업을 중지하고 철수할 준비를 갖추라고 이르셨지만 그쪽에서는 아예 자리를 틀고 있을 잡도리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팔걸이결상등받이에서 몸을 떼시고 무선전화기로 소백수풀을 다시 찾으셨다. 인차 석범이 응답하여 나왔다.

《수령님, 구호나무는 몇그루 더 찾았는데 밀영지의 귀틀집 자리만은 아직 하나도...》

《허허, 첫술에 배 부르겠소. 구호나무를 찾아낸 것만도 대성공이요.》

《어디에선가 불쑥 나타날 것 같으면서도... 꼭 어릴 때 술래잡기하듯 애간장만 태웁니다.》

《너무 조급해 말라구. 백두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소백수풀두 다르게 될 수가 없지.

이럴 땐 허리띠를 늦구어 놓구 마음을 여유작작하게 가져야 하오.

오늘은 그만하고 어서 대원들 휴식이나 폭 시키라구. 참, 숙영준비는 다 됐소?》

《예. 수령님께서 일일이 넘려해 주신 덕분에 축전등까지 켜 천막안에서 호의호식하게 됐습니다.》

《밤이면 그 끝안이 차질거요. 그래서 내 모포를 더 보내라구 일렸소.》

《고맙습니다. 저희들 걱정은 마시구 변덕 심한 고산지대의 날씨에 옥체를 주의하십시오.》

《내게야 백두산의 날씨가 체질에 맞지. 하하...》

그이께서는 호위군관을 바꾸라고 이르시고는 필요한 지시를 주신 다음 송수화기를 내려 놓으시었다.

어느새 창문으로는 저녁어스름이 비껴 들기 시작했다. 하늘가의 띠구름들에도 노을빛이 점차 사그라들고 선들바람이 답사숙영소쪽에서 흥겨운 노래가락을 실어 왔다. 오락회가 절정에 이른 모양이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탁상등을 켜시고 회고록의 다음문장을 이으셨다.

《...백두산은 나의 청춘시절의 <집>이었다. 어린 시절의 고향집식솔에 비할수 없는 많은 식솔들이 나와 함께 거기서 지내며 백두산의 눈비를 맞았고 오늘의 조국을 꿈 꾸었다.

백두산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전날의 백두산개척자들 가운데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후세들에게 백두의 갈피갈피에 차넘치는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선열들의 투쟁업적을 소개하고 전해 주어야 할 선대로서의 사명을 제때에 옹바로 수행할수 없게 하였다.

나도 백두산밀영을 제때에 찾아 주지 못하였다.

전당, 건국, 건군사업과 전쟁, 복구건설 등 하도 많은 일감을 짊어 지고 있다보니 쏠어서는 백두산시절의 본거지로 와불 짬을 내지 못하였다.》

부지중 수령님의 눈앞에 평양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박영순의 병색 질은 모습이 가슴벽을 아프게 후비면서 떠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백두산밀영을 찾으려고 누구보다도 애 타게 뛰어 다녔고 마음고생 또한 많았던 사람이다. 언젠가 림춘추한테서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회상실기를 쓴 필자가 옳긴 옳은가고 책망 비슷한 말을 듣고서 아예 보따리를 싸취고 백두산에 들어 가버렸었다. 공식석상에서 한 비판도 아니고 허물 없는 사이에 룡담 삼아 한마디 한것을 그는 심중하게 받아 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포수출신이며 그전날 유격대의 날파람 있던 목수도 자기 손길이 미치었던 곰의굴이나 지양개, 횡산의 밀영자리들과 청봉, 배개봉, 무포 같은 숙영지자리는 찾아 내면서도 백두산밀영자리는 끝내 찾아 내지 못하였다. 박영순이 헛탕을 활적마다 매번 한스럽게 외우는대로 그는 백두산밀영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다.

이즈음에는 석범이도 미처 따라 서기 힘들 정도로 극성스레 백두산발을 댔다고 한다. 그러니 강쇠인들 견디어 내겠는가. 한창시절도 아닌 그 몸이...

(병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는가?)

고질적인 심장병인데다 로독까지 겹치여 증세가 심상치 않은 전우를 만나보시고 떨어 지지 않는 발걸음을 하여서인지 불안감만 더럭 커지신다.

그에게 백두산밀영자리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 어떻게 될가? 꿈 같은 희소식이 천하의 명약보다도 나올수 있지 않겠는가.

김일성 동지께서는 정부교환을 통하여 먼저 병원 원장을 찾으시었다. 박영순의 병세를 알아 보니 평양을 떠나실 때 그이께서 조치하신대로 의료를 재 편성하고 강력한 치료전투를 벌렸다고 한다. 결과 요즘에는 아침과 저녁시간에 약간의 산보길도 걷는다는 것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무등 기쁘시여 송수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 쥐시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전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셨다.

환자의 몸이 그 정도로 호전되었으면 전화상으로 몇마디 나누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좀 바꿔 달라고 하셨다. 잠시후 귀에 익은 목소리가 수화구에서 울려 나왔다.

《박영순이 전화를 받습니다. 수령님, 그새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헤여진지 보름도 못되는데 마치도 10년만에 다시 만난것처럼 반가움에 겨워 어쩔줄을 모른다.

《허 이런, 동무처지에서 오히려 내 건강을 묻는 구만... 백두산바람을 쏘이니 난 젊은이들처럼 혈기가 왕성해 졌소.

그래 가슴이 쿵쿵 쑤시던것이랑 좀 차도가 있소?》

《예. 이젠 아무런 동통도 없습니다.》

《웬걸 그렇게소. 아직 이따금씩 쑤시구 숨쉬기가 힘들겠지.》

《아, 아닙니다. 제 금방 저녁산보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치료 삼아 약간씩 산보하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도가 있다고 해서 무리하거나 조급하게 병원을 뛰쳐 나올 생각은 아예 마시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박영순에게 병치료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를 다심하게 이르시고는 화제를 돌리시였다.

《실은 병문안겸 기쁜 소식을 알려 주자구 전화를 걸었소. 동무가 그렇게도 애 타게 찾고 찾던 백두산밀영지가 오늘 발견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석범이네가 그곳에서 구호나무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고 현재의 실태, 자신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복구대책까지 일일이 알려 주시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령님께서 몸소...》

목이 꺾 메이는지 박영순은 뒤말을 잇지 못한다. 흐느낌같은 소리가 도간도간 끊기며 들려 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동무가 애면글면 하면서 절은 발걸음의 연장이라구 봐야 옳은것 같소.

소백수굴이란 지명두 내가 어저께야 비로소 붙인것ियो. 썩 이전부터 그 골안을 소백수굴이라 불렀더라면 동무가 그렇게도 고생하지 않았을것인데...》

《아닙니다. 백두산물을 먹으며 싸운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하였습니다.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 드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눈을 편편히 뜨고 있으면서두... 정말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지 마오. 박동물 바릇해서 지금 살아 있는 우리 동무들중에 그 시절 백두산밀영에 있어 본 사람이 누구요?》

《...》

《다른 생각 말구 몸조리나 잘해야겠소. 이제 완치되면 나하구 같이 소백수굴에 가지요. 밀영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자면 아무래도 빨찌산시절의 도목수였던 동무의 감독이 꼭 필요하단 말이요.》

박영순은 너무도 좋아 어린애마냥 환성을 내질렀다. 복원이 시작되면 자기를 불러 주실것을 몇 번씩이나 간청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와의 대화를 끝마치시자 이번에는 혁명사적지건설총국장을 찾으시였다.

소빨은 단김에 빼렸다고 소백수굴에 전개될 발굴복구력량과 건설규모, 그외의 모든 문제들을 아예 아퀴 지으실 작정이였다. 전화기들은 온밤 쉴 사이가 없었다.

며칠후 석범이네는 뜻밖에도 소백수굴을 몸소 찾아 오신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5

백두밀영의 옛 사령부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병실, 재봉소자리의 위치들을 고증확인하는데 펍 오랜 시간이 흘러 갔다. 어떤 곳에는 나무씨가 뿌리를 내려 사람이 빠져 나가기 힘들 정도로 거목림을 이루고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소백수건너에 있는 비서처자리까지 위치확인을 해주시고서야 다시 돌아 서시였다.

《여기에 앉아 좀 숨을 돌리자구.》

그이께서는 물소리 유정하게 울리는 소백수가에 먼저 앉으시며 석범이에게 자리를 권하셨다.

쭙쭙한 이깔숲사이로 아득하게 뚫려 진 하늘에는 포도송이 같은 흰 구름이 두둥실 떠돌고 있다. 한줄기 서늘러운 바람이 소백수를 휘젓고 불어와서는 수령님의 이마에 드리워 진 흰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리석범은 수첩에 그이께서 가르쳐 주신 건물자리의 좌표들을 꼼꼼히 다시 확인하며 적어 놓았다. 그리고나서 한동안 갑자르다가 주저주저 입을 열었다.

《저... 한가지 문의해두 좋겠습니까?》

벗어드신 모자로 슬슬 부채질을 하시던 수령님께서 말씀없이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어째서 이 골안이 오늘까지 자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구 있었는지... 언제부터 그 리면사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력사일군으로서 그가 박영순을 따라 다니며 줄곧 품고있던 의문을 비로소 터쳐 놓은것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미전에 그 물음을 예견하신듯 빙그레 웃으시였다. 하지만 대답을 서두르지 않으셨다. 바지에 달라붙은 풀씨들을 마저 뜯어 내고 나시여서야 회억 짙은 눈길을 들어 골안밖을 휘돌러 보신다.

《이 골짜기는 항일전쟁때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의 심장부였소. 당시에는 주소와 번지조차 없는 여기를 우리들은 <백두산1호밀영>이라고 불렀었지...》

최대한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1호밀영에는 사령부직속부서성원들과 경위대를 포함한 일부 골간부대만 있게 하고 출입도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도 백두산에 계시는 때 상시적으로 같이 지내지 않는 부대와 개별적인 사람들이

찾아 오면 소백수풀이 아니라 2호밀영(사자봉밀영)에서 만나시군 하였다.

사령부로 드나드는 통신원들도 흔적을 내지 않으려고 리명수쪽에서 올라 오다가 끝짜기입구에서부터 소백수물줄기를 따라 드나들었다.

《... 이 백두산밀영지가 수십년세월 자기의 존재를 고이 숨겨 온것은 동무네두 와서 본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금성탕지인데다 그전날의 거주자들이 비밀을 철저하게 지켰기때문ियो.》

그이께서는 이끼가 낀 조약돌들을 사랑살랑 어루만지며 흐르는 소백수를 이윽도록 들여다 보시었다. 정가로운 그 물결속에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의 모습이 하나둘 그리움을 키질하며 떠오른다.

적들에게 체포되자 사령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허를 끊어 버린 마동희, 두눈을 빼앗기고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치며 원수들을 전률케 한 최희숙, 단두대에 올라 선 그 순간에도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던 권영벽과 리제순, 적의 밀정놈을 눈앞에 두고서도 밀영이 로출될가 보아 총소리를 못내고 어린 육탄으로 사령부를 보위한 최금산...

《다들 이 끝안의 비밀을 고이 품속에 안구 먼저를 가버렸소. 앞길이 구만리 같던 사람들이 글썽...》

김일성 동지께서는 목이 갈리어 말씀을 더 잊지 못하였다. 불현듯 김주현의 서글서글한 눈매가 짜릿한 환각속에 마주쳐 왔다.

《사령관동지, 절 부르셨습니까?》

힘든 일거리가 생길적마다 맨먼저 찾게 되는 사람, 백두산근거지에서 김주현이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이러했었다.

그가 백두산지구에 선발대를 이끌고 나와 이룩하여 놓은 공적은 웅당 대서특필로 후세에 자랑할만 한것이였다. 소백수풀, 곰산, 사자봉, 선오산...

한마디로 백두산지구의 밀영후보지들은 모두 김주현네 선발대가 개척해 놓은것이다.

어디 그뿐이라! 그는 백두산일대를 종횡무진하면서 혁명의 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였고 혁명군의 후비원천도 적지 않게 육성해 놓았었다.

백두산근거지창설의 제일공로자이며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인 김주현련대장, 빨찌산의 남아라 불리우던 그는 혁명의 사령부를 노린 왜놈《토벌대》와의 조우전을 지휘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청천벽력 같은 그 비보에 접한 사령관동지의 심중이 과연 어떠했으랴...

김주현의 연락병은 그이앞으로 훌쩍해 진 배낭을 가져 왔다. 련대장이 남긴 유물이였다. 후돌후돌 떨리는 손으로 아구리를 헤쳐 보시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예비신발조차 없었다.

《어째서 예비신발이 없소?》하고 물으시자 전령병은 그만 황소영각소리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후에야 그는 흑흑 느끼며 더듬더듬 말씀 올렸다.

《어제... 3중대의 바... 박동무에게 주었습니다.》

그 박동무는 남보다 곱절이나 신발을 빨리 꿰뜨리는 대원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빈 배낭을 와락 부들켜 안으셨다. 건잡을새없이 쏟아 지는 눈물폭포가 빈 배낭을 삼시에 줄뱉하니 적셔 버렸다.

김주현이 무장투쟁의 초창기부터 구해 들인 군수물자를 전부 쌓아 놓으면 아마 백두산의 한개 봉우리를 이룰것이였다. 신발만 해도 수만켤레를 헤아렸다. 그런 사람이 자기 배낭에 있던 예비신발 한켤레마저 대원에게 주고 저세상으로 야속하게 가버린것이다...

《음-》

목은 상처를 건드리는 회억속에서 간신히 헤어나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어 내신다. 일진돌풍이 우수수 천고밀림을 흔들었다.

《동무는 당력사를 연구하는 일군이니 잘 알겠구만... 아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결을 때 이르게 떠나들 갔소?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두 가슴속이 터져 와 못 견디겠단 말이요.》

석범의 앞에 서 있던 나무들이 온통 물우에 떠 있는것처럼 기우뚱거리였다. 이를테없이 비통한 마음을 안고 그렇그렇 솟구치는 눈물때문이었다. 량볼을 화락 적시면서 흘러 내린 눈물은 어깨를 떨적마다 후득후득 무릎에 떨어 지면서 진한 무늬를 그려놓고 있었다. 그 뜨거운 눈물방울들이 정안수로 되어 세월의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신 우리 수령님의 아픈 상실감을 다소나마 가서 드린다면 얼마나 좋으랴!

동안을 두고 또다시 찾아 온 숙연한 정적은 렬사들의 고귀한 령혼들을 깨울세라 바람 한점조차 불허하는듯 싶다.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둔 소백수의 정갈한 흐름만이 하많은 사연을 속삭여 주듯 쉽없이 주알거리고 있었다.

문득 석범은 어느 책에서 본 오래적 문필가의 글이 생각났다. 가문에는 혈통이라는것이 있듯이 사회에는 전통이 있고 민족에게는 력사가 있어 여기에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녀이 살아서 숨 신다는것이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 혁명의 력사는 참된 인간들의 사랑과 의리로 수 놓아 진 동지애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그 로정들에는 피로 엮여 진 현대조선민족의 인간서사시가 자욱자욱 아로 새겨 있다. 그렇다면 이 불멸의 인간서사시는 우리 후세들이 대를 이어 전해가며 따라 배울 인생의 교과서가 아니겠는가!

석범은 가슴벽을 치고 고막을 울려 주는 심장의 세찬 박동소리를 들었다. 한없는 경모감이 온몸에 끓어 올랐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그 인간

서사시의 빛나는 주인공은 인간중의 대성인이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부지중 어렸을 때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 그에게 학용품을 듬뿍 안겨 주시며 하시던 당부가 사무치게 뇌리를 친다.

《...무엇보다도 **김일성**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열심히 공부하여라. 백두산골짜기들에 숨배인 장군님의 피어린 자욱자욱은 너와 나 우리모두의 영원한 교과서란다.》

아, 김정숙어머님!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을 다지시고 조선의 광휘로운 미래를 안아 올리신 백두의 너장군께서 하신 그 당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모두가 과연 어머님의 금언을 심장깊이 새기고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 왔던가? 하다면 어찌하여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수령님께서 교령의 몸으로 밀림속을 몸소 누비며 길 아닌 길을 걸으시게 한단 말인가?

리석범은 마른 풀대를 허둥허둥 쥐여 뜯으며 머리를 푹 떨구었다.

갑자기 웃컨 수림속에서 여럿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이어 탐사발굴대원 한사람이 구울듯 이쪽으로 내려 온다.

《무슨 일이에요?》

수령님께서 몸을 일으키며 물으시였다.

《저, 집터자리가... 온돌장이 나졌습니다.》

순간 석범의 귀벽이 쩡- 하고 울리였다. 거기는 아까 수령님께서 류다른 관심속에 방위관정을 여러번 반복하시며 정해 주신 자리였다. 별로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어 돌레를 주의 깊게 살펴보니 고산지대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한 꽃송이들이 여기저기 다문다문 피어 있었고 새들도 유난스레 지저귀였다. 지세부터 범상한 곳이 아니어서 그는 대원들에게 즉시 발굴작업을 시켰었다.

《음... 온돌장이 나타났단 말이지? 석범동무, 어서 가보지요.》

수령님께서서는 앞장에서 경사진 숲을 헤치신다.

석범의 가슴은 반사적으로 세차게 울렁거렸다. 어떤 사변적인 순간이 바야흐로 도래하였음을 직감했던것이다.

상서로운 기운이 떠돌고 있는 집터자리가 먼발치에서도 확연하게 알렸다. 가까이 다가들어 보니 전형적인 조선식구들굴을 이룬 집자리는 불과 얼마 안되는 길이에 묻혀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동안 집터돌레를 묵묵히 거니시였다. 가지가지 상념이 가슴 뿌듯하게 떠오르신다. 온돌장을 덮고 있던 구름나무노전, 방한가운데 놓여 있던 앓은뱅이책상, 귀틀벽쪽에 자리 잡은 께짝우에는 낡은 군용모포와 쪽무이 포단이 개여져 있었다. 그밖에도 벽에 걸려 있던 배낭, 노루발쪽손잡이가 달린 출입문... 어느덧 동기와를 엮은 소박한 귀틀집의 모양새가 눈앞에 뚜렷하게 떠오르시였다.

밀림속에 산막처럼 호젓이 들어 앉은 그 수수

한 귀틀집의 통나무굴쪽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연기를 몽글몽글 뿜어 올렸고 하나밖에 없는 피창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이 자그마한 피창이 후날 백두산의 아들로 시대를 진감시키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둘러 보신 피창이였다.

1942년 2월 16일, 백두산에서 태양의 위업을 계승할 광명성이 솟았다는 희소식은 날개가 돋쳐 항일의 각 전구으로 퍼져 갔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먼곳의 가렬한 전장에서 이 소식을 들으셨으나 자리를 뜰수 없으시였다. 파괴된 지하조직망을 복구해 주시고 소부대를 피멸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다음에야 정든 소백수굴을 찾으셨다.

마당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어리신 **김정일** 동지를 받들어 안고 마중 나와 계시였다.

술하의 혈육을 처음으로 안아 보시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끓어 오르는 기쁨과 함께 형언할수 없는 감개에 잠기셨다. 백두광명성탄생을 빨찌산의경사로 맞이하고 민족의 태동운으로 감수한 전우들의 마음을 심장 뜨겁게 느끼셨던것이다.

김정일 동지의 유년시절은 군복을 입은 투사들속에서 흘러 갔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시여 포연에 절은 부모님의 군복을 줄여 입으시고 군대바를 드시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하신 그의 인생자욱은 첫 시작부터 남 다른것이였다...

《수령님!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리석범이 벽차오르는 흥분으로 가슴 들먹이며 수령님곁에 다가섰다.

그제서야 상념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 오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탐사발굴대모두에게 뜻깊은 눈길을 보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다. 만시름이 걸린 태양의 미소였다.

×

그날부터 달들이 지나가고 해가 바뀌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백두산밀영이 완전히 복원되였다는 리석범의 보고를 받으시고 서둘러 소백수굴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모든것이 예전모습 그대로이다.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사령부, 이제라도 령이 내리면 문을 박차고 원썩격멸예로 뛰쳐 나올것 같은 대원들의 병실, 재봉소에서는 군복을 지으면서 부르는 너대원들의 《사향가》 소리가 은은히 울려 나오는듯싶다. 그런가 하면 비서처의 리동백이 금방 등사해낸 《3.1월간》의 초교지를 들고 자신계로 웃으며 다가오는듯 한 환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셨다.

깊은 감회속에 위병소까지 돌아 보시느라 그이께서는 어느새 해가 저무는것도 가늠하지 못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금 **김정일** 동지의 생가뜨락을 거니시며 립춘추와 박영순이 생의 마감에 올린 절절한 청원을 뜨겁게 되새기고 계셨다.

김정일 동지의 고향집으로 들어 서는 입구에 옥돌을 다듬어 크게 문주를 해세우자는 것이었다. 방금 석범이도 전체 건설자들의 한결 같은 소망을 담아 투사들과 꼭 같은 청원을 드렸었다.

그이께서는 신중한 안색으로 고개를 저으시었다. 한없이 겸허하신 **김정일** 동지께서 그것만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특전도 바라시지 않는 인민의 지도자이시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사들과 전체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무엇으로 실현시켜 줄 것인가?

김일성 동지의 사색 깊은 눈길이 노을 비낀 장수봉 마루에 머무르자 번쩍 섬광을 일으키었다. 금시에 그이의 안색이 환해 지었다.

조선의 영광, 민족의 긍지, 행성의 미래, 인류의 념원... 백두의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승엄히 솟아 빛나는 저 신령스러운 봉우리가 이 세상 모든 소망들을 다 안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수행일꾼들에게 봉우리를 가리키셨다.

《동무들, 우리 저 봉우리를 이제부터 정일봉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소?》

순간 우렁찬 환호성이 소백수풀을 흔들었다.

《만세!...》

하늘에는 언제 날아 왔었는지 보라매 두마리가 원무를 펼치려 듯 빙빙 감돌고 있었다.

리석범은 뜨거운 눈물속에 백두령봉에서 붉게 타오르는 저녁노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붉은 기폭과도 같이 찬연한 빛을 휘뿌리며 온 누리에 펼쳐 지고 있었다. 래일의 참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백두성산의 붉은 노을 이었다.

세계성구속담

포부와 희망

굴자는 돌우에 새기고 포부는 가슴속에 품으라.
(중국)

높은 산에 오르려는 사람만이 산우로 통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아프가니스탄)

산이 높다 한들 사람의 희망보다 높으랴.(인도네시아)

희망없이 사는 자 기쁨을 모른다.(로씨야)

희망은 눈 뜨고 있는 사람의 꿈이다.(그리스)

원대한 포부와 강의한 의지는 사업에서 두 날개와 같다.(도이칠란드)

새 세기의 첫 태양절에

펼쳐 진 신기한 자연현상

△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만경대

아침 6시 5분경부터 동쪽하늘에 노을이 피어나더니 10분경에 해가 솟아 오르기 시작하여 14분경에 태양의 모습이 완연해 졌다.

태양이 솟아 오를 때는 보통 붉은빛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날 아침 태양이 솟아 오를 때는 황금빛이었으며 태양주위가 황금빛으로 물든 가운데 해살이 찬연히 빛났다.

이 시각에 만경대고향집근방의 기온은 4.8℃로써 매우 높았고 바람은 평상대로 되었으며 4월의 보기 드문 안개보다 더 약한 물방울이 떠도는 경무현상이 나타났다. 전날까지만 하여도 초당 4~5m 로 불던 바람이 태양절아침에 한점도 없이 잠잠해 지고 낮 최고기온이 22.3℃로써 평년보다 5.7℃나 올라 가 만경대는 일찌기 보기 드문 맑고 청신한 봄날씨로 되었다.

따라서 력사의 고향집 주변과 만경봉일대에는 진달래꽃과 개나리꽃, 살구꽃을 비롯한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하여 화창한 태양절의 만경대를 세상에 자랑하였다.

△ 백두산밀영의 설경

태양절 전날 18시 35분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새날의 3시 15분경에 멎었다.

밤새 내리여 쌓인 눈의 높이는 57cm 였다.

뜻 깊은 태양절날 아침 해 뜨는 시각의 온도도 다른 날에 비해 높았고 바람도 잠잠하여 매우 온화한 날씨였다.

날씨가 춥지 않고 바람도 없으니 간밤에 내린 눈이 나무가지에 그대로 앉아 있어 력사의 고향집 주변과 소백수풀이 온통 장쾌한 설경을 이루었다.

이 일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백두산 밀영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눈높이였다.

밀영에서 주체89(2000)년 10월 17일에 첫눈이 날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주체90(2001)년 4월 15일 새벽까지 내린 눈높이를 합하면 신비롭게도 415cm 가 되었다. 우연한 일치라고 볼수 없는 현상이었다.

백두산밀영에 415cm의 눈이 쌓이고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 진것이야말로 새 세기의 첫 태양절을 기념하는 최대의 풍치였다.

이런 신기한 자연현상을 통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하늘이 낸 절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우리모두가 가슴속깊이 간직하게 된다.

위인과 성지

김기철

하나의 신앙심이 지구를 감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에 대한 인류의 숭배심이
시대의 조류되어 행성을 휩싸고 있다.
우리는 잠시 인류사를 뒤돌아 본다.
원시인들의 노동가요가 울리던 석기시대가 지
나고 계급사회가 시작되면서 국가가 출현했다.
예로부터 나라는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
지만 긴긴 세월 인민대중은 고역속에 시달려 온
존재였다. 봉기와 폭동으로 항거의 물결은 이어
져 왔으나 인간이 운명의 주인된 리상사회의 아
름다운 기슭은 적서 보지 못했다.
고대의 소박한 철학으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
지 범람한 사상의 어느 한 조류도 인민대중의 념
원을 속망의 기슭에 실어다 줄수 없었다.
애절한 바람과 모태김속에서 인간은 운명의 길
을 밝혀 줄 그런 위인들의 출현을 갈망해 왔다.
력사에는 《암야의 등불》을 나름대로 켜든 《성
인》들이 있었다.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도 희분한 《등불》을 켜
들고 인간의 운명과 행복에 대하여 밝히려 하였
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한것은 《래세의 행복》뿐.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하고 손바닥이 닳
도록 빌고 빌었어도 지상에서의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했다.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
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공산주의학설이 출현하
였다. 하건만 제한된 그 사상우에 터를 잡은 제
도는 오늘에 와서 물 먹은 흙담처럼 되는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인류의 진도를 놓고 우려와 불안이 엄습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와 불안은 공연한것이였다.
세기를 두고 덧쌓인 속망의 언덕우에 희망의
해돋이가 솟아 올라 찬연한 지점이 있었으니 세
계의 시선은 평양에 모아 졌다.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동지! 인민의 념원 비
긴 태양의 존함.
그이께서 이 땅에 지퍼 올리신 주체의 불길은
력사의 준엄한 광풍속에서도 더욱 세차게 활활
타오르며 우주를 밝히고 있거늘.
수수천년 인류가 꿈속에서만 그려 보며 마음의
의지로 삼았던 《무릉도원》, 《하늘나라》가 바
로 여기 동방조선에서 빛을 뿌리고 있다.
그 빛의 시작점, 광원지는 바로 평양이였다.
《유사이래 어느 신도 줄수 없었던 은총을 베푸
신 **김일성** 주석님은 인류의 대성인이시고 그이에
대한 숭배심은 현세의 신앙심》이라고 한 성직자

의 말이 심금을 울려 준다.
뜻 깊은 태양절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기념하는
우리는 행성을 휩싸안는 하나의 마음을 뜨겁게
느끼면서 만민이 터뜨리는 칭송의 목소리에 합쳐
성지 평양을 노래한다.

1

성지는 성인들이 나서 자란 곳이며 성업을 이
룬 거룩한 자취가 력연한 땅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의 력사자료를 되새겨 보게
된다.
1천여년전에 우리 나라를 통일한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손들에게 《아침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
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기를 바란다》면서 10개
조항의 《훈계》를 유언으로 남기었는데 그 가운
데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서경(평양)은 수덕이 순조로와 우리 나라 지백
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시절의 중간달에 국왕은 거기
에 가서 백일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것이다.》 그러면서 훈계끝에 《중심
장지-(마음속에 간직하라)》라는 네글자를 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해 가면서 보배로 여기게 했
다.
평양의 상서로운 지운을 예감한듯 한 왕건의
이 말은 오늘의 우리 가슴속에 얼마나 의미심장
하게 파고 드는것인가.
5천여년전 단군이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 고
조선을 세우면서 수도로 삼은 곳이 평양이며 그
후에도 력대 나라들의 수도, 부수도, 문화중심지
로 되어 온 도읍지였다.
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나 평양은 이처럼 범상치
않은 땅이였다. 하지만 력사가 유구하다고 그곳
이 곧 성지로 되는것은 아니다.
지도를 펼치면 광활한 면적을 가진 여러 대륙
들에서 인류문화의 발상지로 자랑하는 지명들을
찾을수 있다.
적지 않은 지점들이 오늘날에는 사멸되어 가는
잔해속에서 고고학자들과 관광객들의 범속한 자
취만을 남기고 있을뿐이다.
홍망성쇠로 잇닿은 평양의 행로에도 고달픔이
더 많았다.
인디아의 이름난 문호였던 타고르, 식민지노예
의 사슬이 휘감긴 이 땅을 보면서도 《아시아의
황금시절에 등불로 빛나던 조선,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읊은

그의 시구에서 우리는 시인의 경감을 초월한 예언을 가늠해 본다.

천기지운이 서린 평양이 《그 등불 다시 켜들고》 성지로서의 위치를 력사무대에 밝힌것은 만경대가문의 출현으로부터였다.

조종의 산 백두산의 거센 줄기로 련련히 뻗어 내린 이 나라 지맥의 근본은 평양이였고 평양의 근본은 만경대였다.

만경대가문의 출현, 그것은 20세기에 평양이 한나라의 지경을 넘어 인류적인 성지로 빛을 뿌리게 한 초석으로 되였다.

우리는 91년전 봄 평양지방에 펼쳐 졌던 신비한 기상도를 적는다.

련일 계속되는 비, 대지를 진감하는 천둥소리, 어둠을 가르며 쪽 내려 뻗치던 시퍼런 번개불...

만경대의 추녀 낮은 초가집에서 위인이 나섰다.

하늘이 내신 성인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 그날은 주체1(1912)년 4월 15일이였다.

김일성 동지, 그이는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자랑스러운 영웅이시였고 주체의 거룩한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칭하시였다.

《**력사에는 남다른 품격과 자질로 하여 이름을 날린 위인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뛰어난 품격과 자질을 겸비한 위인은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혁명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력사에 이름을 남긴 수천수만의 명인들의 《업적》을 다 합친대도 비길수 없는 그처럼 위대한것이다.

봄바람에 펄럭이는 당기를 바라보라.

승엄히 안겨 오는 붉은 기폭에 아로새겨 진 저 마치고 닳고 붓을 무심히 볼수가 없다.

가버린 세월에는 피멍 든 손에서 고역에 울던 마치고였다. 제 땅 아닌 남의 땅에서 가난을 거두어 들이던 낮이었다. 식민지지식인의 설움과 아픔이 배인 손에서 꺾여 지던 붓이었다. 그 마치고 닳고 붓을 인간을 위하여 바친 혁명선렬들의 피로 물든 성스런 기폭에 소중히 휩싸안아 새 사회의 주인의 상징으로 내 세워 준 손길은 진정 성인들의 거룩한 손길이였다.

사람들이여, 대동강반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으로 눈길을 돌리시라.

마치를 든 계급의 미더운 아들이, 낫을 쥔 순박한 녀인과 붓을 든 지식인이 영광의 대돌우에 올라 섰으니 저 모습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태어난 이 나라 인민의 긍지와 자부에 넘친 모습이

다.

여러해전에 이곳을 찾았던 종교계의 저명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돌은 높지 않다. 그러나 특정한 인물만이 올라 서던 대돌우에 평범한 근로인민이 오르기가 지에는 꼭 인류 반만년이 걸렸다.

성은성덕이 무한하신 **김일성** 주석님의 주체사상은 인류의 대성서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겠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

돈이 없이는 살아도 인덕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것이 만경대가문의 인생철학이였고 생활신조였다.

이러한 가문에서 인정과 선량성, 미덕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성장하시였다.

10대에 벌써 민족의 구세주로 나서시여 해방의 대업을 이루는 혈전의 굵이굵이에 그이께서 흘리신 피와 눈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낮 설은 타향에 너무도 이르게 부모님들을 모으시고 언 두부 한모에 찬 술을 앞에 놓으시고 형제분과 석별의 아픔도 나누시였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잃으셨던가.

그 눈물은 크나큰 사랑이였고 무한한 헌신이였다. 동지에 대한, 겨레에 대한, 조국에 대한...

력대의 신들은 모두 《천》을 믿으라고 했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 《천》이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고 하시며 《이민위천》의 큰 뜻을 펴오시였다.

조선혁명엔 그 려명기로부터 인간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펼쳤고 동지애의 숭고한 서사시를 수놓아 왔다.

우리 혁명의 갈피에는 《한흠의 미시가루》에 깃든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희생된 한 전사의 추도문을 쓰시며 아버지수령님 지새신 밀림의 밤도 있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신 한 늙은이의 외로운 모습이 마음에 걸리시여 토방을 내리신 걸음 떼지 못하시고 그 로인과 함께 맞은 새벽도 있다.

언제나 인민을 찾아 가시는 그 길에서 진창에 빠진 차도 손수 미시고 때로는 들길에서 콧강냉이 한 이삭으로 끼니를 에우기도 하시였다.

발두렁에 앉으시여 농군들에게 담배불도 붙여 주시고 부엌의 장독도 열어 보시며 살림살이의 논도 해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설한풍 살을 에이던 마안산밀영에서 한장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를 추위에 떠는 아이들에게 손수 덮어 주시던 그 사랑으로 선물옷 차려 입고 좋아라 뛰노는 학생들이 신은 신발 작지는 않는지 허리 굽히시고 하나하나 눌러 보시던 아버지수령님.

그이의 한생엔 일요일과 명절날이 따로 없었다

고, 자신을 위해 돌린 분초는 찾을수 없다고 성지 평양은 눈물겹게 이야기한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자옥자옥이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오신 헌신의 길이었다.

세월의 눈비에 젖으시며 우리 수령님 헤쳐 오신 가시덤불길이 있어 인민은 행복이 웃음으로 피여 난 락원의 꽃길우를 걸어 온것이다.

외국의 벼들은 말했다. 그이의 위대한 사상에 공감하기에 앞서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와 고매한 덕성에 먼저 매혹된다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혁명, 인간사랑의 숭고한 리념을 최고의 높이에서 구현해 온 조선혁명의 고매함과 성스러움에 머리를 수그리는 것은 결코 벼들만이 아니다.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정치인들까지도 조선혁명에는 인간성이 진하다고, 조선의 정치에는 인간애의 향기가 그윽하다고 진정을 터놓는다.

인류의 오랜 숙망이 현실로 꽃 피나는 바로 여기에 성지 평양의 견인력이 있다.

현 세기의 성지 평양으로 끝없이 흘러 드는 흐름의 물결, 이 흐름은 꽃 피는 계절, 목음의 계절, 단풍의 계절을 넘어서 눈꽃 피는 겨울에도 그치지 않는다.

정견과 신앙을 초월하여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앞 다투어 찾으며 그들모두를 《순례자》로 받아 들이는 주체조국의 수도 평양은 인류적인 성지로 세계에 공인되었다.

만경대를 찾은 어느 한 나라의 당수는 《만경대는 위대한 영웅, 인류의 태양을 낳은 역사적인 고장이다... 태양이 솟아 오른 만경대는 인류력사와 더불어 조선의 만경대 아니, 세계의 만경대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류의 대성인을 낳은 평양의 지운은 만경대에 뿌리를 두고 그 줄기를 백두산에 뻗쳐 또 한분의 성인을 맞이했으니 그이는 21세기의 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정일**장군님이다.

2

성지 평양은 위인복을 누리는 영광의 땅이다.

대를 이어 천지강림하신 성인을 모시여 평양은 만년성지로서의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다.

숭고한 주체위업이 펼쳐 지고 력력히 계승되는 성지 평양에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자애 넘치는 위인상을 삼가 우러른다.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혁명의 성지로 솟은 평양의 지위는 만민의 흠모와 칭송을 받고 계시는 전설적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권위이다.

성지의 새날은 그이 계시는 최고사령부의 창가에서 밝아 온다.

사색의 창가에 비졌던 예지의 불빛이 평양의 하늘가에 아름다운 노을로 펼쳐 진다.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토양우에 심으신 주체사상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인간의 존엄이 참답게 꽃 필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풍부화시켜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체도를 빛내여 오신것은 그이께서 쌓아 올리신 특출한 공헌이다.

비범한 예지와 심원한 사색이 깃들고 높은 지성이 안반침된 그이의 사상을 이 세상의 혁명적인민들은 《인류가 나갈 길 밝히는 희망의 등대》로, 인류의 근 반수를 가까이 하는 종교인들은 새로운 《복음》으로 소중히 받아 안는다.

《**김정일** 동지의 사상은 인류에게 자주의 념을 심어 주는 진리의 썸》, 《하느님의 <계시>가 울리는 곳은 교회당이 아니라 평양》이라고 한 주체사상 신봉자들의 말은 현 시대의 감각을 대변하고 있다.

평양, 여기서 혁명의 방향각이 그어 진다.

평양, 여기서 력사발전의 좌표가 설정된다.

진보적인류의 행동강령인 《평양선언》이 여기서 울려 퍼졌다.

위인의 사상을 따라 배우려는 인류의 열망은 세계의 조류로 되고 있다.

세계적관도에서 벌여 지는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는 이 운동에는 집권당지도부로부터 농촌마을의 학생들까지 참가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목소리는 대통령궁전과 국회의사당에서도 대양을 횡단하는 선박의 갑판우에서도 울리고 있다.

빠리와 뉴델리, 리마와 원... 국경과 국경을 지나 뻗어 나가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혈맥은 세계반동의 아성인 미국땅 한복판에도 닿아 있다. 그 혈맥을 하나로 이으면 자주와 새 시대를 맞은 행성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

대륙의 어느 지점에 가 있어도 우리는 정든 모국어로 울려 퍼지는 《주체!》라는 환희의 웨침을 들을수 있으며 위대한 성인들의 전사, 제자된 남다른 행복감을 느낄수 있을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성지 평양이 력사의 상상봉에 더욱 높이 솟아 빛나고 있는것은 복잡다단한 난국을 순간의 주저도 없이 맞받아 헤치며 격변하는 세계정치기류를 휘잡아 길들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 선군령도의 높은 권위에 의해서이다.

총대를 틀어 쥐고 혁명을 수호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며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 진 위대한 령장의 선군정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제의 거만한 상통을 총대로 후려 치며 승승장구하는 평양의 위협 앞에서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한다.

평양의 선군정치는 21세기의 정치가들이 누구나 따라 배워야 할 정치방식으로 공인되었다.

생각해 보라. 우리 장군님 틀어 쥐신 총대가 아니었다면 평양의 봄하늘이 오늘도 저렇듯 푸를 수 있으며 귀여운 아이들이 웃으며 노래하며 학교로 갈수 있었겠는가.

우리 장군님 역세계 틀어 쥐신 선군의 총대는 애국, 애민, 애족의 총대이다.

그 총대로 사회주의운명을 구원했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냈다.

그 총대는 인민의 행복을 가꾸고 보람 있는 삶을 빛내주며 강성대국의 대통로를 열어 간다.

평양의 지략과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이 호협하고 비상히 담대한 기품, 그것은 성지 평양이 간직한 불굴의 기상이며 도전을 맞서나가는 과감한 투쟁기질이다.

《반테로》라는 명분을 세워 아프가니스탄전역을 평정한 미제호전광들이 다음번 타격지점은 조선이라고 내놓고 떠들던 그 시각 우리의 장군님께서 어느 한 고려약공장을 찾으시고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약생산을 많이 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비상경제태세에 들어 간 침략의 무리들이 최신 군사장비들을 조선반도주변으로 집결시킬 때 수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최대의 걸작으로 내놓기 위한 훈련이 한창이었다.

위대한 평양의 무비의 담력으로 여유작작한 평양의 배심앞에서 적들은 제풀에 주저앉았고 세계는 승리자의 긍지 높은 평양을 존엄의 상징으로 우러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항복서에 수표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넌들 어찌겠는가. **김일성** 장군과 맞섰는데... 나 뽕레옹 백이 있어도 당할수 없다.》고 한 패전장군 클라크의 고백은 신화적인 백전로장앞에 무를 꿰던 패배자의 수치스러운 비명이였다. 그 비명소리가 20세기 50년대를 넘어 세 세기의 오늘도 대양건너에서 울리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위인의 령도력은 만난을 헤치면서도 승리만을 아는 평양으로 되게 한 원천이였고 령장의 담력은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움츠러 들지 않는 평양의 든든한 배심으로 되였다.

위인의 사상으로 진을 치고 위인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삼은 성지 평양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공세로써도 허물수 없는 정치사상적요새이며 시대의 첨단에서 사회주의를 지켜 가는 불패의 보루로 솟아 있다.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함께 할 일심단결의 성지

로 꾸려진 평양.

수도의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좋다.

평양사람모두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주체위업을 이루라고 당부하신 아버지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 필생의 좌우명으로 새겨져 있다.

《보라, 해불의 흐름을. 저 청년들의 눈빛에는 <순교정신>을 롱가하는 비장한 결사의 각오가 엿보인다.》

《예수의 열두제자중에는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있었지만 이 불의 대오에는 정세가 어떻게 달라져도 사소한 동요의 그림자도 스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혁명의 해불봉 높이 들고 노도쳐 나가던 수도의 청년학생들의 장한 모습에 감동되어 외국의 벗들이 한 말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평양사람들의 심장은 혁명이 요구할 때, 혁명이 바라는 지점에서 자기 령도자를 결사옹위하여 장쾌히 터칠줄 아는 총폭탄의 정신으로 높이 쏜다.

우리의 진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심장이 벗어 피가 식으면 녀이라도 바쳐 끝까지 받들려는 결곡한 충성심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피와 살처럼 엉키고 흐르는 혼연일체의 성지 평양, 위대한 일심단결의 땅이여!

3

성지 평양은 위인들의 모습으로 빛나는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이다.

위인들의 거룩한 모습이 비낀 거기에 평양의 아름다움과 참다움이 있고 그 성스러움이 만대에 이어 지고 있다.

푸른 하늘을 가까이 하는 건축물들로 꽉 들어찬 성지의 웅자는 위인의 손길이 다듬어 세운것으로써 그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의 기념비들이다.

건축은 시대의 성격과 정치의 본질을 반영한다.

에짚트의 피라미드는 노예의 무덤우에 세워 졌다.

종교의 《신성불가침》을 강요한 중세의 건축은 고지크식이었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은 무너져 가는 저들의 위세를 돋구려고 건축에서 수직선의 효과를 마구 람용하고 있다.

벌써 반세기이전에 고리끼는 《황마의 도시》라는 글에서 마천루를 자랑하는 미국의 뉴욕을 예리하게 해부하였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나서 미국의 한 영화회사는 초고층건물들로 들어찬 마천루의 비극적현실을 《높이 솟은 지옥》이라는

화면에서 신랄히 폭로하였다.

성지 평양이 행성의 모든 도시들과 구별되는 것은 건축물에 깃든 인민적성격에 있다.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성지의 곳곳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늘 나드는 인민에게 복무하는 건축물들이 우아하면서도 틀지게 자리 잡고 있어 평양의 인민적성격을 보여 준다.

남산재는 성인들이 제일로 아껴 오신 땅이다.

그곳에 새 인간육성의 대전당을 세워 주셨다.

우리 인민은 이곳에서 위인들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열심히 익히며 그분들의 명언을 《금언》으로 새겨 간다.

성지는 위인들의 정든 트랙이다.

평양에는 위인들의 기호와 성격, 품모가 비껴나 있다.

아기를 안고 웃음 짓는 녀인들의 밝은 모습이 어린 평양산원의 창문들은 위인들의 은정 깊은 눈빛이다. 어서 오라 팔 벌려 불러 주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위인들의 자애론 손길이다. 시원하게 열려진 광복거리대통로와 하늘높이 솟아오른 현대적인 살림집들은 위인들의 기상과 슬기, 통이 큰 배심이다.

서방문명의 기준으로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수도에 일떠선 대기념비적건축물이며 《놀라움을 금할수 없는》 현실이 성지 평양의 모습이었다.

평양은 명곡이 많이 나온 성지이다. 해썬는 아침으로부터 별이 빛나는 밤에 이르기까지 평양을 노래한 명곡은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 많은 노래에는 깊은 밤 지새신 위인들의 사색과 예지가 깃들어 주옥 같은 시어로,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의 심금을 틀어 잡는다.

수백수천의 교회와 성당에서 울리는 찬송가도 그 우아한 평양의 노래 한편앞에선 무색하다.

위인들의 숨결이 숨배인 평양찬가를 사람들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른다.

평양은 두분의 위인을 모시여 전설도 일화도 많은 땅이다. 주체의 대성인을 모시여 혁명전설이 태어나던 성지 평양이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오늘도 새로운 혁명일화들을 낳고 있다.

예로부터 성지들에는 전설과 신화가 많았다. 그 전설과 신화들은 《성인》들을 신적인 존재로 내세우려는 의도로부터 《신비성》을 부여한 환상과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성지 평양에서 태어난 혁명전설과 혁명일화들은 우리 인민이 실생활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진실한 사상감정과 강렬한 느낌의 반영이다.

시간을 주름 잡는 《축시법》과 《쪽잡과 꿰기법》이 전하는 사연 깊은 이야기들은 력사적사건과 실재한 사실들에 기초한것으로써 위인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가슴을 열렬한 흠모와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불 타게 한다.

평양은 위인의 사랑과 믿음이 꽃 피어나는 참다운 인류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과 평등을 바란다.

그러나 욕망만으로는 이룰수 없는것이 사랑이며 원한다고 해서 가지게 되는 평등이 아니다.

인덕의 화신이신 어버이장군님은 사랑과 믿음으로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하나같이 가꾸어 주신다.

인간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이야말로 인간을 완성시켜 주는 최대의 사랑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사랑의 철학이다.

그이의 사랑은 동토대의 흰 눈과 북극의 얼음산도 단숨에 녹일 열화와 같이 뜨거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며 그이의 믿음은 지구의 인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커다란 포용력으로 천만전사모두를 끝까지 품어 안아 책임지시는 인민에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이다.

따르는 인민모두를 동지로 믿어 주시는 그이를 우리 또한 동지라고 허물없이 부르며 따르고 받든다.

정녕 평양은 건축물도 우아하고 공기도 깨끗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순결한것은 성인들의 슬하에서 자라며 그분들의 모습을 닮아 가는 수도의 사람들이다.

성인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뉘트 주고 자래온 평양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나 내려 왔다고 볼수 있는 선남선녀들이다. 그 정신세계의 고상함과 참다움에서 이런 인간들을 키우신 성인들의 위대함을 느끼며 세계가 놀라와 한다.

평양은 오늘 성지로서의 품격을 더욱 높이며 21세기를 인도할 세계의 중심으로 솟아 빛난다.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

평양은 선대수령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를 세계앞에서 보여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떠나가시여 지구가 가벼워졌다고, 가벼워졌을뿐아니라 동방은 물론 온 세계가 어두워졌다고 애석함에 가슴치던 7월, 온 행성을 슬픔에 잠근 비애의 나날에 우리 인민들은 한생 울어야 할 울음을 다 울었다. 한생 흘려야 할 눈물을 다 흘렸다.

수령님을 그리워 하는 인민의 념원을 헤아리시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장군님.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이 땅의 길들이 열려져 있다. 행성의 모든 길은 평양으로 향해져 있다.

그 길로 우리 인민들이 찾아 온다. 남녘의 형제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달려 온다.

성인의 생애에는 시작이 있을뿐 마감의 없다.
인민의 추억속에 간직된 위인은 인민의 심장속에서 영생한다.

아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여기에 인류의 성지로서의 평양의 영원성이 있다.

력사는 **김정일**동지를 세계사회주의위업의 로속한 령도자로,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실 오직 한분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였다.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자주, 평화, 친선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학술토론회에서 울린 목소리.

《정열의 시인 마야콥스키는 모든 질문을 안고 모스크바로 찾아 오라고 긍지높이 웨친적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찬가가 넘치는 뜻깊은 이 장소에 그를 다시 세울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것이다.

-그 어떤 미지수를 안고 모대기는 사람들은 자

신을 모든 의문부호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조국,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찾아가라!》

천출위인들을 우러르는 함모의 정이 끝없이 흘러드는 평양, 여기서 주체의 물결이 지구의 모든 대륙으로 퍼져 나간다.

력사는 시대의 지휘봉을 **김정일**동지에게 맡겼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궤변과 도전을 짓누르는 사회주의행진곡이 평양에서 장중히 울린다.

력사는 혁명의 키를 **김정일**동지에게 맡겼다.

풍랑 사나운 항해길에서 인류의 숙망이 꽃 핀 아름다운 기슭으로 불패의 함대는 나아간다.

승리자의 긍지와 자랑,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이 시대를 우리는 **김정일**시대라고 부른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그 이름 세기를 넘어 빛나는 성지 평양은 영원토록 그 이름을 떨쳐 갈것이다.

어머님과 봄

최치영

가난이 무겁게 드리워
땅에 닿은 초가집이영
행복한 창가들과 추녀를 맞대고
창덕학교아이들 뛰노는 운동장과
마당도 잇대여 놓은 칠골생가

앞집 뒤집...
한뜨락 한마당 이룬
고향집 꽃바다속에
기쁘시여 바라보시며
조용히 앉아 미소 짓는
강반석어머님의 환한 그 모습

행복합니다
어머님 탄생하신 이 봄날
어머님 그 모습 우러르니
이국의 거치른 광야에 남기신
어머님의 고생고생...
그 고생의 응여리가 다 풀리며
그리움은 더 간절해 눈물로 솟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안고
이 초가집 떠나시여
어리신 수령님과 함께 걸으신
중강진과 포평, 팔도구
그리고 립강과 무송, 소사하...

해방의 봄 행복의 봄
이 봄에 환히 웃으시는 고향집까지
어머님 걸으신 피어린 길
그 길에 어머님 넘원 꽃 피여
조국은 해방되었어도
아드님과 함께 돌아 오지 못한
그 아픔이여 그 통분함이여

정성어린 좁쌀 한말 앞에 놓고
먼 길에 선뜻 발걸음 못 떼시던 아드님을
오늘처럼 밝게 미소 지으시며
가슴속 피눈물로 엄엄히 떠나보내시던
그 리별의 마지막 아픈 길이
행복한 이 봄을 안아 온것 아닙니까

그 길에 우리 어머님
남 모르게 바치신 녀원이
해방의 봄빛을 뿌려
우리 수령님 내 조국 찾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장군님 선군의 기치로
이 땅에 강성대국 일떠세우시는것 아닙니까

아 어머님과 봄
봄날에 탄생하시여
4월의 만경봉에 태양을 안아 올리신
영원한 조선의 봄의 어머님
그 봄속에 행복한 봄의 어머님

우리 수령님의 《습관》

주체 51(1962)년 4월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축원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을 담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수령님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한 곳에서 휴식하시게 되었다.

하지만 집무실이 바뀌었을뿐 그이의 사업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그이의 건강을 담당한 일군이 보다 못해 정식으로 말씀 드렸다.

《아버이수령님, 밤 늦게까지 일을 보시는데 새벽부터 일하시는것을 좀 삼가하여 주십시오. 잠시간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몸에 배인 습관이란 좀처럼 떨어 지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하듯 말씀하시였다.

몸에 배인 습관이라는 그 말씀에 일군은 생각이 깊어 졌다.

마치도 그의 마음을 들여다 보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감회 깊은 어조로 지난 날을 추억하시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 나는것은 오랜 생활과정에

굳어 진 습관이요, 산에서 싸울 때 적들은 꼭 새벽에 습격해 오곤 했소, 그렇게 되니 부대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잘수 있었겠소, 그때부터 새벽이면 잠이 오지 않더군, 해방이 되니 또 얼마나 벅찬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소, 그래서 새벽이면 또 잠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요, 전쟁이 끝나자 복구건설이 시작되고 이어 천리마대고조가 시작되었소, 결국 생활은 나에게 아침에 편안히 누워 있을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그렇게 되여 굳어 진 습관이요....

순간 일군은 눈시울이 뜨거워 울랐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이 다시 울렸다.

《아마도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 나는 이 버릇만은 일생을 두고 고치지 못할것 같소.》

《수령님, 이제라도 그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군은 이 말을 입밖에 내지는 못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습관》은 그이께서 한평생 조국과 혁명 위해 바쳐 오신 헌신의 나날에 체질화된것이였다.

추억에 남는 시

만경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의 기슭에서 울린다
가장 부드러운 바람결이
그대의 산허리를 감돌고 있다

뜨거운 마음을 안은 경건한 자욱자욱들이
그대의 언덕에서 꽃으로 피고
밤이면 다정한 별들이
그대의 초가지붕우로 고요히 내린다

가장 깨끗한 심정들이
그대의 사립문을 쓰다듬으며 목 메이고 있다
가장 시련에 찬 민족들이
그대의 목소리 들으며 동 트는 새날을 맞는다

순종에 찢기고 열풍에 타던 가슴들이
그대의 품에서 다시 소생되고

리광재

파도 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 가는 열혈투사들이
그대를 우러러 고향의 어머니라 부른다

가장 간고한 혁명의 길 여기서 시작되였다
가장 영광에 찬 력사 여기서 빛난다
인류의 봄 꽃 피우는 주체의 뿌리 여기 내리고
세기를 깨우는 력사의 종소리 여기서 울린다

오, 혁명의 태양 솟아 오른 만경대!
그대는 만리대공에 붉은 노을 펼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높이
모시고

인류의 리상봉우에
혁명의 집으로 찬란히 솟아 있구나!

만경대!
만경대!

시대의 명작과 작가의 기교(2)

김성우

2. 태양의 해발로 엮어 진 형상구성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을 론함-

구성의 논리는 생활의 논리이다. 수령형상작품에서 구성의 논리는 인간세계의 불멸의 태양이신 수령의 활동론리로 된다.

수령을 모시지 못한 인민과 수령을 모신 인민의 생활론리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장구한 력사를 통하여 인민은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에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로 되지 못하였으며 그 인민의 운동은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이였다. 그것은 필연적인 력사의 흐름을 따라 왔으나 수많은 우연적요인들에 의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복잡한 곡선주로를 달려 왔다. 그러나 수령을 모신 인민의 운동은 다르다. 그것은 밝은 태양아래 곧게 뻗은 자주의 궤도를 따르는 운동이다. 인민의 생활론리는 수령의 사상과 의지를 따라 필연적인 련관속에 튼튼히 맞물려 진다.

그런것만큼 수령형상작품에서 인물들의 관계와 이야기의 흐름은 전적으로 수령의 활동론리를 따라 조직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수령의 의지와 무관계한 인물관계, 사건, 일화, 세부는 있을 자리가 없다.

시대의 명작으로 빛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그 중심에 수령님의 형상을 모시고 적아간의 모든 형상선들을 빈틈없이 맞물림으로써 명실공히 작품을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넘쳐나게 엮었다.

력학적구성의 중심과 기본선

수령형상작품에서는 수령의 령도밑에 발전하는 력사적사건을 기본줄거리로 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엮으며 수령에 의하여 설계되고 조직령도되는 혁명사업을 기본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에 그려진 중심사건인 1211고지전투야말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무비의 담력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가장 전형적인 력사적사건으로 된다. 그 령다고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매 장면에 나오게 하거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개입하게 하는 식으로 형상할수는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반작품에서는 대체로 거의 모든 장면들에서

주인공을 내세우고 크고 작은 인물선, 사건선을 그와 직접 련결시키군 하지만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수령을 기본선과 잘 련결시키면 된다.》

바로 여기서 수령형상작품에서 구성의 중심과 기본선에 관한 미학적문제가 나선다.

사실상 이 작품에서 수령이 직접 등장하는 대목은 41개의 장가운데서 12개 장밖에 되지 않는다. 작품의 주인공이라는 위치로 볼 때 너무도 적은 지면밖에 할당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의 전반국면을 한손에 거머쥐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숨결은 그밖의 모든 장들에도 뜨겁고 줄기차게 흐르고 있으며 모든 생활선이 수령의 의지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중심에는 확고히 수령이 서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이 작품에서 수령이 많은 지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그 중심에서 작품의 기본선과 밀접히 련결되어 자기의 령도적위치로 뚜렷이 차지할수 있었는가.

구성령역에서 작가 안동춘의 발견은 《로병관-황영학-송우인》의 삼각관계의 설정에 있다. 해방전부터 밀접한 연고관계를 가진 이 세 인물이 전선사령부와 1211고지 그리고 적측의 미8군사령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넓게는 건지리의 최고사령부와 도교의 《유엔군》사령부, 김웅의 전선사령부와 밴플리트의 8군사령부, 최현의 군단지휘부와 황영학의 련대를 련결해 주고 있으며 좁게는 대우산의 김철규포중대와 권석찬보병소대, 미군독전대 보튼상사네를 련결해 주고 있다. 전선과 후방, 아군과 적측을 포괄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이 세 인물의 관계를 축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엮히어 력학적인 구성의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것이다.

로병관, 황영학, 송우인은 고향에서 《세술밭》로, 도교류학시에는 《정삼각형》이라고 불리운 친구들이였다. 운명은 곡절 많은 민족사의 회오리를 타고 그들을 서로 다른 전선에 서게 하였다.

《학도병》징집때 탈출한 뒤 황영학은 최현을 만나 조선인민혁명군에 가고 로병관과 송우인은 박일우를 통해 동북의 조선의용군에 갔는데 그후 로병관은 김웅의 《신임》속에 전선사령부의 장령

으로 되었고 송우인은 남에 가서 피뢰군준장으로 서 뱀플리트의 《한국》인보좌관으로 되어 서로 충구를 맞대고 서게 된것이다.

이 《세솔발》-《정삼각형》의 틀우에 수십명에 달하는 작품의 모든 인물관계들이 구축되어 있다.

이 《정삼각형》의 세 정점인물들은 그대로 1211고지전투라는 중심사건에 집중된 세 갈래의 형상집단을 하나로 묶어 주는 매듭들로 되고 있다.

로병관을 통해서서는 작품의 중심적위치에 있는 조선인민군의 전략적수뇌진이 련결된다. 여기에는 최고사령부의 남일, 최용건, 강성찬과 현지의 군단장 최현 그리고 우연본자인 전선사령관 김웅과 허가이가 망라되어 있다.

황영학을 통해서서는 1211고지방위자들인 화선의 군인들이 련결된다. 여기에는 박격포중대장 김철규, 보병소대장 권석찬, 전사들인 리수복, 현인석, 진갑수, 정미순, 장천일, 마정옥 등이 망라되어 있다.

송우인을 통해서서는 적대적갈등속에 놓인 원수들의 형상집단이 련결된다. 여기에는 뱀플리트와 피뢰군단장 백선엽, 미군상사 보튼과 카츄사병 송우식이 망라되어 있다.

이 세 정점인물들의 연고관계가 해방전부터 시작하여 깊숙이 맞물려 있고 현재 직접적인 갈등속에서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인것으로 하여 그들을 축으로 하여 련결된 세 형상집단의 인물관계는 하나의 령채를 이루어 튼튼히 맞물릴 수 있었던것이다. 이 작품의 인물관계가 많은 수의 인물들을 안고 복잡하게 된것 같지만 세 갈래의 형상집단중 그 어느 인물을 포착하여 잡아 당기더라도 이 《정삼각형》에 모아 들었다가 다른 갈래의 형상집단들과 련결되며 궁극에는 형상의 중심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중되는것이 다.

작가는 응당하게도 수령님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우리측에서는 최고사령부의 일군들로부터 화선의 전사들, 후방인민들의 형상을 폭 넓게 보여 주어야 했으며 적측에서도 역시 미국대통령,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전조선의 현지 줄병들에 이르기까지 형상체계안에 포섭하여야 하였다. 그러자니 자연 인물구성이 방대해 질수밖에 없었으며 그 때 인물들이 언제나 직접적인 관계로 마주 설수 없는 조건에서 그모두를 한고리에 튼튼히 엮어 댈수 있는 기본틀을 찾아야 하였다. 그것을 상충부나 하충부도 아니고 그 중간위치에서 찾아 바로 《로병관-황영학-송우인》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그 방대한 인물집단을 조형적인 형상구성속에 력학적인 균형이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었던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세 인물이 형상구성의 중심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중심은 어디까지나 백전

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다. 최현을 기본으로 한 1211고지의 군인들의 투쟁도 뱀플리트를 기본으로 한 원수들의 발광적인 작전도 한결같이 그 구체적세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으며 위대한 백두령장의 지략에 따라 조종되고 움직이는것이다.

물론 수령의 령도선은 굵직하게 전략적이며 로선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강조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수들의 대규모공세의 주타격방향이 동부산악지대로 될것이라는것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꿰뚫어 보시고 1211고지계선을 난공불락의 갱도진지로 꾸리는 한편 전선서부의 6군단을 대담하게 동부로 기동시키시며 그 무슨 산악방어의 불리성이요 《기동전》이요 하면서 야심적인 모험을 하려는 김웅, 박일우들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하시고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 주지 말데 대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의 방침을 밝혀 주신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순히 군사실무적인 견지에서만 이 작전의 의미를 보시는것이 아니라 《기동전》때문에 인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고통을 먼저 보시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조선의 구체적실정과 형편에 기초하여 우리 식의 주체전법을 창조하시는 모습에 형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략적이고 로선적인 문제와 관련한 수령님의 활동은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측근 인물들인 남일, 최용건, 강성찬, 최현 그리고 사대와 교조에 물젖은 허가이, 박일우, 김웅의 관계속에 직접 구현된다.

남일, 최용건, 강성찬, 최현은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충실성으로 심장을 불 태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상과 지략, 풍모에 있어서 아득히 높은 위치에 계시는 수령님의 의도를 따르지 못하여 고심하는 인물들이다. 반대로 허가이, 박일우, 김웅은 뿌리 깊은 사대와 교조, 개인 영웅주의, 야심에 들떠 수령의 의도를 거슬러 나가고 있는 갈등대상으로 되고 있다. 주체이나, 사대이나 그리고 충성이나 배신이나 하는 첨예한 로선상문제에서의 대립이 설정되었다.

오직 실천으로써, 피로써 그것을 판가리하고 검증해야 할 형상과제가 화선에 있는 황영학과 그의 련대장병들인 김철규-로태진, 권석찬-리수복이네에게 부여되고 있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안고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최고사령관동지의 주체적인 로선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조국애로 불 타는 끝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청춘의 심장을 바쳐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의 격동적인 송가를 엮었던 것이다.

특색 있는 인물선의 극적효과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은 가장 가렬처절했던 격전의 화폭으로 엮여 졌다. 천고의 수렵으로 덮였던 동부산악지대가 《용암이 식어 버린듯 싶은 <사화산>》으로 변했지만 그속에는 그 어떤 철과 불의 세례와 살륙의 광풍으로써도 없애버릴수 없는 영웅적인민, 불패의 총대가 살아 있었다. 무자비한 전쟁의 포화는 산악의 지표면을 깡그리 갈아 엮었지만 1211고지는 여전히 《푸른 산악》으로 높이 솟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총포성만 듣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총포성으로 엮여 진 장엄한 《전쟁 교향곡》의 선율과 리듬을 타고 역세계 살아 숨쉬는 청춘과 청춘들의 심장의 고동을 들으며 불비속에서도 영원히 푸르려 설레이는 그들의 녀의 속삭임을 듣는다.

생활로 기름진 소설의 화폭들에는 총포성소리보다 먼저 산 인간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그들의 맥박치는 감정정서가 격류하고 있다. 이 소설은 전형적인 전쟁소설이지만 풍만한 생활이 있고 극이 있다. 여기서 작가의 구성기교가 큰 역할을 하고있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을 존엄 있게 그린다고 하여, 수령에게 전략적이고 로선적인 문제와 관련된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준다고 하여 작품의 형상구성이 공식적인 인물관계로만 엮여 진다면 수령형상이 격식화될수 있다. 그것은 생활의 빈곤을 낳고 나아가서 참신한 철학의 빈곤을 가져 온다.

작가 안동춘은 대담하게 특색 있는 인물선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수령님의 령도선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작품을 산 인간들의 생활로 충만시키고 심각한 심리적갈등과 함께 발생하는 극적흥미를 조성하였다.

작품에서 가장 극적인 관계로 특색 있게 설정된 인물관계는 로병관-황영숙, 장천일-마정옥, 김철규-정미순이며 적측에서 송우식-보튼의 관계이다. 최현-무정의 선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로병관과 황영숙(그는 황영학의 누이동생이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러나 로병관이 김웅의 독선적인 《기동전》바람에 동조하고 김웅이 대우산전투실패의 책임을 황영학에게 들쭉워 군사재판에까지 끌어 냈을 때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들사이에는 얼음장이 박혔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전법을 옹호해 나선 최현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께 사래의 진상이 정확히 보고되고 수령님의 결론으로 황영학의 처벌이 엄중경고로 그치게 되었지만 영숙은 병관을 용서할수 없었다. 로병관도 영숙이와의 관계는 영영 끝난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은 검질기게 남아 처녀의 심장을 아프게 했고 로병관 또한 털어 버릴수 없는 가책과 미련을 안고 고민한다.

깊은 재속에 묻혀 진 이들의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다시금 준엄한 싸움길에서 열정의 불길로 타오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병관의 깨끗하고 고지식한 성품을 믿으시고 《기동전》바람에 앞장 섰던 그의 실책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을뿐아니라 다심하신 어버이정도로 황영숙을 직접 최현의 군단에 데리고 가시여 서로 가까이 있도록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황영숙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믿음, 이 사랑의 해발을 받아 안고 전선으로 달려 왔으나 여기서 또 한 차례 심리적극절을 겪어야 하였다. 이번에는 검찰국에서 로병관을 이전날의 송우인과의 친교관계를 문제 삼아 고용간첩의 혐의를 씌워 체포하려고 내려 온것이다. 이때 황영숙은 대담하게 그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고 법과 군률앞에서 그의 량심을 보증하는 글을 쓰며 지장을 누른다. 그의 심장속에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 안은 전사에게는 배신과 변절이 없다》는 신념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장천일과 마정옥의 관계는 더 이채롭고 극적이다. 너무나 담차고 뻔뻔서 전선길에서 《독가시》라고 소문난 매혹적인 성격의 녀성고사총중대 분대장 마정옥은 해방직후 황영숙과 함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해빛 같은 손길을 받아 안은적 있는 미모의 처녀이다. 그런 그가 《바람쟁이》운전사 장천일에게 영겁결에 넘어 가 어머니말대로 《천한년》들이나 할 《실수》를 하여 남모르는 아이를 낳는다. 눈물속에 아이를 이모에게 맡기고 전선에 나온 이 《독가시》처녀는 마음속에 모진 고통을 안고 몸부림친다. 《남편》장천일이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를 방조하였고 귀중한 문화유물을 운반하다가 분실함으로써 당원증까지 내놓게 되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것이었다.

불가사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천일에 대해서 누구도 보증할수 없었다. 정옥은 믿었는가?... 생활에서는 감정이 리성을 배반하고 결길로 달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리성이 감정을 무시하고 서리 같은 판결을 내릴 때도 있는것이다. 정옥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독가시》에 찢린 심장은 경련하고 있었다. 이들의 기이한 관계는 소설에 또 한갈래의 극을 산생시킨다.

황영숙이네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서로의 심장에 박힌 의혹과 불신의 《독가시》를 뽑고 순결한 사랑을 되찾을수 있었다. 다시 찾은 당원증을 품고 탄약수송차를 몰아 부대로 돌아 오던 장천일이 위급한 정황에서 적기를 유인하고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흐려 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정옥이, 내 당신한테 당원증을 보여주려고 했는데...)라고 할때 독자들은 눈물을 머금게 된다.

소설에서 세상에 널리 알려 진 범동로인 김만

산의 아들며느리들인 철규와 미순의 관계는 가장 극적으로 심화된 문학적관계라고 할수 있다. 철규의 아버지 김만산과 정미순의 아버지사이 생사운명을 놓고 맺어 진 기막힌 우정과 《꼬마신랑》, 《꼬마신부》로 되었던 철규와 미순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흥미 있지만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손길 아래 꽃 피워 가는 그들의 사랑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고 순결한 랑만으로 가득차 있다.

수령님의 뜻대로 후방으로부터 최전선까지 소와 등짐을 리용하는 수송로를 개척한 철규의 뒤를 이어 전선원호대로 찾아 온 김만산로인과 정미순은 전선에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운 애인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 김만산은 아들이 싸우다 죽어도 조국을 지킬 후대는 남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다짜고짜 결혼시키고 억지로 한방에서 자게 한다. 미순은 그 길로 입대하여 간호원이 되고 철규는 적아가 뒤섞인 혼전속에서 박격포사격을 자신에게로 부르며 최후 결사전을 이끄는 영웅적위훈을 세운다. 작품은 중상입은 철규와 간호원 미순이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영광의 절정에 오르는것을 감동깊이 그려 주었다.

이것은 로병관-황영숙, 장천일-마정옥이와는 또 다른 새로운 애정관계이다. 이 세쌍의 애정선은 서로 다른 형상과제를 안고 이 땅의 모든 청춘들을 조국수호의 결전에서 영웅으로, 참된 인간으로 키워내는 절세의 위인의 품모를 부각시키는데 힘 있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극적관계는 적축의 특색 있는 인물인 송우식과 보튼사이에도 설정되어 있다. 송우식은 송우인 준장의 친동생이며 그 덕택으로 미군카츄샤병으로 손 쉬운 복무를 하고 있으며 뽕플리트의 아량으로 이모저모 특혜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게는 일정하게 제나름의 《뜻》도 있다.

그도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으나 자기 애인이 위문단에 섞여 전선에 나왔다가 미국회의원의 아들인 보튼에게 강간 당하고 비참하게 살해되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의 의식속에서는 폭풍이 일어 났다. 어떻게 하면 보튼을 복수하겠는가 원쑤를 눈앞에 두고서도 카츄샤병이라는 노예적처지로 하여 굴종해야 하는 비극적처지에서 송우식의 심리극은 처절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식은 마침내 혼전속에서 보튼의 대갈통을 까부시고 인민군대에 포로되며 화선방송으로 량심의 호소를 내보낸다. 이런 동생을 놓고 송우인도 극적체험을 겪고 미군에 의해 살해된다.

작품에 설정된 인물들은 성격도 생활도 단순치 않다. 사랑속에 번민이 있고 믿음속에 의혹이 있다. 작가는 개성적인 매 인물들의 성격론리를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품속에서 그들

이 번민을 이긴 사랑, 의혹을 불 사른 믿음을 안고 새로운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진실하고 감명 깊게 그리었다.

작가는 이처럼 심각한 심리극으로 충만된 인물선들이 부채살처럼 하나의 중심-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모아 지게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선시찰을 보여 주는 장면에서 한데 묶어 운명적인 해결을 주고 있다.

불비속을 뚫고 몸소 최전선에까지 나오시여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길 천재적인 지략을 밝혀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뜻 깊은 곳에서 황영학, 로병관, 황영숙, 김만산, 정미순, 마정옥이네를 다 만나주시며 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부끄러운 말, 안타까운 생각을 다 들어 주신다. 그리고 친어버이로서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군단장동무, 이러구 보니 여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로구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그것은 바로 위대한 령장의 품이며 애국의 심장들이 작별하는 성스러운 반미대결전장인 1211고지인것이다.

태양의 빛발은 《푸른 산악》의 령마루와 골짜기, 거목과 잡관목, 덤불에 묻힌 들꽃과 그우를 날아에는 작은 새... 그 어느것이나 가림없이 다 비쳐 준다. 대상을 가리어 빛발을 나눠 주는 그런 태양은 없다. 인간세계의 위대한 태양이신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작품에서는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비쳐 가는 그 모든 곳에 눈길을 돌리고 될수록 다채로운 인간들의 전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럴수록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엮여 가는 작품의 형상세계는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해 지는것이다.

점... 선... 면...

예술적화폭을 구성하는 묘사기법은 다양하다. 게다가 작가마다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인물들의 생활로정을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 지는 사건, 일화, 세부들을 종적으로 줄기찬 선을 이룰수 있게 그려 나가는 《선묘법》도 있고 토막친 생활장면들을 점점이 쪽무이하듯 조립해 나가는 《점묘법》도 있다. (이 술어들이 아직은 좀 귀에 선 말이긴 하지만 다른 표현이 없으므로 당분간 쓰기로 한다.)

대부분의 소설들은 이야기선들이 여러 갈래로 교차되고는 있으나 아무튼 매개 장면의 이야기들이 그에 앞선 이야기의 꼬리와 꼬리를 물고 련속되고 있는것을 느낄수 있다. 그러나 극에서는 장면과 장면사이에 필수적으로 긴 뒤생활이 놓이게 되고 비약된 장면과 장면의 련계는 독자들의 추측으로 실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의 이야기구성은 보다 선묘법에 가깝고 극의 이야기구성은

보다 점묘법에 가깝다고 하게 된다.

작가 안동춘은 짧은 형식의 단편소설 《대지의 표정》, 《언약》, 《영원》 등에서는 이야기선들이 굵고 뚜렷한 선을 이루고 연속적으로 뻗어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50년 여름》을 쓰면서부터 그의 구성수법, 묘사기법에서는 새로운 기교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장면과 장면사이에 비약이 심하고 토막토막 소묘한 사건, 세부, 일화들이 크게 본 시야안에서야 선을 이루어 나타나게 하는 수법을 리용하고 있다. 전국적판도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정황에서 벌어지는 방대한 생활을 한편의 작품에 담아야 한다는 사정으로부터 이런 형상구성법을 도입했던것 같다.

이번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을 쓰면서 작가의 이 수법은 더욱 뚜렷이 련마되어 나타나고 있다.

작품에서 많은 인물선들은 시종일관한 이야기선을 이루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두개 장에서 그의 생활선의 몇개 토막이 간명하게 그려져 있을뿐이다. 무정이 그러하며 리수복이 그러하며 송우인도 그러하다. 비교적 선이 길고 굵은 장천일-마정옥이나 김철규-정미순 그리고 황영숙이도 몽청몽청 잘라 버린 많은 이야기들을 뒤생활로 깔고 토막토막 나타나고 있다. 뚜렷이 찍혀진 점과 점... 그 속에 언뜻언뜻 비쳐진 인상 깊은 인물들의 모습은 소설을 다 읽고나서 머리속에 그려 보면 비로소 매개의 인물선들이 거창한 력사적사건의 흐름과 더불어 중단 없는 생활선으로 복제되어 떠오르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가 많은 인물, 많은 사건, 많은 일화들을 다루면서 묘사밀도를 조절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기울인데 대하여 지적해야 한다. 소설의 묘사는 간결하다. 하나의 행동에 대해 한 문장의 묘사를 대응시키는 원칙에서 썼다고 할 정도로 묘사는 함축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대목에 가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한 밀도 높은 묘사를 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리수복의 형상이 그러하다.

리수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아시고 우리 인민이 다 아는 1211고지의 영웅전사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를 2장에서 로병관의 시점에서 얼핏 단 한개 문장으로 묘사되어 등장한다. 로병관이 권한 담배갑이 빙 돌아 와서도 절반이나 남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본 리수복이 <그건 내가 건사하지.>하며 스스럼없이 담배를 제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그 역시 담배를 피울줄 모르는 애송이었지만...》 이렇게 작가는 한개의 작은 점을 찍어 리수복을 소개하였다.

많은 생활의 비약과 공간을 거쳐 13장에서 최현의 시점에서 리수복은 다시한번 비쳐진다. 대우산을 잃은 실패원인은 련대장에게 있는것이 아

니니 처벌하려면 저희들전체를 처벌해 달라고 제기하는 그의 모습은 역시 네마디의 대사와 네개의 묘사문으로 점 찍혀진다. 점... 점...

18장에서 황영학의 시점에서 그는 다시 간명하게 점 찍혀진다. 대렬의 맨 끝에서 무거운 배낭을 지고 힘겹게 걸어 오는 그 모습,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니

《전... 원래 피곤을 모릅니다.》

용타고, 집이 순천이라고 했단가고 물으니

《네, 우리 순천사람들은 죄다 팔팔하답니다.》

그리고나서 《장군님께서 우리 고장에 와서 선거를 하신건 아시겠지요. 그것만 봐도 우리 순천사람이 어떠리라는것은 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이다. 이 대사 이외에 그에 대한 묘사는 《흰 이를 드러내며 귀엽게 웃었다.》, 《남들어가 저어하듯 주변을 둘러 보고 소리를 죽여 말했다.》고 하는 너무도 짧은 단 두마디에 불과하다.

다 합해야 한페지도 되나마나한 이 세개의 작은 점을 찍어 놓고는 오래동안 잊혀졌던 리수복은 마침내 38장에 와서 련대앞의 마지막 《여우대가리》를 없애기 위한 습격전투장면이 그려질 때 자기의 전모를 드러내며 밀도 높게 묘사되고 있다. 습격조로 떠나며 애송나무 《화분》에 음료수로 받아 둔 탄피속의 물을 정성껏 쏟아 붓는 리수복, 그 애송포기를 떠나 심을 때 그가 했다는 시 같은 이야기, 그의 수첩의 첫장에 모셔진 신문에서 오래 낸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진, 최후의 시각 그 어떤 말도 없이 화구를 막고 숨진 영웅의 모습... 역시 밀도 높은 묘사라야 한두페지나 될가말가 간단히 주어 졌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그의 모습이 영원히 지울수 없는 모습으로 새겨지고 있다.

작가는 리수복의 배낭과 주머니에서 나온 사물에 대한 간결한 련거로 이 장면을 끝 맺고 있다. 고향의 어머니와 동무들에게 쓰다만 편지, 조기천의 시집 《백두산》, 목달개 두조와 품품히 기운 면내의, 손수건에 싼 훈장과 메달, 세개의 공다리연필, 라이타와 수첩 그리고 《금강》표담배 두갑이 전부였다. 이것도 역시 점이다. 좀 더 진하고 클뿐...

그러나 이 점과 점들은 한선을 이루어 격동적인 영웅교향시의 선율을 울려 주고 있다. 그가 남긴 시는 전우들의 가슴속에서 살아 있는 리수복의 불 같은 웨침으로 재현되며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는 전화보고에서 이 작품의 종곡으로 감명 깊게 반복연주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화기를 드시고 리수복의 시를 들려 달라고 하시며 한동안 침묵에 잠기셨다가 흐린 음성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것이다. 그이께서 한마디씩 몸소 받아 외우시며 자신의 수첩에 적어 나가시는 영웅의 시는 작

품의 마지막페이지에서 다시금 울린다.

작전이 승리로 종결되고 남일을 정전담판장인 판문점으로 떠나보낸 뒤 또다시 전선길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수복이 쓴 시를 조용히 읽어 보시었다.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

이리하여 작품은 끝났다.

이렇게 작가는 점으로도 하나의 주요인물선을 처리하는 특징적인 기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묘법은 그밖의 인물들에게도 적지 않게 적용되면서 작품의 전반화폭을 립체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1211고지전투라는 대형전경화의 면우에는 최현, 로병관이라는 비교적 굵은 선과 함께 황영학, 김철규, 장천일이라는 점선이 오가는 가운데 리수복, 진갑수, 송우인 등의 크고 작은 점들이 진하게 찍혀 저 조형적인 구성미를 살려 주고 있는 것이다

×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에서 작가가 보여 준 구성기교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세련시켜야 한다.

준엄한 10년

신문경

포성이 울리지 않는 때를
평화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 나날을 전쟁이라 부르리라
우리의 장군님 국방위원회를 책임지신
가장 준엄했던 그 10년세월을

전쟁이었다
밖에서는 원쑤가 총포성 올리며
봉쇄의 포위환을 총칼로만 조였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썩은
기아와 추위의 고통을
원쑤는 총포탄의 살상력보다
더 크게 계산하고 덤벼 들었기에

전쟁이었다
전쟁중에도 가장 처절한 전쟁
신념과 배신이 그렇게 철저히 갈라 지고
배짱과 비겁이 그렇게 명료해 진것은
그 어느 가렬한 전쟁사에도 없었던
바로 이 땅의 준엄한 10년간이었나니

오, 승리 아니면 죽음
그 생사판가리의 최선두에
우리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동지의 야전차는
수천만 대군의 진군소리와 같이
승리의 발동소리로 지축을 울리었나니

지켜 내기만 하였더라면 오늘은 없었으리
공격 또 공격
그 돌격로를 열며 장군님께서
이 땅의 자그마한 오솔길마저

고난속에 마음에 새기시고
사색속에 걸음걸음 익혔나니

저 안변벌과 채령벌에선
전쟁의 폭음을 누르며 옥토를 넓혀 가는
토지정리 기계화군단의 동음소리 높았고
발전소들의 조업식테프가 끊기고
꽃보라가 창공에 휘날리던 그런 순간들에
우리 큰 전투의 또 한차례 승리를 보군 했노라

아,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그 나날에
천만의 가슴에 그리도 친근히
그리고 소중히 자리 잡은 이름이여
우리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

싸움속에 태어나 어느덧 말을 익히며
우리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불러 본 이름
이여

승리라는 말같이
붉은기의 빛갈같이
붉게붉게 마음속에 새긴
김정일 국방위원장동지

세계가 높이 부르고
원쑤들 부르며 전몰하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의 원천
그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10년이여
더더욱 강해 지고 더더욱 순결해 진
우리 혁명대오의 진군길우에
영원히 빛나며 승리를 부르라
천만년 빛나며 축복을 전해 가라

인민대중은 선생

주체64(1975)년 8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 교도통신사 편집국장을 접견해 주시고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회때 그는 우리 나라의 공업, 농업, 광업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문제들을 문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대답을 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해박한 지식에 감복하여 말씀 드렸다.

《주석각하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조예가 전문가들이상으로 깊습니다. 참으로 초인간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것은 오히려 과찬이라고, 자신께서 터득한 모든 지식은 인민대중이 가르쳐 준것이라고 하시면

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언제나 로동자, 농민과 학자들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담화합니다. 인민들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인민대중속에 들어 가면 주관주의를 면할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일부 농업과학자들은 주로 책에 매달려 일을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풍부한 농사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때문에 자신께서는 그들속에 들어가 농사경험도 배우고 좋은 의견들도 듣는다고,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다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면 많은것을 배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나의 선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열

리창식

총 잡은 아들들이 보고 싶으시여
금수산광장우에 수령님은 서계시는가
건군절의 아침 자랑찬 열병대오에
그이는 밝은 미소 보내시누나

받들어 총!

나의 경례도 뜨거움에 젖노라
자나깨나 그림던 그 품에 안기여
병사는 오늘도
수령님의 첫 사열을 만나니

그이이시여라

불 타는 안도의 봄언덕에서
총대의 첫 대오를 사열하신분
청춘도 행복도 혈육의 사랑마저도
혈전의 만리광야에 다 바치시며
빨찌산의 전우들을
운명의 동지로 삼으신분

그이이시여라

전승광장에 축포가 오르던 그날
전우들을 묻은 락동강기슭에
결전의 피가 서린 고지마다에
손 들어 눈물겨운 경의를 보내주신분
영웅들의 넋을 한품에 안아 주신분

얼마나 불같은 위인의 한생이
우리의 승리를 떠맡들어 왔는가
얼마나 뜨거운 위인의 심장과
병사는 피를 나누고
뜻을 나누어 왔는가

그이는 일찌기

결사전의 그 모든 언덕들을
병사들과 함께 다 넘으시였다
병사들과 끝까지 생사운명 같이 할
총대동지가 되시였다

준엄한 날과 날

시련의 고비마다
총대와 함께 빛나는 병사의 삶을
때없이 안아 준 품이여
공격에서 공격으로 천만대오를 이끌어
승리만을 약속해 준 수령님의 사열이여!

격정으로 끓는 그리움의 대하

굽이치는 총대바다우에
태양으로 솟으신 우리 아버지
병사는 오늘도 그이의 사열을 받노라
영웅조선은 영원히
태양의 축복을 받노라!

력사탐구와 책임

안동춘

한개 작품의 창작수기에 《력사탐구와 책임》이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을 붙이니 너무 요란스럽다는 생각이 없지 않다.

하지만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푸른 산악》에 대한 반영과(질문을 포함한) 그 작품 후기에서 채 말하지 못한 력사를 더듬게 되니 이 밖에 달리 할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먼저 지난해 작고한 시인 박호범선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한다.

《푸른 산악》-1211고지는 4.15문학창작단의 한 소설가와 함께 시인 박호범선생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내가 박호범선생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주체42(1953)년 9월부터라고 할수 있고 정식인사를 나누게 된것은 주체66(1977)년 7월 내가 작가동맹 작가로 금방 배치되었을 때였다.

《안동춘이 누군가. 오 동무야, 15사 당 꼬미짜(당위원장) 아들이라면서, 날 모르겠소.》

면도자욱이 푸릿한 불, 한쪽 귀가 이지러진 검테안경, 굵진 주름...

이야기과정에 안경도 《벗겨 지고》 주름살도 《사라져》가며 우스개 많던 하사관-《인민군대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체42(1953)년 9월, 경성군 팔양소학교(당시)에 다니던 내가 가족들과 함께 1211고지점경인 금강군 청두리에 이르렀을 때는 늦은 저녁녘이었다.

3년만에 보게 되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펼쳐 놓을 때 항일혁명투사인 리두익동지(당시 군사부사단장)를 비롯한 여러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찾아 들었는데 그중 한 《아저씨》가 사단정치부 서기였던 박호범선생이었다. 《머리가 크구나.》

나의 호주머니에 건빵토막을 찢어 주고 더벅머리 정수리에 밤알총을 놓던 일만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가 박호범선생을 마지막으로 본것은 두해전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작가강습때였다.

《푸른 산악》이 출판에 넘어 갔다는것을 안 그는 자기가 첫 독자로 되겠다고 하며 이말저말 나누던 과정에 나의 아버지가 사망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무척 나무람을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도 머지 않아 갈것 같다고 하며 먼저 간 《아저씨》들을 추억했다. 그런데 그후 얼마 안 가서 그가 사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줄이야. 후회가 컸다.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한것도 그리고 《푸른 산악》을 일찍 써보이지 못한것도 하나의 가슴 아픈 후회로 되었다. 어언듯 정철의 시조가 생각났다.

량친이 살아 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얼마전에 나는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업해 온 한 일군으로부터 《푸른 산악》을 두번씩이나 읽었다는것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소설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는 말을 듣게 되었다.

지금 전쟁로병들은 하나, 둘 우리결을 떠나가고 있다. 《푸른 산악》창작과정에도 이 작품취재보장을 위해 애 써준 여러명의 전쟁로병들이 세상을 떠났다.

력사! 력사앞에 지닌 작가적책임, 력사앞에서는 누구나 경건해야 한다. 그것은 먼저 간 사람들과 선조들에 대한 레절이기에 앞서 인간적량심이 고 의무이기때문이다. 내가 이 글의 제목을 《력사탐구와 책임》이라고 달게 된것도 그리고 박호범선생과 전쟁로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것도 바로 이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박호범선생에 대해 더 말한다면 전쟁과 전쟁문학에 대한 그의 편달과 조언이 나의 《푸른 산악》창작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것이다. 물론 이 작품의 후기에도 쓴것처럼 《푸른 산악》창작에는 그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참가자들과 력사전문가들의 도움이 컸다. 여기서는 1211고지에서 싸웠던 4.15문학창작단 작가와 작가동맹의 녀류시인도 레외가 아니다.

...문학에서는 전쟁문학이 기본이야. 인류문학사를 봐도 그렇지, 호머의 《일리아드》도 전쟁이 아닌가. 폴쓰또이도 《전쟁과 평화》때문에 폴쓰또인저구 오늘에 와선 더욱 그래.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전쟁은 개인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의 운명의 판가름이거든. 인간학이라는 면에서도 그렇지. 석유키도 《시대의 탄생》에 쓰지 않았나, 전쟁은 인간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라고. 전투장에서 보면 펄본지 천천지 다 드러나, 다! 배속까지 말이야...

...한데 요즘 나오는 전쟁소설들이 신통치 못해. 꾸밀내기가 많아, 꾸밀내기. 전쟁을 겪어 봤다는 작가들도 꾸밀내기니... 똑바로 써야 돼. 똑바로! 한마디로 진실을 진실하게 쓰라는거야...

박호범선생의 이야기를 쥐여 짜면 이것이 골자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나의 군사복무는 1953년 9월부터라는 취율리기다.

일번 자랑으로 들릴 이 말을 나는 4.15문학창

작단의 전쟁로병들에게도 곧잘 하군 한다. 싸움 마당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절반쯤은 전쟁로병이라고.

총을 처음으로 쏜본것은 1953년 9월 말 권총과 자동총을 동시에 쏜보았다.

그곳에는 학교가 없었던지라 당분간은 군인들 속에 휩쓸려 망아지처럼 여기저기 분주스럽게 뛰어 다녔다.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과 저녁은 거의나 군대식당에서였다.

3년 넘게 전호속에 불박혀 있던 《아저씨》들이었던지라 우리 같은 코흘리개들을 보면 제 살붙이처럼 귀여워 했다. 그때 전쟁때 미처 오지 못한 후방물자들까지 밀려 드는 통에 식탁들이 푸짐했다.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보내오는 지원물자까지 있어 평소에는 구경도 못했던 건빵이며 말린 양고기며 통줄임 같은것으로 포식을 했다. 그 뒤끝에는 《아저씨》들의 병실에 가 노래도 불러 주고 지난 날의 전투이야기들을 향아리귀가 되어 듣곤 했다.

1211고지에 올라 본것은 그해 10월로 기억된다. 당시 매봉뒤골짜기에 돌배들이 썩어 넘칠 지경이라는 소문을 듣고 대여섯집되는 군관가족 아주머니들이 떨쳐 나섰던것이다. 돌배소문을 알려 주고 든장질한 《아저씨》들과 함께.

갈 때 주의사항이 많았다. 곳곳에 지뢰원이고 적들의 사격도 있을수 있으니 《아저씨》들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라는 주의사항. 하지만 우리 망아지들에게만은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파일중에 으름일 물크러진 돌배로 배를 채우기 바쁘게 1211고지로 오르자고 때를 썼다. 세명이 선발되었다.(선발이라기 보다 망아지는 셋이었으니까.)

그곳이 어땠는가는 더 쓰려 하지 않는다. 보습털이 일어 설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는것만은 덧붙이고 싶다. 3년 남짓한 그곳에서의 생활은 나에게서 참으로 귀중한 학교였고 현실체험이었다. 매일 매시 보고 듣게 되는것이 전쟁의 가렬함과 준엄성의 흔적이었고 전투장에서 발현된 무훈담들이었다.

당시 우리 집이 있던 사단지휘부 골짜기는 포격과 폭격이 비교적 적게 미친 곳이었으나 한끼분의 장작을 펴 때도 도끼날이 다 무드러질 정도로 나무마다 파편들이 송송히 박혀 있었다. 불발탄과 지뢰 같은것들은 번마다 수집처리를 했었지만 풀숲이나 골짜기들에 들어가면 버섯 찾기보다 더 쉽게 얻어 낼수 있었다. 특히 나비탄들이 많았다. 한번은 몇해 묵은 가랑잎무지속에서 참대로 철한 두툼한 신문묶음을 얻어 내었다. 푸른색 인쇄글에 《유엔》기발 표식이 새겨진 그 신문은 사단지휘부에 바쳤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적측의 실태를 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컸을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문학수업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당시 사단지휘부도서실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다. 《전선문고》, 《영웅전투기》를 비롯한 국내 출판물과 함께 이전 소련소설들이 많았다. 1, 2, 3순서로 발행된 단편소설집과 《지하주당위원회》, 《차빠예브》, 《봇나무》 같은 소설들을 거기서 읽었다. 처음에는 몇 모르고 읽는 흥내를 내다가 점차 재미를 붙여 도서관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인상 깊었던 소설로는 《당원증》이었는데 나의 첫 단편소설의 제목을 《당원》으로 한것도 그 소설에서 받은 인상이 강하게 작용했기때문이다.

이 모든것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문학을 하게 된것은 그때 읽게 된 소설들의 영향이 컸고 문학중에도 전쟁문학에 관심한데는 그곳에서의 체험, 《아저씨》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아저씨》들에게서 받은 감동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진실을, 진실하게!

이 역시 박호범선생의 부탁이자 그들 모든 전쟁참가자들에 대한 경건한 추억과 애뜻한 감정의 작용으로서 나의 창작의 초과제로 되었다. 물론 진실을 진실하게 그린다는것은 전쟁소설만이 아니라 모든 작품창작에 해당되는것이다.

더우기 총서작품창작에서의 진실성보장은 절대적 요구이고 기준이니만치 역사적사실과 진실에 대한 작가적탐구와 책임성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것으로서 총서 《불멸의 역사》중 장편소설 《50년여름》을 쓸 때도 내판의 노력을 다하느라고 했고 이로부터 《전쟁맛》이 난다는 귀맛 좋은 소리도 자주 듣곤 하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러ру한 칭찬들을 통채로 받아 들일수 없었다. 고무나 격려라고 생각하였다.

다음번에는 진짜 전쟁맛이 나게 쓰리라, 이런 결심속에 쓰게 된것이 《푸른 산악》이었다.

이 작품의 초기구상때 나는 세가지에 방점을 찍었다. 그때의 작가수첩에 썼던 글을 그대로 옮기려고 한다.

1. 강철의 령장- 천재적군사전략가로서의 품모와 업적.

작전과 전술을! 이것은 아직까지 적게 취급되었다. 파자!

2. 전쟁을 구체적으로 깊이 파 그릴것!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사건결합의 흥미, 극적구성의 흥미에 치중하지 말자. 사실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게끔 쓰자. 진실! 진실만을!

3. 인간들을 역사성속에서 보여 주자. 개인사, 가족사, 민족사의 건지에서 새 인간의 탄생! 민족성! 민족성은 무엇으로?

먼저 권정웅선생이 즐겨 쓰는 말을 그대로 옮기려고 한다.

《사자가 거느린 양무리와 양이 거느리는 사자들간의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가 사자가 거느린 양무리다.》

쌍방의 정치, 경제, 군사적힘과 사상, 감정, 도

덕적힘의 대결이 전쟁인것이고 이 힘을 조직동원하여 승리에로 이끄는것은 최고령수의 두뇌와 의지, 그 령도력에 달려 있기때문이다.

동서방 가림없이 하나의 보편적진리로 증명된 이 정의는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에서 유감없이 증명되었고 그 과정을 담은 총서작품들과 혁명영화들에서도 예술적으로 재현화인하였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스친것이 많습니다. 문학을 만드는데만 치중한것 같은데 그래선 안되지요.》

이 말은 군사대학 연구사로 있었던 한 전쟁참가자의 말이다 조국해방전쟁사 집필에도 참가한바 있는 그는 전쟁사와 군사예술에도 밝았을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우리 소설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전쟁과 평화》, 《태평양해전》을 비롯한 세계적인 전쟁소설들을 거의나 읽어 본 그는 내가 쓰게 된 《푸른 산악》의 취재대방이자 창작고문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나온 수령형상작품들을 보면 절세의 애국자,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품모와 업적은 충분히 그려 졌지만 천재적군사전략가로서의 활약과 기질은 적게 그려 졌다는것이 그의 불만이었다.

《작전은 련립방정식물보다 더 복잡하고 오묘한 두뇌활동인데 스친단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럴수는 없겠지요. 그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나도 다 모르는것을 작가들이 파고 그리자면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구체적과정을 보여 주어야 아! 하고 감탄하게 될것이 아닙니까.》

주체85(1996)년 광복거리의 추운 방에서 이런 이야기로 밤을 밝힌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나는 그와의 이야기를 통해 첫째 항목, 작전과 전술수립과정을 상세히 그려 보자는 결심이 났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작품의 초보적대와 구성을 세우는데서도 크게 도움을 받았다.

《지금 1211고지전투라고 하면 콩나물이야기와 갯도전밖에 모르는데 거기에만 집착되면 왜소해 집니다. 1211고지전투는 하나의 대전역과 맞먹는 지역작전이고 현대방어전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 준 세계전쟁사의 특기할 방위작전이였습니다.

정치적의미에서 볼 때 주체전법의 정당성과 위용을 확인시킨 력사적인 구획점이고... 제 생각으로 볼 때 우리 식이 완전인정된것은 그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나라 경험 운운이 쑥 움츠러 들었으니까.》

나도 같은 견해였다. 고문서들과 특히 위대한수령님의 로작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1211고지전투는 미군과의 싸움이였을뿐만 아니라 사대주의, 대국주의와의 치렬한 투쟁이였다는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취재와 구상단계를 합치면 통털어 6개월 미만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머리속에 안고 있기는 91년 말부터이니 해수

로는 7년이라고 하는것이 정확할것이다. 물론 이 기간에 《평양의 봉화》와 그밖의 다른 글들을 썼으니 공식통계로는 계산밖이지만.

취재와 자료연구에서는 크게 고충을 겪지 않았다. 1211고지점령에서의 3년간 《체협》과 군사복무년한이 있으니 전쟁물체는 꽤 알고 있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구성단계때 애를 먹었다.

우선 작전전문제를 깊이 파 그리려고 하니 말그대로의 전쟁사-군사예술사가될수 있다는 우려가 난점으로 되었다. 현실물소설들에서 생산기술적문제에 치우치면 인간이 파묻히듯이 전쟁물소설에서도 군사실무적장면이 비대해 지면 인간학의 본도에서 벗어 날수 있는것이다.

물론 적아쌍방의 첨예한 극적대결이니만치 작가의 재량으로 잘만 그리면 인간학으로서의 면모는 살릴수 있지만 전문가들이나 리해할수 있는 군사용어와 복잡다단한 작전문제를 어느 정도 독자들이 소화할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문제로 되었다.

적지 않은 독자들의 경우 리해할수 없거나 흥미가 덜한(이것도 대부분 리해와 관계된다.) 장면들은 스치거나 뛰어 넘는것이 상례이니만치 《재미난다》는 평을 기대하는 작가라고 할 때 이것이 야말로 황색신호등이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풀쓰포이의 《전쟁과 평화》까지 뒤져 보았다. 이 작품은 세계가 공인하는 걸작이라고 하지만 대다수 독자들은 읽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였다. 나 역시 20대까지의 젊은 시절에는 볼끈스키와 나파샤 돌로호브와 피에르의 관계선에만 흥미를 가졌지 대부분 장면들은 건너 뛰며 읽었다.

더우기 《푸른 산악》은 내판에 세운 목표, 작전전술수립으로부터 전쟁과 인간을 사실 그대로 폭 넓고 깊이 있게 그리려는데서 전투과정은 더 말할것 없고 조명탄, 설화탄 등의 세부적소도구에 이르기까지 보여 줘야 되니 극조직과 인간관계설에만 흥미를 가질 독자들에게는 무척 지루하다거나 도중에 덮어 버릴 《위협》도 있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상세히 보여 주자고 하면 원고매수도 그만큼 늘어 나고 노력 또한 정비례품일것이었다.

꼭 그렇게 써야 되겠는가.

동요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기성의 법칙과 비결, 실무적인 장면들은 설명식으로 개괄하거나 묶음식으로 보이고 필요한 문학적장면만을 두드러지게 그리는것, 이렇게 되면 쓰기도 쉽고 부피도 작아지고 인간의 운명선과 극을 따라 가는 독자들에게도 환영을 받을것이었다.

하지만 그 길을 피했다.

우선 《아저씨》들이 막아 나섰고 내판의 작가적 책임성이 허용하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에서 어떤 결과만 강조하고 그 결과를 이룩할 때까지의 체험세계와 심리적굴곡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즉석에서 적적 결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수령의 외적모습만 그려나가려 하여서는 안된다.》

천재적군사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위인상과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운 전사들의 모습을 방불히 보이자면 원래의 결심대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소리일수도 있지만 전쟁을 잘 모를 후세대들도 생각하고 동년배들치고 《53년 9월 입대》생인 나만큼 전쟁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도 했다.

《잘 리해할》수 없거나 《건너 뻔》대목들에 대해서는 리해하지 못할 독자보다 흥미를 가질 독자가 더 많으리라는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이렇다해서 어느 때의 작가들처럼 《내 작품은 고급한 지성인들만이 리해》한다거나 《300년후의 독자들은 리해》할것이라는 식의 오만과 자부까지는 없었다.

먼 과거를 취급한 력사소설들을 볼 때 그 작품들에 나오는 인간들도 인간이지만 세태풍속과 력사적사실여부에 흥미를 가졌던것 역시 고무로 되었다.

그런데 정작 펜을 들고보니 그 황색신호등은 여전히 골치거리로 되어 껌벅거렸다. 불을 안고 랭으로 쓰는것이 창작이라는데 랭으로 돌아 가니 흥분속에 그려 보며 썼던 장면들도 지루할 때가 많았다. 최종 완성때는 더욱 그랬다. 좀 함축할수 없겠는가 하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 3,000매 넘는 원고이니 웅당한 의견이라고 할수 있었다. 하여 가능한껏 뽀고 함축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잘 안되었다. 어떤 부분은 단호히 뽀아 버렸다가도 다시 집어 넣게 되었다.

작품의 첫 시작부분이 그 대표적실례였다. 실재한 사실 그대로 쓴 위대한 수령님의 서기 오영은 오태희할아버지의 손녀이자 오중흥동지의 딸로서 오중흥동지의 조카였다. 그런데 오영은 이 작품권에서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물이니 만치 작품구도에서는 불필요한 인물이었던것이다. 이로부터 오영의 설정은 《50년여름》과 《조선의 힘》의 속편적 성격을 보이기 위해 설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들도 있었다. 물론 그것도 고려된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기본은 이것이 아니였다. 앞에 오중흥일가를 비춤으로써 결사옹위로 사령부를 맡든 우리 식 혈통의 계승성을 암시하여 그 피의 흐름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맥맥히 굽이칠것이라는것과 주요하게는 우리 혁명의 피어린 력사와 그 력사의 진두에서 만났을 해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나의 이러한 의도와 목적이 어느 정도 성사되었는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이 작품구성과 창작완성과정에 제일 큰 고충으로 된것은 김웅을 비롯한 인민군 지휘관들속의 부정인물설정문제였다.

작품에 나오는 박일우, 김웅은 실재한 인물로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물론 전후에도 종파사대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것으로 우리 대렬에서 제거된 자들이였다. 지난 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의 토작과 일부 력사책에만 약간 비취 지다가 사라진 이런 인물들을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빛나는 구획인 1211고지 작품에 취급한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현대성의 원칙, 인식교양적측면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자.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주인공으로 모신 작품에 이런 어지러운 인물들을 설정하면 미감상으로도 불쾌할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는 작품줄거리토론회와 최종완성때에도 심각한 의견으로 제기되었다.

다시 금강군 청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주체 43(1954)년 초부터 개교한 속사인민학교 분교(당시)를 다닐 때의 일이다. 한번은 우리 집에 류경수동지가(당시 군단장) 들렸던적이 있다. 점심식사를 한뒤 류경수동지와 아버지간에 오랜 시간의 이야기가 있었다. 누구도 얼씬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분부가 있었으나 왕별 두알을 단 밭찌산투사가 왔는데야 왜 몰려 서겠는가. 비밀이야기라는것으로 더욱 떠날수 없어 문가에 귀를 대고 들었다. 간간이 중어를 써가며 하는 말들이라 다 알아 들을수는 없었지만 사단장과 참모장이 화제에 올라 있었다. 그뒤 군단군사위원이였던 안영동지(항일혁명투사)는 하루밤 묵고 가기까지 했는데 그때도 비밀이야기가 있었다. 후에 알았지만 그때 사단의 사단장과 참모장은 장개석군의 《탐의사》출신들로서 반당종파분자 김웅의 줄개들이였다. 그들은 전쟁때부터 우리 당을 반역하는 길에 나선 자들로서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는 핵심들을 제거하는 흥모까지 꾸몄다고 한다. 그로 하여 당시 나의 동무의 아버지였던 사단안전부장이 암살되었고 나의 아버지도 그 다음 차례로 암살대상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전후에도 이런 음모군들이 날치는데 조국해방전쟁때에는 어떠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종파들때문에 머리가 희어 졌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어지럽다?!... 어지러운것과 싸워 이겨 온것이 우리 혁명의 피어린 력사가 아닌가. 모든 일군들이 충실하고 깨끗하였다면 어떻게 되어 우리 수령님께서 머리까지 세였다고 하셨겠는가.

인식교양적?... 그때문에 더욱 써야 하는것이다. 우리 혁명은 지난 날도 그랬고 오늘도 앞으로도 변절자, 동요분자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대성 부각?... 모든 일군들이 김책, 오중흥 같았다면 수령님께서 무엇때문에 최전선까지 나

오시고 한개 중대 전투지휘까지 몸소 하셨겠는가. 그런 어지러운 자들의 흉모와 횡방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룩하신것이야말로 진실로 위대성부각이 아니겠는가. 아무런 저항도 고충도 없었다면 보통사령관도 승리를 이룩했을것이다.

이것은 나의 창작《고문》이기도 했던 군사대학 연구사와 그때까지 만난 거의 모든 연구사들과 전쟁사가들의 일치한 주장이기도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211고지 방위작전은 산악방어의 불가항력성을 극복한 현대방어전의 특기할 모범임과 동시에 주체전법을 확립한 구획적인것으로서 종파사대주의자들-《기동전》주창자들과의 투쟁을 뻔다면 역사적진실이 오도될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업적의 한 부분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것이였다.

이로부터 두세명의 《우려》와 《의견》은 거의 모든 작가들과 창작단 책임일꾼들의 부정밀에 《보류》 혹은 《철회》로 끝나게 되였다.

《아니, 이 작품의 핵이 주체전법확립인데 종파사대주의자를 빼놓으면 뭐가 된다는거요?》

《개선》을 쓴 작가(최학수)의 말이 지금도 고맙게 기억된다.

세번째 항목, 《력사성속에서... 개인사, 가족사, 민족사의 견지에서 새 인간의 탄생! 민족성, 민족성은 무엇으로?》 여기서는 날개가 돋쳤다.

인간을 력사성속에서 깊이 파 그리는것은 문학의 본도인데다가 문제는 오래전부터 품들여 생각해 보고 눈 취 보던 기름진 벌이였기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라는 의미에서는 석윤기선생과의 대화를 빼놓을수 없다. 내가 4.15문학창작단에 배치되었을 때 석윤기선생은 《젊은》작가이고 군사물위주로 하는 소설가라는데서 나에게 여러모로 관심을 돌려 주었다.

《매일 뭘하겠소. 장기 배우러 오지.》

이런 식으로 휴식일이나 명절일이면 집에까지 가끔 《초대》하곤 하였는데 장기 《학습》도 학습이거니와 총서창작과 문학에 대한 리해에서 상당한 밑천을 얻게 되였다.

그때 석윤기선생한테는 17세기 무명작가의 원본까지 있었는데 우리 나라 고전문학으로부터 현대 세계문학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의 답론을 펼치곤 하였다. 그중에 력사성속에서 새 인간의 탄생과 민족성을 무엇으로 보며 어떻게 그럴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론의되였다.

그는 《시대의 탄생》에서 력사성속에서의 새로운 민족성의 탄생을 보여 주려 했으나 뜻한만큼 되지 못했다고 하며 나의 작품들(그는 보잘것 없는 나의 단편소설들까지 거의 다 읽었었다.)의 우단점을 분석한 끝에 어떤 소설의 인물들은 이름만 조선사람이지 로씨야나 유럽사람들의 이름을 붙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소설이 될수 있다고 경종을 울려 주었다.

《노벨상을 보라구. 요즘 주는것들을 보면 거의

나 얼치기들이지만 그래도 제 나라, 제 민족의 얼굴이 드러나는걸 주거든.》

솔직한 말로 내가 력사성속에서 민족성을 깊이 생각하게 된것은 그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력사성속에서 민족성을 그린다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의 민족성을 무엇으로 보는가.

이것은 홍명희선생의 《림격정》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작품들을 보면 명백한 답이 나오니만치 더 전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면에서 나는 최근에 나온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와 《력사에 묻다》에서도 좋은 시도와 모범을 찾아보게 된다.

《푸른 산악》에서 나는 최현, 김만산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에게 조선사람다운 체취와 멋을 살리기 위해 무척 애 썼다. 생각끝에 반증인물로서 해야 할 몫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설정된 인물이 송우인이다.(물론 작품의 형상과제에 따라 설정했지만.) 원형도 있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금강군청두리에 가 살 때 그곳 사단의 포병부사단장으로부터 그 비슷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중국에까지 함께 가서 《해방》을 꿈 꾸다가 미국놈들의 개가 되어 주체41(1952)년 말인가 포로된 사람이라고 하였다. 조선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조선사람이기를 그만 둔 송우인, 나는 그의 비극적인명을 통해 력사적으로 끼쳐 온 외세의 영향과 그 영향밑에 잘못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편으로 의거해 오는 그의 동생 송우식을 설정함으로써 송우인이 같은 자는 대하의 거품, 력사의 우연이라는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우연이라고 하면 필연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것이다. 나는 송우인의 소꿉동무들이었던 황영학, 로병관을 그들의 가정력사와 결부시켜 그리는것으로 진짜배기 조선사람이 걸게 되는 력사적필연을 보여 주려고 했다.

인간은 개체로 볼 때 어떤 집안에서 누구의 영향밑에 성장하는가가 자못 중요한것이고 그 민족으로 볼 때 어떤 령도자를 모시는가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작품의 주체사상적요구에도 맞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물들의 설정과 최현, 김만산, 김철국, 마정옥, 장천일 등의 긍정인물들과 김웅, 박일우 같은 부정인물까지 선정하고 보니 구성과 얹음새가 자연스럽게 맞물려 들었다. 형상적과제수행을 위한 《집》도 그췌히 갖춰진 셈이였고 중심주인공으로 모셔 진 위대한 수령님의 견지에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기본갈등대상인 적들과 대내의 어지러운자들과의 투쟁이 《집》이라고 할수 있었다.

력사적사실과 그 본질을 추구하여 찾은 이러한 문제점들과 이야기로 하여 쓰는 과정에서는 이

렇다 할 고충을 겪지 못했다.(읽히겠는가, 이해하겠는가. 이 두가지만 빼면.)

전장풍경과 인간들의 모습은 53년도부터 익혀 둔 것이고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은 넘쳐 날 정도로 많았으니 취사선택이 그중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53년도 소리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 작품에 나오는 마정옥에 대해서는 그때 알게 되었다. 한번은 군대 《아저씨》들과 함께 말회리국수집에 간 적이 있다.(그곳에서 복무한 로병들은 명성 높은 말회리 국수집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오는 도중에 바로 마정옥과 장천일이 《다투고 있던》 대피처에서 잠시 휴식을 하게 되었다.(자동차 라제타에 물을 넣는 동안) 그때 함께 갔던 아저씨들속에서 마정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인물이 어떻다거나, 누군가 집적거리다가 귀찮을 맞았다거나 하는 이야기속에서 그리로 오가던 모든 군인들이 그 아름다운 녀인에게 무척 눈독을 들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그의 과거경력과 장천일과의 관계는 허구의 산물이다.

이 작품이 나온 뒤 독자들속에서 마정옥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장천일과의 관계를 놓고 더욱 흥미를 가진다고 했다. 한 집에서는 그 두사람의 관계를 놓고 《다툼질》까지 했다고 한다. 그 집의 가장인 남편은 일정한 위치에서 사업하는 일군이었는데 장천일의 《실수》(자동차안에서의 《사랑》?)를 놓고 남자란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작가가 아주 진실하게 썼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했고 반대로 그의 부인되는 녀성은 《당신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하고 따지고 들었다는 일, 나로서는 기분 좋게 들은 소리였다.

이 작품을 읽은 독자들속에서는 리수복을 좀 더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전쟁참가자들인 경우엔 한부를 더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리수복에 대해서는 나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사랑스럽게 간직된 리수복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조선청년의 전형이니만치 작품구상단계때부터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품을 기울였으나 쓰는 과정에 제약을 받았다. 정확히 말한다면 작품의 구성생리로 볼 때 그의 자리를 크게 하면 무리가 생기기때문이었다. 또 하나 그를 형상한 여러편의 소설과 영화, 극들이 있는것만큼 중복감을 피하자는 의도도 있었다.

한부를 더 쓰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은 작품 최종완성때도 제기되었다. 부피가 너무 크다는데서 제기된 의견이었지만 나로서는 욕심나는 의견이었다. 2부작으로 하면 인간관계와 운명선들을 보다 생활적으로 깊이 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1211고지전투의 폭과 깊이 역시 더 웅건하고 심원하게 그럴 수 있기때문이었

다. 특히 분량상 단역식으로 등장시킨 인물들까지 앞, 뒤, 좌, 우를 더 파서 그리면 문학작품으로서의 빛깔도 더 뚜렷해 지고 독자들의 이해와 흥미를 끄는데서도 리로울 것이었다.

그러나 한책으로 끝내는 것이 옳다는데서부터 그대로 출판되었다. 다부작인 경우 편거퍼 찍어 내면 별문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얻자고 하는 것의 적잖은 몫을 잃게 되는 것이다. 기억이란 제한이 있으니만큼 편속하여 읽지 못하면 독자도 작품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다. 이렇게 쓰고 보니 지금의 책과 그 두터운 부피에 대한 《변론》으로 되었는데 말이 난김에 짧은 소설과 긴 소설에 대한 나의 소견을 더 밝히려고 한다.

나는 소설습작 초기부터 짧은 소설을 지망해 왔다. 문장도 짧고 내용도 짧으면서도 박력있는 소설을, 특히 정창윤선생의 《포성》을 읽은 다음부터는 그 문제까지 따라 배우려 했다. 길게 쓴 문장과 긴 소설들을 보면 골살부터 찡그렸다. 《조선문학》 편집원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편집부에서는 그런 식의 소설들을 《빨래줄》이라고 했다.

물론 리병수선생의 긴 단편 같은 경우는 제외였다. 얼마나 토색적이고 구수하고 좁과 향기가 물씬 거렸는가.

《빨래줄》에 대한 불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나도 《빨래줄》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많다. 좋게 봐서는 사물과 인간을 평가분석함에 있어서 단순성이 아니라 복잡성속에서 립체적으로 쓴다는 것도 있겠지만 때 이른 《로쇠》와도 관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그럼 왜 로쇠라고 보는가.

우리 속담에 주책머리 없는것중의 하나를 《늙은이 수다스럽다.》라고 한다.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과 늙을수록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점잖아야 한다는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작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젊었을 때는 짧고 생소한 표현을 쓰던 작가들이 일정하게 나이가 들면 긴 《빨래줄》을 쓰는 실례가 적지 않다. 그동안의 풍부한 생활체험과 경험에서 많은 것을 알게 하려는 시도라는 면에서는 좋게 봐야 하겠지만 한두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맥적은 문장으로 자질구레하니 늘어 쓰면 예민한 독자들에게는 지루감을 준다. 또 하나 《로쇠》의 표현으로는 아무런 사색과 미감도 느껴 지지 않는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문장을 놓고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묘사체라고 우기는 경향이다.

그런데는 이와 반대로 《멋》과 《향취》를 그린다 하고 하면서 지나치게 양념과 치레를 일 삼아 보여주려는 표상대신 현란한 문장에만 눈이 동실하게 하는 경향도 있다. 이 역시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나로 말하면 상반되는 두가지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짧았을적에는 《멋》과 《향취》를(아직은 극복하지 못했지만), 오늘에는 《빨래줄》을, 이때문에 나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쓴후에도 무척 그에 신경을 쓴다. 이때문인지 몇몇 작품들에 한해서는 고무적인 평가도 들었다. 실례로 단편소설 《영원》을 어느 한 대학강좌에서 문장의 음악성을 놓고 강의가 있었고 《언약》과 《50년 여름》의 일부 장면은 배우들의 화술연습무대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 봐준 장점을 계속 살려 내지 못하는것이 나의 실체다. 그만큼 더 노력하고 배워야 할것이다.

여기서 짧은 소설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한다면 좋은 점도 많지만 반대로 그자체에 현혹되면 괜한 멋부림과 형식에 취중하게 된다는것과 괜찮게 썼다는 경우에도 광긋하는 불꽃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것이다. 물론 전부 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으나 우리 나라 단편소설들도 그렇고 세계적인 단편소설들을 봐도 짧은 단편소설로 이름떨친 작품은 불과 몇편 안된다. 이런 소릴 체호브나 오 헨리가 들으면 몹시 섭섭해 하겠지만 그들의 짧은 단편도 인간과 사회의 어느 한 측면을 순간조명으로 날카롭게 비춘것이지 인간과 사회 전체를 깊이 숙고할만 한 작품은 별로 없다. 체호브의 경우 가장 예리하고 깊이 있게 사회악을 파헤친 소설을 《6호병실》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그 소설은 짧은 단편이 아니라 긴 단편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빨래줄》편이 되는데 내가 말하자는건 길게 쓰겠다 짧게 쓰겠다가 기본이 아니라는것이다. 물론 짧게! 이건 모든 작가들이 바라는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짧으나 기나 여기에만 치중하면 형식미에 빠져 든다는데 있다.

부피나 길이를 먼저 생각할것이 아니라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얼마만큼 진실하게 깊이 있게 그리는가,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문제이지만 최근에 나온 일부 장중편소설들에서 《짧은것》과 《형식미》에 치중한 경향들을 찾아 보게 된 때문이다.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 주인공의 투쟁사와 그들의 모습은 별로 찾아 볼것이 없고 흥미본위적인 극작술로 묘한 인간관계를 설정해 놓고 좌우앞뒤 돌아 보지 않고 종점으로 돌진해 가는 작품들이 있는데 동실한 얼굴을 길죽하게 그렸다면 하나의 세부적 비진실로 끝나겠지만 주인공의 기본활동과 형상을 보여 주지 못하였을 때는 몸의 한부분을 떼여 놓은것과 같다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분량도 짧고 재간도 보이는 작품이지만 읽기도 힘들고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뭔가 속히운듯 한 기분에 빠져 든다. 이건 나만 아니라 우리 독자

들자체의 불만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된 원인을 단순히 작가적재능과 기량부족으로만 볼수 없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는 귀중한 모범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그 작품을 보면 력사와 문학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시대앞에 지닌 작가적책임을 글줄마다에서 느끼게 된다.

그럼 《빨래줄》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이것은 《푸른 산악》에서도 그랬지만 새로운 작품을 쓰는 지금에 와서도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푸른 산악》때는 한웅빈동무의 방조까지 받았다. 한웅빈동무는 길지도 짧지도 않는 단편소설창작의 명수로서 이전부터 나는 그에게서 많은것을 배웠다. 불필요한것은 빼고 있어야 할것은 꼭 넣는... 한웅빈동무의 소설을 보면 어느 한 단어가 빠지거나 더 들어가도 균형이 파괴될 정도로 정교하다. 하긴 정교에 앞서 그 정서적색갈과 여운을 첫째 가는 장점으로 봐야 하겠지만.

아쉽게도 《푸른 산악》에 대한 한웅빈동무의 참빛질에서는 별반 걸려 드는것이 없었다. 그가 왕년의 패기와 정열로 보다 끈지게 달라 붙었다면 짚오래기들이 많이 나오는 대신 금싸래기들이 몇개 들어 갈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도 《빨래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런데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뉘다. 나로서는 《움틀》까지 고려하고 사계를 맞춘 문장이기에.

문제는 시작할 때 호홉률과 속도까지 생각하며 쓰는것이다. 그러자면 적중한 표현과 단어를 선택하여 짧게 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근면과 인내성이 부족하다. 구실은 있다. 문장에 빠지면 하려는 말들을 잊게 된다고...

이러한 나의 식 위안은 구성작업에서도 나타난다. 훌륭한 작가들의 경험을 보면 구체적인 장면과 세부까지 선택한 다음 쓴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일련의 또 다른 훌륭한 작가들의 방식, 종자를 쥐고 굵을 잡은 다음 주인공들이 하자는대로 움직인다는 식을 본 판 셈이다. 이런 자승자박의 《도식》에서는 피할수 있지만 반복작업을 많이 하는 약점이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작가들에게는 선군시대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혁명의 빛나는 력사를 더 훌륭히, 더 참답게 써야 할 절대적 임무가 지워져 있다. 그만큼 우리 작가들의 책임과 사명을 더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현실과 력사에 대한 책임, 붓대의 중요성과 힘을 새겨 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겠다는 맹세로 펜을 놓는다.

기슭

로정법

1

배의 량쪽에서 줄기차게 따라 오며 갇은 재롱을 다 부려 보이던 굽등어무리가 갑자기 발사된 어뢰들처럼 쏘-하고 물이랑을 일구며 앞으로 빠져 나갔다.

또한 물보라속에 번들거리던 검은 등때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자 주명학은 그 《윤패한 길동무들》한테 던져 주던 고기점들을 그릇채로 바다물에 내버리고 나서 지나온 뒤쪽 하늘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은 여전히 높아 보이고 바다 역시 찬란히 내려 쏘는 해빛을 받아 맑은 남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나 주명학의 마음은 개운치가 않았다.

《종질 않군.》

필경 뒤쪽 날씨가 나빠 지리라는 예감에 주명학의 살집이 좋은 불깃한 얼굴이 금시에 시무룩해 지었다.

날씨가 나빠 지면 배사람들의 성격도 달라 진다고 하는 말은 꿈과 같은 이 사나이한테 적중한 말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는 날씨에 따라 제일 큰 소리로 웃을수도 거칠고 사나와 질수도 있는 배군이였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젠장.》

주명학은 자기 선실로 들어가 길게 누워 버렸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궁깃거리다 인차 꿈속에 빠져 들었다.

...환영 나온 사람들로 꽃물결을 이룬 부두가였다.

조학실당비서가 자기한테 꽃목걸이를 걸어 주며 처가 지금 본가에 가서 몸을 풀었으니 어서 가보라고 하였다. 그가 내준 승용차를 타고 우선 꽃방에 들려 안해가 제일 사랑하는 백합 한송이를 사들었다. 그런데 처가에 가보니 자기가 믿고 있던 해군장령감이 아니라 계집애였다.

너무 서운해서 《장모, 아들을 내놓는다. 병원에서 분명 바뀐것 같은데.》하다가 깨어 났다.

날씨가 나빠 지리니까 꿈도 참 재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번에도 또 치마를 입고 나오려는 모양인데...》

그러자 떠나올 때 안해가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불탄을 터뜨리던 광경이 떠올랐다.

자기는 향차를 떠나는 길이었고 안해는 입원준비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당신은 제가 아이를 돌씩이나 낳는 동안 언제 한번 제결에 쳐서 준적이 있어요. 그저 향차, 향차, 바다, 바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병원까지 내려주겠다는 자기를 매정스레 거절하고 울면서 뺄스에 오르던 안해였다.

주명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 나 앉았다.

살집이 좋은 등실한 얼굴이 불깃해 가지고 혼자 두덜거리며 조타실로 올라 가니 웬걸, 선장 박충길이 벌써 당직항해사를 밀어 내고 제 자리에 틀고 앉았는데 선원들이 여기저기 걸터 앉거나 선채로 담배들을 태우며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바람새를 두고 걱정하고 있었다.

이 항해길에서 선원들이 제일 꺼리는 크고 검질긴 북동풍이 내불기 시작한것이였다.

조타실 뒤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통신실에서 설사이없이 뽁뽁거리는 소리가 날카로와 진 선원들의 신경을 더 자극하였다.

무전수는 지금 조국에다 배의 위치를 알리고 있다.

《두루봉-1호》는 선원들이 제일 기분 나빠 하는 해구를 지나는 중이였다.

제 나라 기슭을 옆에 끼고서 빠르고 안전하게 갈수 있는 좋은 배길을 두고서도 바람 사나운 먼 바다로 예돌아야 하는 통분함, 이제라도 서두르면 가대일수 있는 섬도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섬 역시 자기들이 가서는 안되고 풍파에 할수 없이 밀려 가서도 안되는,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였다.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뒤설레기 시작하는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던 크고 작은 배들이 서둘러 배머리들을 돌리고 있었다.

모두 시무룩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관실에서 기관장 안영철의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올라 왔다.

《선장동무, 바람새가 어떻습니까? 배밑창만 지키고 있다가나니 이거...》

《글쎄말입니다. 기관상태는 어떻습니까?》

기관장의 대답을 대신해 주듯 힘차게 돌아 가는 기계소리가 확성기의 진동판을 기분 좋게 울렸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기관장동무, 기관만 별일 없다면야 뚫게 되겠지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앞에서 가던 <바다사나이>호가 배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피하려는것 같습니다.》

그 배는 외국의 항구에서 같이 길동무해서 떠난 다른 나라의 화물선이었다.

《두루봉-1호》보다 덩치가 어방없이 큰 배가 얼마 앞에서 배머리를 돌리며 길게 고동을 울리고 있었다.

듣고 있기가 참으로 피로운 고동소리였다.

선원들은 자기들한테 보내오는 그 고동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먼 바다길을 같이

오며 서로가 마음속으로 의지하던 길동무를 풍파속에다 혼자 버려 두고 간다는 같은 배사람으로서의 미안스러움도 크지 않은 강토에 사는 한민족이 겪는 참을수 없는 비극을 두고 개탄하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고보면 저 외국선원들한테는

《두루봉-1호》가 60년가까이 외세에 강요 당한 민족불행의 상징, 산 표적물이 되어 버린셈이었다. 그 고동소리를 듣고 있는 선원들모두가 지금 피할수도 감출수도 없는 찢어 진 강토의 바로 찢어 진 그 상처자리에 자기들이 서 있으며 민족의 슬픔이라 칭하는 의미가 범적인것이기전에 내가 직접 겪어야 하는 고통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었다.

아, 언제면 통일이 올가.

《바다사나이》호는 뿔뿔히 파도속에 점으로 되어 사라지며 다시한번 고동을 보내여 왔다.

길게 끄는 그 구슬픈 여운마저도 파도소리가 삼켜 버리고 마스트에 내려 앉아 가가저리던 갈매기들마저 제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 가버리자 이제는 이 어둑어둑해 오는 날바다에 자기들 혼자뿐이라는 외로움이 주명학의 온몸을 싸늘하게 훑어 내렸다.

폭풍속에 들었을 때보다도 피할 길 없는 폭풍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각이 선원들한테는 제일 불안하고 지루하고 피로운 시간이었다.

《자, 공연히 모여서 서성거리지 말고 근무성원들만 내놓고는 시간이 있을 때 모두 선실로 가서 쉬도록 하오. 힘들을 아꼈다가 한탕 겪어야 할것 같소. 이제는 주패를 칠 흥도 나지 않을거고 소설책도 눈에 들어 오지 않겠으니 식당에 내려가 적당하게 한고뿌씩 하고 잠들이나 청해 보시오.》

날씨가 이쯤 되면 그 어떤 말로도 선원들을 위로 할수 없다는것을 알고있는 선장 박충길이 현현하게 웃으며 하는 말이었다.

불안을 눌러 버리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어서

피할수 없는 폭풍속에 뛰여 드는것뿐이었다.

폭풍에 삼키우느냐, 뚫고 나가느냐 하는 때에 이르면 불안도 지어는 멀미까지도 깨끗이 사라져 버리고 선원들이 한덩어리로 뭉쳐 진다.

그러고보면 결국 불안을 몰아 오는것도 폭풍이요, 멀미까지 말끔히 쓸어 가지고 가버리는것도 역시 폭풍이라고 할수 있었다.

《아니, 한고뿌씩 하라는데도 왜들 이렇게 서있소? 명학동무.》

《왜 선장동무까지 나보구 못 살게 구는거요?》

주명학이 얼굴이 수수떡처럼 되어 역증을 썼다.

《또 또...》

이 곱 같은 사나이의 가슴에서 일기 시작한 파도를 눌러 앉히듯 박충길이 웃었다.

이때 화성기에서

《오늘은 왜 이렇게 꾸물거립니까. 선장동지, 특식입니다. 빨리들 내려 보내십시오.》하는 요리사 김봉일의 노래하는듯 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특식을 준비시켰소? 어느새 벌써?》

고마운 생각이 앞서 박충길이 사무장 김철호를 바라보는데 철호 역시 의외인 모양 《아니, 난 그런 지시를 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계획은...》 하다가 《이 사람이 이거-》하며 식당으로 먼저 내려 갔다.

5분도 안되어 이번에는 행동거지가 침착한 김철호의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올라 왔다.

《사실이군요. 선장동지, 소고기에 생낙지를 결들인 불고기입니다. 빨리들 내려 보내십시오. 고기점에 시퍼런 불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구만. 그냥 불게 좀 내버려 두구려. 우리 동무들의 성미에 시퍼런 불길채로 몇점 삼켜야 먹었다고 할테니까. 그래야 속에서도 불이 달리지 않겠소. 다만 좀 유감스리운건 요리사동무가 사무장의 지시도 반질 않고 계획에 없던 불고기판을 제멋대로 올려 놓은건데 하여간 말끔히 먹어 주고 나서 총화는 총화대로 해야겠소.》

박충길이 만족해서 웃으며 선원들을 돌려 보았다.

《래일 아침의것을 오늘 저녁으로 한끼 당겨놓았을뿐이니까 뭐 따로 총화 지을건 없을것 같습니다. 우리 요리사동무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그래서 하는 말이요. 이왕 이렇게 된바에는 오늘 저녁도 잘 먹고 래일 아침엔 좀 더 잘 먹어 봅시다. 오늘 밤 한탕 겪고 나면 입맛들이 돌테니까 그렇게 계획해 보시오. 사무장동무가 직접...》

《알겠습니다.》

철호도 기분이 좋아서 크게 웃었다.

《여, 봉일이.》

《김봉일이 듣습니다.》

여전히 노래하는듯 한 목소리였다.

《내 고맙다는 인사를 지금은 아꼈다가 조국의 기슭에다 배를 대놓구서 하지. 그런데 이보라구. 지금 명학이가 또 풀떠덕풀떠덕 하기 시작했네.》

《또 일기 시작했구만요. 명학이, 동무한텐 오늘 없다.》

《이 사람이 형님한테...》

그제서야 명학이 병긋 웃으며 제가 먼저 식당으로 뛰어 내려 갔다. 그뒤로 선원들이 하하 웃으며 따라 내려들 갔다.

박충길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마음이 안정되고 침착해 짐을 느끼었다.

선원들을 믿는데서 오는 안정감이었다. 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들, 폭풍과 싸울 때의 배사람들처럼 몸도 마음도 하나로 뭉쳐 지는 데가 또 있을가.

마치 폭풍속을 뚫고 나온듯 한 기분, 어디 한 번 맞다들어 보자는 배심, 이제는 외로움도 덜어지고 앞길이 크게 두렵지도 않았다.

이따금 파도에 밀려 자기 침로에서 벗어 나는 배머리를 바로 잡아 놓으며 박충길은 이제 가당게 될 기슭을 생각하였다.

2

기슭이란 무엇이던가.

갈매기처럼 바다를 떠나서는 살수가 없는 자기들이면서도 막상 부두를 뜰 때에는 바로 떠나는 그 시각부터 기슭을 그리워 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눈에 담고 가는 것이다.

먼발치로라도 기슭을 보며 갈 때에는 마음이 한결 든든하다.

사방 어디를 둘러 보나 하늘과 맞붙은 수평선 뿐인 광대무변한 바다.

눈안에 들어 오는 하늘의 넓이이자 바다의 넓이이고 위압하듯 격랑이 되어 밀려 오며 성이 난 황소처럼 거칠게 내지르는 파도소리가 늘 들던 소리인데도 귀에 설게 들리는 날바다복판.

여기서는 하늘보다 바다가 더 깊어 보인다.

하늘은 바다처럼 뒤설레지 않기때문이다. 그래서 연하고 투명한 푸른 공간으로 배치럼 요동하지 않고 유유히 날아 가는 비행기가 더 안전할것 같이 생각 된다.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전속으로 파도를 가르면서 이국의 항구로 가고 있는 《두루봉-1호》가 가는지 마는지 광막한 바다우에서 파도가 하자는 대로 흥떡이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

적도 경계도 의지할데도 없는 여기서는 하늘에서 주먹만 한 검은 돌처럼 내려다 보이는 그 《점》만이 나한텐 두고 온 처자들과 내가 사는 해안동네거리와 나아가서는 조국에 대해 상기시키고 생각케 해준다.

조국에서 떨어 저 나오는 한덩어리의 이 살점을 부두에 나와 서서 바래여 주고 바래여 주는 바로 그때부터 기다려 주는 정든 사람들이 물길만리, 풍파 만리길을 걱정어린 눈빛으로 따라 오고 불빛이 되어 앞서 가면서 캔스레 성을 내고 트집을 걸어 오는 파도의 잔등을 툭-툭 두드려 느슨한 황소처럼 잠 재워 준다.

선원들이 의지하는 마음의 기슭이다.

거기에는 들놀이를 가자고 젊은 안해와 약속을 해둔 푸른 술술이 설레고 학부형회의에 꼭 아버지가 와달라고 딸에한테 쥐여 보낸 처녀선생의 편지가 펼쳐 진대로 놓여 있다.

바로 그 기슭에는 떠나오며 자기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두고 온 당위원회가 있다.

3층창턱까지 담쟁이넝쿨이 바라올라 여름에는 푸르게, 가을에는 노랑고 빨간 단풍속에 묻히는 자기들의 큰집이...

부두에서 관리국당위원회청사까지는 10리길이 거의 되지만 이번에 떠나올 때도 그들은 걸어서 갔었다. 물에서보다 항해길에서 보내는 날이 더 많고 이제는 몸가짐조차도 기우뚱거리는 배우에 서가 더 자연스러워 지는 그들이어서 걷는것 그 자체가 그대로 즐거움이였다. 지어는 행운으로 여겼던적까지 있었다.

...기관이 과연 살아 날수 있을까 ...어서 기슭에 닿아 땅을 밟아 보았으면... 그러면 마중 나온 차도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가리라.

밟으면 밟을수록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 보리라.

선장 박충길이 선원들과 함께 당위원회로 들어서니 얼굴에 거짓표정을 모르는 조학실이 조용하고 안정감을 주는 침착한 걸음으로 마주 나왔다.

《이제 들 오는구만요. 동무들을 만나본지도 오래고 100항차를 떠나는 동무들한테 내 손으로 차라도 한고뿌씩 권하고 싶어서 모두 오라고 했으니 리해하여 주세요.》

어머니벌이 되는 비서한테서 박충길이 제일 좋게 받는 인상은 지금처럼 그의 체취로 풍겨 나오는 안정감이였다.

대학교수로, 도서관 관장으로, 다시 당간부학교를 거쳐 60나이를 앞에 둔 오늘까지 관리국 당비서로 일해 오면서 몸에 인정과 지성과 수련이 앙금으로 두텁게 가라앉아 그의 인격을 이룬듯 싶

은 그 안정감이야말로 배사람들인 자기네가 제일 필요로 하는것이어서 그와 마주 설 때마다 박충길은 《오, 나는 지금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믿음직하고 부드러운 땅위에 서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비서는 문안으로 조심스레 들어 서면서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태반이 40대에 갓 들어 선 건강하고 체격들이 그쫘한 선원 한사람한사람을 은근하고 주의깊은 눈길로(상대방은 느낄사이가 없이) 맞아 들이고 나서 원탁으로 걸어 갔다. 거기에는 방금전에 가져다 놓은듯 싶은 큼직한 차주전자가 보이는데 바로 그 주전자가 입이 무거운 이 방의 주인을 대신해서 《반가와요, 반가와요.》 하듯 뚜껑을 풀썩썩풀썩 들어다 놓으며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다.

《선장동무, 우리가 저 배를 받아 온것이 94년 도지요?》

차주전자를 들고 오며 조학실이 묻는 말.

《예, 국상을 당한후에 인차.》

《생각나요. 잇을수가 없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첫항차를 떠나던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0항차란 말이지요. 그동안 동무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우리 인민들의 살림에 큰 보탬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항차를 갔다 오면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를 드리자고 해요.》

《장군님께 말입니까?》

격동으로 웅성거리는 선원들한테 돌아 가며 차를 부어 주고 난 조학실이 자기 차간에도 하나 따라 가지고 걸상에 가앉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동무들을 더 만나고 싶었어요. 18시에 출항하지요? 그러니 빠른 가족들은 벌써 부두에 나오기 시작했겠거만요. 아이들도 이제는 공부 가 끝날 때가 되었으니 다 데리고 나올수 있을거구... 선장동무, 부두를 뜰 때면 서운하지요?》

《예, 사실 조국의 기슭을 떠날 때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떠나면서부터 돌아 올 생각을 하게 되지요.》

《웁아요. 그래서 조국이 아니겠나요. 떠날 때마다 가족들, 종업원들이 모두 나와서 동무들을 배에 주는것도 그래서지요. 그런데 기관장동무.》

조학실은 배에서 나이가 많은 단 한사람인 기관장 안영철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늘 조용하고 침착한것 같으면서도 순간에 상대방을 웃길줄도 노하게 할줄도 아는 떠보는듯 한 어조로

《내 귀에 들려 오기는 집의 부인이 떠날 때도 그래, 돌아 올 때도 그래, 부두에 한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면데 원, 그럴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비서동지, 하나처럼 꽃과 같은 색시들판에 다 파먹고 난 김치독 같은 늙은이가 끼워선 뭘하겠습니까. 거치장스레...》

나살이나 건사한게 아직두 앓을 자리 설 자리도 모르구 멋없이 논다구 젊은것들한테 시비나 듣기 쉽지요. 나루개녀인들의 입심이 어떻다는거야 비서동지도 잘 알지 않습니까. 로친이 배려주지 않아도 난 이렇게 잘만 갔다 옵니다.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해보지요. 죽나.》

한마디 하고나서 안영철이 차잔의 뜨거운 김을 훌훌 불었다. 그러면서 선장 박충길의 눈치를 슬쩍 훑쳐 보았다.

남자치고는 곱살하게 느껴 지는 동그스름한 얼굴에 예지롭게 빛나는 정기 있는 박충길의 눈동자가 새물새물 웃기 시작하였다.

박충길은 약간 갈린듯 한 목소리로 시를 읊듯 《부두를 떠난 배가 마지막고동을 보내며 고말산을 끼고 돌 때면 바다쪽으로 변한 산중턱에 은근하고 고상해 보이는 검자주빛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 녀인이 나와 서 있는걸 보게 됩니다.》 하고 말머리를 뺐다.

《그 녀인의 뒤로 동산에 자리 잡은 그의 집이 그림처럼 먼발치로 보이지요.》

나는 맨 처음 이 겨울에 웬 진달래가 피었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망원경을 들었는데... 하하, 겨울에 핀 진달래가 분명하더군요.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동무도 그무렵엔 갑판으로 올라 오지요. 그리고는 동산쪽을 향해 기지개를 켜니다. 그게 기만동작인줄은 모르고 늘 수고가 많은 분이니 지난 밤에도 잠을 설친 모양이구나 하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꽃동산이 화답하지요. 돌아 올 때도 녀인은 그 자리에 나와서 있습니다. 먼 발치로 부두가 보일 때부터 모두가 갑판에 나와 서서 서로 망원경을 뺏아 드는데 이럴 때면 당직기관수동무들이 제일 안달이나하지요.

<선장동지, 기슭이 보입니까?>

<보이오.>

<고말산이 보입니까?>

<보이오. 가을인데도 여적 진달래가 피 있구만. 어서 교대로 한사람씩 올라 와 꽃구경을 하시오. 기관장동지부터 어서.>

떠나갈 때도 돌아 올 때도 부두가의 넓은 무대는 우리 젊은것들한테 내어 주고 나이 많은 부부는 이렇게 점잖고 격이 높게 배려우고 배려움을 받습니다.

당비서동지, 두고 보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 칠보산에 있는것과 꼭 같은 <고말산부부바위>가 생겨 날것이고 시인들이 찾아 와 노래를 짓게 될것

입니다.

응심 깊은 사랑을 후세에 전하고자 말입니다.》
조학실이 웃으며 박수를 보내오자 모두 왈작
따라 쳤다.

《또.》

흡족해 진 조학실이 선원들을 둘러 보았다.

《명학동무가 좀 말해 봐요. 동문 집에서 아이
들이 울면 계집애들이 시끄럽게 군다고 큰소리를
친다면서요. 아들이면 안 그럴가요?》

그말에 주명학은 얼굴이 불깃해서 웃기만 하였
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부인이 동무 보기가 얼
마나 미안했으면 바래주려 나와서두 사람들속에
섞이지 못하고 피할데만 찾겠어요. 험한 배길올
가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다 잘 갔다 오시라는 인
사 하나 맘 놓고 못하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주명학은 부한 몸집에서 우러나는 석씩하고 웅
근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 녀자가 딸만 낳는 재간밖에 없는줄만 알았
다면 이쪽 녀자와 하는건데...》

그러면서 명학은 불깃불깃 혈색이 좋은 얼굴에
비죽이 웃음을 띠었다.

《그런 녀자가 있었지요. 물에 빠져 다 죽게 된
걸 건져 주었는데 그 집 령감님이 사발에다 술을
쿨럭쿨럭 부어 주며 <이건 하늘이 맺어 준 연분
이니 내 딸을 진사하겠다는 의미로 꼭 내게나.>
합디다. <아니, 난 이 술은 마셔두 그 집 딸은 건
사 못하겠습다.> 했지요. 그후에 지금 녀자를 만
났는데 반정신이 나가서 따라 다녔습디다.

팔경대농장에 모내기지원을 갔댔지요. 몸이 너
무 나서 허리를 굽혀야 모를 낚지 않겠습니까.

수렁에 빠진 곰 한가지로 응기적거리는데 물축
새 같은 처녀가 내옆에 와 서더니 정말 벼알을
조아 먹는 새의 부리처럼... <하, 요걸 그저.>

<동문 꼭 물축새 같구만. 난 팔씨름경기에서 7
개 중대를 물리쳤구 군단력기경기 90키로그램이
상급에서 3등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주명학이
라고 하오. 50미터밖에서 조난선에 편결삭의 방
망이를 날려 보내서 사람들을 놀래운적도 있소.

50미터가 적은것 같지만 파도에 산갈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배머리에 서서 그걸 던진다고 생각
해 보오.

처음엔 실패했구 두번째로 던졌는데 방망이에
달린 줄이 조난선 마스트의 전기줄에 가 걸리더
구만. 난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력기경기에서도 3등이 아니라 1등
을 했다고 했을거구...

제대후 해양대학을 나와 지금은 <두루봉-1호>

의 감판원이요....

난 동무를 내 색시로 삼겠소. 이것 역시 거짓
말이 아니요. 난 삼겠다면 삼소. 난 바다성미를
앓아서 맞갖지 않으면 파도처럼 덮쳐 버리요.>

기절초풍해서 나가 넘어 지려는 처녀를 노래하
는 파도처럼 슬쩍 이렇게 했지요.》

《하하, 저런 녀석 봤나.》

조학실은 기분이 좋아서 한참 즐겁게 웃었다.

《한동안 애를 먹이더니 응해 줍디다. 그래서
결국 잔치를 했는데 에이, 그만하겠습니까. 그 다
음부턴 시시해서...》

주명학은 한손을 책 내려 그으며 그 자리에 틀
서덕 앉아 버렸다.

하지만 인차 다시 일어 나 아까보다는 껍 가라
앉은 음성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에다 력점
을 콧 찍었다.

《집에 있을 때는 사실 나를 앓아서 곱지도 않
은 딸들이 울기까지 하면 시끄러워 큰소리를 치
다가도 막상 난바다에 나서면 그것들이 보고 싶
습디다. 처한데도 안된 생각이 들구. 그래서 가끔
이번에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 갈 때에는 먼저
꽃방에부터 들려 우리 그 사람이 제일 좋아 하는
백합 한송이를 꼭 사들고 가리라 하는 생각을
하군 합디다마는 아직 한번도...》

《그것 보세요.》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가와 불시에 눈물이 나오
는것이여서 조학실은 얼른 창문쪽으로 시선을 돌
리며 아까처럼 천천히 박수를 쳐주었다.

이윽해서야 주명학을 다시 보며 머리를 끄덕이
였다.

《이번 향차에 돌아 와서는 꼭 그렇게 하세요.
밤에 입항할것 같으면 내가 미리 한송이 사다 들
테니까요. 자 또 누구 재미난 말을 해봐요. 이번
엔 <태박사>가 좀 말해 보세요. 성은 선장동무처
럼 박가인데 왜 <태박사>라고들 해요?》

《태박사》로 불리운 얼굴이 너부죽한 기관수가
비즈름히 웃으며 일어 섰다.

그는 력사, 지리, 과학문화 등 사회생활의 전반
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간혹 엉터리 없는데도 있
어 동무들을 웃기기도 하지만) 가지고 론쟁하기
를 즐기는 다변가이고 열정적인 독서가였다.

그는 자기한테 무슨 문제든 물어 보는것을 좋
아 했는데 그럴 때면 담배까지 권해 가며 친절하
고도 곰살궂게 설명해 주는것이였다.

《태가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생김새도 그
렇고 박동무처럼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좋아 했답니다.》

주명학의 말이였다.

《그래서 <태박사>로 되었구만요.》

조학실은 어이가 없는지 한참 웃었다. 그리고는 책장을 열고 미리 준비해 놓았던 여러권의 각종 도서들과 새 영화를 수록한 록화테프들을 꺼내 놓았다.

《항차길에 나서면 책 읽을 시간이 많지요? 그래서 열심히 읽는다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난 교편두 잡았됐구 지금은 당사업을 하지만 제일 그리워 지는게 도서관 관장을 하던 때예요. 그때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도 있을까 하구 생각했더랬어요. 그때 얻은 지식이 큰밑천이 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선장동무를 좀 보세요. 늘 공부를 하니까 외국어를 또 하나 떼질 않았나요. 그러니 불권스레 통역원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조학실은 부두까지 따라 나와 그들을 배려주었다. 배에 오르는 선원들에게 그는 다시한번 100항차를 성과적으로 하고 와서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고 당부하였다.

3

주명학은 기분이 좋아서 선실로 들어 왔다.

처음 먹는것도 아닌 불고기 몇점에 대장부의 기분이 이렇게 달라 지는걸가.

《우리 요리사동무가 생각이 깊거든. 제 색시보다 체통이 작아 가지구서두 집에서는 세대주랍시구 앉아서 상을 받는 량반인데 배에 나와서는 제 받던 대접을 고스란히 우리한테 옮겨 놓는단 말이거든.》

주명학은 먼저 들어 와 잠이 든듯 싶은 《태박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옷을 벗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늑자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옷을 도로 주어 입고 신발만을 벗어 놓았다.

근무교대를 하자면 몇시간 잘 잠수가 있었다.

생각도 많고 걱정이 큰 이럴 때는 잠보다도 팔뚝에 불끈불끈 힘살이 이는 일감을 하나 잡고 늘어지면 더 좋으려마는 지금은 할 일도 또 누구를 도울 일도 없었다.

선장이 직접 타를 잡았고 기관장 역시 교대가 없이 당직기관수들과 기관을 지키고 있었다. 갑판장 또한 갑판에서 서성거리는 갑판원들을 자기 선실로 쫓아 버리었다.

그게 옳은 처사라는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 가는 법이니 까 복잡스레 선장곁에 가서서 우물거려도 안되는 일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도 해염을 칠줄 몰라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처럼 조라실에

모여 서서 서성거릴 필요도 없었으니 배에 별다른 사고가 없는한 자기들은 선장이 하라는대로 힘을 아끼면서 자기 교대시간까지 《꿈만 잘 꾸면》되었다.

배에 고장만 없다면 대체로 조난이 없다고 하는 선장의 기술을 주명학은 믿었다.

파도에 맞서 싸우는 그의 배짱과 결단성을 믿었다.

인간이 가진 그 지혜-기술과 배짱, 결단성조차도 어쩔수 없는 순간에 매번 자기들을 돕곤 하는 우연을 믿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웠으나 주명학은 잠들수가 없었다.

보채는 배가 좀처럼 자게 굴지 않았다.

멀기는 점점 더 크고 더 잦은 주기로 배의 배전을 들이치고 있었다.

배가 하자는 대로 침대우에서 이리 굴리우고 저리 굴리우던 주명학은 종내 잠을 청하지 못하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옆침대에서 벌써 깊은 잠에 빠져 떨어진 《태박사》를 부러웁게 바라보았다.

이 친구는 걱정도 없는가. 체통은 나보다 작아도 담은 크거든...

하긴 그가 자기보다 먼저 잠에 든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둘사이에는 《코를 골지 않는 내가 먼저 누워 잠이 든 다음에야 네가 조심조심 잠자리에 눕는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때의 약속이었다.

지금처럼 사람의 정신까지 휘휘 잡아 돌리며 좌우상하로 미친듯이 날뛰는 이런 배우에서 꿈을 하지 않고 자고 있는것이 놀랍게도 이상스럽게도 생각되어 주명학은 그가 정말 자기나 자는지 해서 얼굴을 덮고 있는 모포깃을 조심히 쳐들어 보았다. 그는 실지로 건강한 사나이답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굳잠에 들어 있었다.

주명학은 《태박사》가 자기의 발목과 가슴부위를 넘적한 안전띠로 침대기둥에다 매놓고 잔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박산 박사거든.》

주명학은 자기도 체격 그렇게 하고 나서 5분후에는 벌써 코를 드렁드렁 골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잤을까.

주명학은 자기의 머리꼭뒀가 선실벽에 뒹 부딪치고 몸이 갑자기 꺼꾸로 서면서 체중이 순간에 목과 머리에 쏠리는 압박감에 눈을 번쩍 떴다.

배머리가 파도의 골짜기로 박히면서 침대에 묶이온 자기 역시 꿈쩍달짝 못하고 머리부터 아래로 떨어 저 내리는 순간이었다.

물밖으로 배의 꼬리처럼 곤두선 추진기가 공회

전을 하는 스산한 소리와 함께 배의 몸체가 부르르 떨렸다. 그것도 한참나, 이번에는 회전목마가 돌아 가듯 꺼꾸로 섰던 자기를 휘잡아 돌려 《차렷자세》로 세워 놓았다. 이어 공중 쳐들었던 육중한 배머리가 허공 떨어 저 내리며 물을 쳐갈기는 소리에 주명학은 숨이 껍 막히는 한순간을 체험하였다.

옆침대에는 언제 벌써 나갔는지 《태박사》가 보이지 않았다.

주명학은 자기의 몸을 의지했던 안전띠를 풀려고 하였다. 하지만 육중한 몸체가 팽팽하게 매달리우다 보니 좀처럼 고리를 벗길수가 없었다. 세찬 충격에 제절로 열리듯 선실문이 왈카닥 열리면서 갑자기 귀가 멍멍한 파도소리와 함께 《태박사》가 들어 왔다.

그는 넘어 지지 않으려고 침대기둥을 꼭 부여안고 서서 안전띠의 고리를 벗기지 못해 애 쓰는 주명학을 웃으며 바라보았다.

《어때? 정황이?》

주명학이 반갑고도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웃고 있질 않나. 왜 겁이 나나?》

《안난다면야 거짓말이지.》

《겁도 어지간할 때 나는거기. 매우 좋지 않아.》

《몇시야?》

그의 도움으로 침대에서 풀려 난 주명학이 아픈 발목을 쑥쑥 문지르며 물었다.

《내가 지내 자지 않았나? 교대시간도 모르구...》

《아니, 하지만 동문 잘 자더군. 우린 한잠도 못 잤는데 끔찍없더라니까.》

《동무도 잘 자던데? 부러울 정도로...》

《갔을게 뭐가? 자는척 했지. 내가 자는지 해서 동무가 모포를 들쳐 보는것도 다 알고 있었네.》

《그러니 내가 마음 놓고 잘수 있게 내 잠자리를 지켜 주었다는 소리구만. 이거 창피하구만. 그사이 다른 일들이야 없었겠지?》

《할 일이나 있었으면 좋게...에이, 이젠 <아리랑>구경두 다 했구나 하는 생각만 했네.》

《나 역시 이럴 때 같아서 이번 가면 배에서... 하는 생각을 하네. 못내리지?》

《못 내릴걸.》

《왜?》

《바다가 동물 놓아 주지 않아. 이 폭풍이...》

《그렇가?》

《열흘이 못 가서 몸살이 날거네. 폭풍이 그리워지지. 바다란 그런거야.》

《그렇긴 해. 선장동지가 욕을 보겠구만. 기관은 어떤가?》

《우리 기관실동무들을 잘 알지 않나. 마음을

폭 놓으라구.》

《고맙구만.》

《더 물어 보라구. 난 가르쳐 주기를 무척 좋아한다네.》

담배를 꺼내주며 《태박사》가 히죽 웃었다.

《좁전에 무전이 왔는데 지금 당비서동지가 동무네 집에 가서 해산방조를 한단만. 동무 처도 지금 우리처럼 진통을 겪는 모양인데 이번엔 제손으로 기어이 주명학의 아들을 받아 낸다면서 갔대. 손너 둘을 다 제손으로 받아 냈다면서 조산원도 물리치구 혼자 갔다나 봐. 하긴 그건 무전수가 좀 보태는 말 일거구 비서동지 성미에 도병원 산부인과 박사선생을 제 차에 모시고 갔을 거네.》

《아니, 우리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했겠는데?》

《집으로 왔다나 봐.》

《그래?》

왜 돌아 왔을가?

그러자 자기가 떠나올 때 안해가 눈물을 툭툭 떨구며 불만을 터뜨리던 일이 생각났다.

《...성희를 낳고서 퇴원할 때도 전 혼자 걸어 왔습니다. 옆에서는 남편들이 꽃을 들고 온다, 승용차를 가지고 온다...》

눈물을 툭툭 떨구면서 앵하고 돌아 서서 집으로 걸어 오는 안해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니, 그래서만이 아닐것이다.

날씨가 나빠 진걸 알고서는 병원에 혼자 있기가 불안했을것이다.

배를 떠나보내고서는 바로 그 시각부터 텔레비존앞에서 《래일의 날씨》에 신경을 도사리는 녀인들이었다.

마음속 의지를 찾아 집으로, 선원들의 가족들 옆으로 돌아 왔을 안해였다.

해산을 앞두고서 남편때문에 불안해 할 안해가 걱정되어 당비서동지가 찾아 갔을것이고...

고맙습니다, 당비서동지.

《너무 걱정 말아. 그 사람들은 돌아 온다. 폭풍을 어디 한두번 헤쳐 왔다고...어서 떡돌 같은 아들이나 낳아서 그 사람이 돌아 오면 안겨 줄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이 들려 오는듯 싶어 주명학은 어지간히 마음을 놓았다.

《물에서들 몹시 걱정하고 있는 모양이지.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오래 잔줄은 모르구...》

아마 거기서는 무전실앞에 모여 와서...》

《...우리를 믿고 있다고 하네. 통신장동무가 지금 굉장한 수고를 하고 있어. 10분이 멀다하게 물

과의 교신이 진행되는데 보내온 전보문을 합치면서 사시가 될거라고 하더군. 사랑, 기다림, 믿음, 고무의 서사시가 말일세. 그 서사시를 읊어 주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헛치 않구만. 이리 떼깅, 저리 떼깅. 이보라구. 동무를 찾아 오다 이렇게 됐어.》

그가 이마에 난 푸른 혹을 내보였다.

《비슷해. 혹이 두알씩이나 붙었으니 이젠 분명 내 아들이 이제 달고 나올 방울일세.》

주명학은 그의 이마를 슬쩍 쓸어 주며 거기다 입을 짹 맞추었다.

《어서 가세. 선장이 찾는다지?》

《이를테면 <비상소집>이네.》

선장 박충길은 조타실로 들어 서는 명학이한테 눈도 돌리지 못하였다.

다른 선원들은 벌써 임무들을 받고 다 나갔는지 조타실에는 선장과 당직근무원밖에 없었다.

시창으로 내다보이는 바다는 한마디로 태질을 하는 검은 바다, 검은 파도, 그것이 내지르는 울부짖음뿐이었다. 그보다도 더 기분 나쁜것은 추진기가 물박으로 건동 쳐들릴 때마다 모든것이 깨어 저 나가는듯 급작스레 높아 지곤 하는 기관의 탁한 고향소리와 배의 떨림이었다.

배는 우물안에 떨어 진 드레박이 물면으로 얹어지듯 당장이고 갑판에다 물을 퍼담을듯이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그럴 때면 마스트우에 높이 세운 바람개비장대와 안테나가 물우에 당장 자빠지는것처럼 보이고 높은 사다리우에서 사다리채로 안고 넘어지는듯 한 전율을 느끼었다.

파도마루에 올라 탔던 배가 다시 배머리를 밑으로 숙일 때 불빛에 드러나는 파도의 골짜기는 웬간한 담을 가지고서는 내려다 보기가 바쁜 아찔한 심연이었다. 불빛은 다시 파도의 절벽을 훑으며 올라 오다 하늘에 대고 눈을 흘기고는 또다시 밑으로 떨어지었다. 이런 속에서도 배는 용하게도 자빠졌다가는 일어 서고 백번이고 다시 자빠졌다가도 일어 서는 오토기처럼 성난 파도를 슬슬 달래이며 제 침로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고 느린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다.

선장의 지시대로 갑판에 나가 두어시간가량 땀을 흘리고 들어 오니 이번엔 식당으로 내려 가달라고 하였다.

《아침이야 먹어야지. 내려 가 좀 도와 주라구.》

선장이 얼굴도 돌리지 못하고 말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탁 갈려 있었다.

《료리사동무가 옆구리를 쥐여 박히구 락심해서 앉아 있다는데 어서 내려 가게. 사무장이 내려 왔네.》

박충길은 파도소리가 좀 즈믄해 질 때마다 고

함을 치듯 말하곤 하였다.

《오늘이 료리사동무의 생일이라는걸 알지? 입당한 날이기도 하구... 제 생일을 제 손으로 차려 먹을 멋이야 없지 않아. 그러니 봉일동문 가만 앉혀 놓구 거기서 다 하라구. 물에서 걱정이 커. 우리 당자들보다도 걱정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더 배차다는걸 알지? 그러니 한상 잘 차려 놓구서 우린 지금 여기서 생일을 쇠고 있다고 알려 주잔 말이야. 그 소식이 가면 거기선 울지. 눈물들이 흐르니까. 명학이, 우리 색시들을 한번 올려 놓자구.》

《알겠소.》

주명학은 가슴이 뭉클해서 식당으로 내려 가는 중간복도계단을 쿵쿵 울리며 날듯이 뛰어 내렸다. 예전대로 주방칸이 파도의 세례를 어지간하게 받았다는것이 알렸다.

순두부를 하려했는지 사무장 김철호가 엉금엉금 기어 다니며 바닥에 쏟아진 콩을 모아 담고 있는데 콩바게뜨가 술 취한 놈 모양으로 자꾸 이리비를 저리비를하여 한손으로는 그 《술 취한 놈》을 붙들고 다른 한손으로 콩알을 쓸어 모으고 있었다.

김철호는 주명학을 보자 그저 히죽 웃기만 하였다.

부뚜막손잡이대에 몸을 의지한 김봉일이 락심한 기색으로 가시장을 올려다 보며 앉아 있었다.

웬간한것은 모두 고정이 되었는데 식당안의 그릇들만은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하며 다 깨어져 나가는듯 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식기 하나를 꺼내려고 식당문을 잘못 열었다가는 장안의 식기를 바닥에 다 쏟아 놓을판이었다.

바로 료리사 김봉일이 식기 몇개를 꺼내려다 옆구리를 쥐여 박혔다고 하였다.

《동문 앉아서 기술지도만 하라구. 이젠 선장의 지시야. 동무 처가 지금쯤 남편은 없어도 생일 음식을 준비하며 우리 생각을 하고 있겠는데 우리가 대신을 해야지. 걱정들이 클거야.》

《믿고 있을거네. 그러구 우리 처는 끝까지 지켜 낼거구...》

《지키다니? 채담을 하는게 아니야?》

《아니, 명학이도 알지만 우린 세칸짜리 한집에서 같이 살질 않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과 제수 그리고 우리... 내가 만이라구 우리 사는 방이 좀 넓은데 동생네가 우리보다 식구가 하나 더 많다나니 제수가 가끔 우리 방을 넘겨다 볼사 하는 모양이야. 나는 집에 있는 때보다 나와서 사는 날이 더 많지. 그러니 제수가 그럴만도 하지 뭐.》

우리 처는 체대값은 하는 녀자라 맘머느리로서

시부모한테나 동생네한테 퍽없이 무뎠다. 굴면 서두 그 방만은 지켜 낸단 말이야. 그러다가 남편이 먼 항해길에서 돌아 오면 그 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맞아 들이지. 아, 어서 그 방으로 들어가고싶구나. <아리랑>구경도 어서 가구요.»

그리고나서 두사람은 배가죽이 헤울 정도로 웃어대었다.

김철호가 따라 웃다가 애써 담아 놓았던 콩바께스를 다시 넘어 뜨려놓고는 성이 나서

《여, 뭘해? 식사시간이 늦겠어.》하고 소리 쳤다.

《명학이, 빨리 가서 쌀을 꺼내오라구. 쌀알은 주어 담을수도 없구 다시 꺼내다 일어야 하네. 아니, 내가 꺼내오지.》

김봉일이 일어 났다.

《안되네.》

주명학이 김봉일을 쿡 눌러 앉혔다.

창고에서 쌀을 꺼내오기도 험치 않았다. 20메터도 안되는 창고로 가면서 주명학은 허리를 굽히고 《비탈진 산》으로 기여 오르기도 하고 《가파로운 경사지》를 미끄러 내리기도 하였다.

선장이 다시 두명을 더 내려 보내주어 아침준비는 제 시간에 모두가 흡족하게끔 끝을 보게 되었다.

한바탕 전투를 하고 난 뒤여서 준비가 끝나자 모두 결상에 털썩털썩 주저 앉았다. 그제서야 김철호가 비로소 한숨을 돌리면서 조타실에 대고

《선장동지, 봉일동무 생일날이 왜 이렇게 요란스레 굽니까. 아무래두 어머니배속에서 나올 때부터 편안치 않은것 같습니다.》하며 웃었다.

《생일날이 되여 그러는게 아니라 당에 든 날이 되여 그러는거요.》

박충길이 대답하며 마주 웃었다.

《혁명가가 한사람 태어나는 날인데 조용할리가 없지. 사무장동무, 우리 혁명이 언제 한번 순풍에 돛단 배처럼 온적이 있소? 늘쌍 이렇게 풍파를 헤쳐지. 오늘도 여전히... 그래 뭘 좀 준비가 되었소?》

《예, 쌀알들이 가마안에서 소금벼락을 맞은 산미꾸라지들처럼 요동을 치다가 할수없이 한 45도쯤 경사지게 사선으로 익긴 하였지만 숟가락에 철철 붙어 올라 오게 잘되었습니다.》

밥은 그렇고, 그리고...》

김철호가 자세한것까지 보고를 하였다.

《수고를 했소. 내 이제 당직근무성원들만 내놓고 다들 내려 보내겠으니 시작을 하오.》

식탁에는 그릇들을 차려 놓지 못할테니까 밥이면 밥, 국이면 국, 한사람이 한가지씩 들고서 우선 봉일동무부터 식사를 시키오. 여보, 한사람이

두 가지씩은 절대로 들지 못하게 하오. 랑패를 볼수가 있소.》

박충길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 왔다.

《여, 봉일이. 평양에서 <아리랑>관람표가 내려왔다네. 우리 선원들만은 가족들까지 함께 보내주겠다누만. 명절날도 언제 한번 가족들과 지내지 못했는데 이번엔 배를 매여 놓구 가서 옥류관 국수도 함께 먹어 보라는거요. 주명학이가 또 심술을 쓰게 됐어. 산모를 바람 맞힐수야 없잖아.》

박충길이 다시 웃는데 목이 얼마나 짝 쉬었는지 웃음이라기보다 기침소리 같았다.

《사무장동무는 이제 체격 나한테 왔다 가오.》

당비서동지가 봉일동무 생일에 주라구 술 한병 보낸것이 있는데 별다른 술은 아니고, 같은 <평양술>이지만 나이 많은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 술부터 먼저 붓도록 하오. 명학동무 뒤에서 봉일을 든든히 붙안고 있소. 그의 술잔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이 갑자기 툭 끊어 지면서 배가 왈카닥 옆으로 넘어졌다. 어쩔사이야 없이 주명학은 열결에 김철호를 부둥켜 안으며 부뚜막 모서리로 허궁나가 떨어 졌다.

위험계선으로 넘어 진 배는 다시 일어 나지 못하는것 같았다.

배전으로 물사태가 쓸어 든다는 특감에 주명학은 눈을 감았다.

다시 일어 날 맥이 없어 지던 그 순간에 명학은 자기의 나이가 마흔두살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여, 뭘하고 있어? 제 초소들로 가라.》

김봉일이 짜지게 고향을 질렀다. 그 소리와 동시에 곁 같은 명학의 밑에 깔리었던 김철호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그를 허궁 밑에 평가치고 화닥닥 일어 나며 《명학이!》하고 다시 부르 고는 먼저 뛰쳐 나갔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면 자기들을 도와 나서군하는 그 《우연》이 이번에도 다 넘어 졌던가 싶던 선체를 천천히 일궈 세우는데 이때 확장기에서 또다시 《명학이, 알겠어?》하는 박충길의 고향소리가 터져 나왔다.

《알겠소.》

주명학은 목이 꺾 멘 소리로 맞받아 고향을 쳤다.

《알겠소. 선장동무, 내 봉일동무의 잔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땅이라고 생각하오. 물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소. 조국이 우리를 기다리오. 그럼 흔들리지 않소. 다 준비가 되면 알리오. 내 잠깐만이라도 배머리를 조국을 향해 돌려 줄테니까 그때 일제

히...》

선장의 말은 다시 툭 끊기였다. 하지만 인차 목이 멘 주인을 대신해서 《두루봉-1호》가 철없이 날뛰는 파도를 유유히 밀어 던지고 배머리를 돌리면서 웅글고 은은한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길게 고동을 울리고 있었다.

부두가의 고성기에서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애국가》의 은은한 선율이 아직도 굳잠이 든 어두운 바다수면을 쓰다듬듯 퍼져 갈 때에 《두루봉-1호》는 그립던 대지의 기슭에다 자기의 육중한 몸체를 비비었다.

배다리가 내리워 지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배의 갑판으로 왁-쫘어 넘어 와 아직도 조타를 잡고 있는 선장실로, 아직도 올라 오지 못하고 있는 기관실로, 갑판에 모여 선 선원들속으로 뛰어 들었다.

갓던 사람,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덩어리로 뭉쳐 돌아 갈 때 주명학은 눈물이 앞을 가리어 누가 자기한테 꽃목걸이를 걸어 주는지, 누가 자기의 목을 부들켜 안고 축축히 젖은 볼을 비벼 대는지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가 하듯대로 자기의 몸을 맡겨 놓고 있었다.

자기를 맡겨 놓고 갓던 품, 자기들보다 더 속이 타서 기다려 주던 품, 풍파만리 그 어디에 간다 해도 영원히 자기를 맡기고 살 품에 드디어 와닿은 것이었다. 부두가 방파제우에 낫 익은 소형배스가 있었다. 동무들과 같이 허둥거리며 뛰어가 차문을 열어 제끼고 자세를 바로 하며 보고를 하자는데 차안에 있던 조학실이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며 《어서들 타요. 집에서들...》 하였다.

해안동 네거리의 집 현관앞에서 조학실은 차에서 내리는 주명학이한테 싱싱한 백합 한송이를 들려 주고 나서 인차 차를 돌리었다.

주명학은 현관층계를 3단, 4단씩 뛰어 올라 그립던 자기 집의 문앞에 섰다.

아버지를 반기는 갓난애의 힘찬 울음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집에는 장모도 와

있었는데 로인은 사위가 들어 서는걸 보자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수 없는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 섰다. 그런 로인에게 주명학은 병싯 웃으며 《어머니, 이번에도 딸이라지요?》 하고는 안해한테로 다가섰다.

주명학은 자기를 보기가 미안해서 우는 애기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으면서 벽쪽으로 돌아 눕는 안해에게 《여보, 이거》하며 향기가 진동하는 꽃송이를 쥐여 주었다.

그리고는 침대에 깔고 있는 두툼한 포대기채로 안해와 딸을 뚝뚝 안아 들었다.

《미안해 마오. 이것들이 그리웠소. 우는 애들이 보고 싶었소. 늘 이 애들과 같이 있었소. 나는 늘 당신곁에 있었소. 창파만리에 있어도 조국은 언제나 나를 당신곁에다 세워 주었소. 여보, 우린 헤어져 있던 것이 아니요.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배사람이 되어 돌아 왔소.

이젠 날씨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그런 노미 아닐거요.

여보, 8호집 주인도 아이들이 울면 나처럼 아직 고함을 치겠지? 내 이제 그 사람한테다 이렇게 말해 주겠소.

<동무, 그러지 마오, 이제 그것이 동무한테도 노래로 들릴 때가 올거요. 아마 흑흑 흐느끼며 듣게 될거요. 그때면 늘 트집만 걸던 것 같던 자신이 이 생활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오.

거리청소에 제때에 안 나온다고 새벽부터 언성을 높여 기분을 잡쳐 주던 드살 센 우리 인민반 장아주머니까지도 자기가 여직껏 사랑하고 있었음을...>》

주명학이 흑흑 느끼고 있던 바로 그날에 새날의 첫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금 올라 온 함경북도 무역집배 《두루봉-1호》의 100항차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라진에서

수령님추억속에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였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 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한 여성종군기자를 품어 안고 48 시간

홍철진

누군가가 편집부의 문을 두드렸다.
들어 오라는 응대를 몇번이나 했으나 듣지 못
했는지 손기척소리는 또다시 울렸다.

어느 내우하는 여성이겠거니 하고 문손잡이를
돌렸더니 낯 익은 시인이었다.

나는 퍼그나 놀랐다.

평시에는 제 집이나 갈아 가벼운 인기척이나
하고 들어 오던 시인이 오늘은 별스레...

시인은 조심히 편집부의 문턱을 넘어 섰다.

《왜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처럼...》

내가 의아해 하자 시인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반년나마 글 한편 못내고 몽개고 있으니 편집
부의 <죄인>이야 <죄인>이지.》

《그러니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셨겠군
요.》

《글쎄 편집부의 금새에 맞겠는지...》

시인은 자신 없어 하며 원고를 꺼내놓았으나
눈빛에는 어딘가 신심에 넘쳐 하는게 알렸다.

편집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우리 작가들의 미덕
이었다.

시인이 가져 온 원고는 담시였다.

제목은 《한 여성종군기자의 이야기》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여성종군기자가 결사전을
앞둔 어느 한 고지에 찾아 와 노래도 불러 주고
전사들의 영웅적희생성을 마지막까지 사진기에
담고 희생되는 내용이다.

희생되는 마지막순간에 여성종군기자는 전사들
에게 사진기를 전선신문에 부탁한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여성종군기자가 눈앞에 방불하군요.》

나는 저으기 흥분되었다.

《어떻소?... 사실 이 여성종군기자는 실재한 인
물이요. 취재길에 그런 엄청난 황재를 했던 말이
요.》

《그런데 낯 익은 여성종군기자 같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다르다면 고지와 바다인
데...》

시인은 기다렸다는듯 배포유하게 말했다.

《그럴줄 알았소. 그런데 최후의 결사전을 앞둔
고지에 우정 찾아 왔다는게 영화의 여성종군기
자와 다르다는 점이요.》

나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내가 오진을 했는가? 그런데 허전한감은 무엇
때문일까?)

대안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시인은 나의 눈빛을 주시했다.

《어찌겠습니까. 이 여성종군기자를 집에 데려
가는수밖에... 집에 가서 어디 한번 꼼꼼히 생각
해 봅시다.》

《여보, 홍동무, 그 여성종군기자는 공화국영웅
이요. 잘못다루다가는 원고지에서 뛰쳐 나와 해
보자고 할수 있소. 허허.》

시인의 유쾌한 익살에 나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나 대안을 나누자고 약
속하였다.

그날 나는 그 여성종군기자를 앞에 놓고 밤새
도록 머리를 싸쥐었다.

그러나 끝내 그 여성종군기자는 나에게 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리하여 24시간동안 여성종군기자를 품어 안
고 모태졌으나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작가와 마
주 앉게 되었다.

나는 작가에게 다시한번 양해를 구했다.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

두번째 약속을 했건만 어쩐지 두려웠다.

자존심때문인가, 아니면 고집인가.

시인은 애 써 실망감을 감추고 돌아 갔다.

나는 그 실망이 절망으로 번져 질가 보아 겁이
났다.

그날 나는 어느 날보다 일찍 퇴근하였다.

집으로 가면서도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발
걸음이 자주 험클어 지곤 하였다.

집에 들어 서는 내 얼굴이 밝지 못해서인지 반
색을 짓던 안해가 주춤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판을 받은게지요?》

나는 대답대신 머리만을 흔들었다.

설명하기 힘든 말은 단순한 행동으로 대답하는
것이 더 정확할 때도 있었다.

《그럼 누구와 다투게지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안해는 지긋게 물었다.

《애들처럼 누구와 다투게요?》

《한 녀자와 다투소.》

나는 사무룩이 대답했다.

《성미두 참, 녀자와 다투겔 가지고 그다지 심
각해서...》

안해야 어떻게 알랴. 말 못하는 녀자와, 그것도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반세기전 녀성과 다투는
내가 얼마나 힘겹겠는가를...

알수도 없었다.

나는 묵묵히 내 방으로 들어 갔다.

책상을 마주하고 시인의 원고를 다시한번 뜯어
보았다.

녀성종군기자의 영웅적인 희생성, 틀림없이 감동적이다. 그런데...

어째서 석연치 않을까?

나는 열번, 스무번 작품을 씹어 보고 또 씹어 보았다.

아무리 들여다 보고 음미해 보아도 녀성종군기자는 도저히 움직일줄 몰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생활현상을 관찰하는데 머물지 말고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현상으로부터 생활의 본질으로 끝까지 파고드는 철학적사색과 탐구능력을 가져야 한다.》

나는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작가는 만족해 하고 너는 불만스러워 한다. 그럼 너는 그 종군기자를 만족스럽게 그려 내겠는가.

나는 대담하게 써보기로 마음 먹었다.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생각은 뻔한데 손이, 글이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가는 덧쓰고...

작품을 료괄적으로 만든 다음 나는 작가의 원고와 대비해 보았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고심속에 태어난 녀성종군기자에게서 맥박이 느껴 지는것이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다.

그러나 다음순간...

제가 쓴 글은 제가 모른다는 점이였다.

객관의 공정성이 필요했다.

헌데 객관이라야 잠든지 오랜 일곱살난 아들과와 안해밖에 없었다.

나는 무작정 안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책상앞에 꿇어 앉혔다.

필자의 이름이 써여 있지 않는 두 원고를 다 읽고 난 안해는 내가 쓴 원고를 가리키며 녀성종군기자가 자기와 같이 평범하게 느껴 지는것은 좋은데 뒤끝에 쿵-하고 쩡한 대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두서없이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작가의 주장, 종자를 넘두해 두는 말이였다.

말주변이 없는지라 말마디들이 《병어리장갑》처럼 무척 두박했다.

그래도 좋았다.

재판만 해주면 그만인것이다.

안해는 다시 잠자리로 돌아 갔다.

이런 《비상소집》쯤은 한두번만 겪지 않은지라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해였다.

이제는 작품의 고민을 알수 있었다.

작가는 서정적주인공을 처음부터 전형적인 영웅으로 그려 놓았다.

실지 있는 사실이니 그렇게 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자가 아니라 작가다.

현상이 아니라 현상이 안고 있는 본질을 밝혀

내야 할 사람들이다.

녀성종군기자가 최후의 격전을 눈앞에 둔 불타는 고지에 어째서 스스로 찾아 왔는가?

전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선신문에 내려고?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종군기자들은 누구나 그렇게 했을 지극히 옹당한것이였다.

그러면 영웅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 그의 사진기에는 필름이 없어야 한다.

신문사에는 필름을 이미 보낸 뒤여야 한다.

그럼 그가 어째서 부디 결사전을 눈앞에 둔 고지로 왔는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종군기자의 의무는 다 수행했으나 군인의 의무, 군인의 양심이 그를 불타는 고지에 세웠을것이다.

결국 그는 전사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왔고 목숨을 바치려 왔다.

그가 불러 주는 노래에서 전사들은 고향과 조국을 생각했을것이다.

그가 짓는 한가닥 웃음에서 전사들은 보다 용감했을것이다.

물론 전사들은 그를 취재하러 온 종군기자로 알것이다.

허나 그가 찍어 주는 사진기에 필름이 없으리라고 꿈엔들 생각하랴.

그는 이렇게 최후를 마쳐야 한다.

필름 없는 사진기를 메고 온 종군기자!

종자는 명백했다.

영웅성도 명백했다.

나는 너무 기뻐 야밤삼경이라는 생각도 까맣게 잊고 책상을 쿵쿵 두드렸다.

까짓거, 다 깨여 나라지...

48시간만에 녀성종군기자, 공화국영웅은 마침내 자기 심장의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면 24시간전에 녀성종군기자는 왜 나를 뺄 대했는가.

나는 독자로밖에 그를 보지 못했던것이다.

그저 《고급》한 독자로밖에...

물론 편집자는 작가와의 관계에서 첫 독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을 대할 때 편집자는 그 작가자신이어야 한다.

《고급》한 독자의 눈으로서는 혼시가 전부이다.

편집자의 요구성은 《고급》한 독자로부터 작가당사자로!

평가할 의무와 헌신할 의무라는 현격한 차이로 갈라 진다.

한 녀성종군기자를 품어 안고 48시간동안 고심한 끝에 기쁨도 크지만 교훈도 컸다.

날이 밝는다. 작가와 마주 앉을 새날이...

한 처녀의 시간을 두고

김정순

시간이 흐른다.

한껏 채워진 태엽과도 같이 우리의 한생에 가득 차 있는 시간, 날마다 반복되면서도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대도 있다.

어느 한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시간속에는 영에도 수지도 영원한 삶도 있거늘.

창조하며 전진하는 자에게 영예를! 답보하는 자에게 수치!- 이것이 시간의 분배이다.

값 있게 보내면 영원히 얻는것, 값없이 보내면 영원히 잃는것- 이것이 시간의 진리이다.

력사의 증명자!

실패와 성공의 심판자!

정의와 불의의 판결자!

한 인간의 생명에 깃든 그것이 합하여 일생이 되고 국가와 사회에 깃든 그것이 합하여 역사를 이룬다.

...20여년전 여름 어느 날.

함흥시 성천강구역 상신흥동의 한 마을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다.

《저 407호집에서는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군 하더니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이지?》

《시를 쓰던 그 집 큰딸이 었그제 잘못됐대요.》

《?!...》

그렇다! 한 처녀가 갔다.

그가 바로 주옥양, 스물세살의 선반공이며 문학통신원, 사망후에 출판된 시집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의 애젊은 저자였다.

언젠가 시집 《행복한 땅에서》를 처음 읽고 시인이 될 불 같은 맹세를 일기에 적었던 그.

은장방에서 나오는 쓰레기속에서 오랜 세월 금먼지를 모으고 모아 금장미를 만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하루하루 탐구와 노력의 《금먼지》를 모아 성공의 꽃- 조국이 기억하는 시인이 되겠다던 그였다.

《잠이여! 너는 나의 원썩! 오지 말라. 나에게는 너를 찌를 비수가 있다!》고 부르짖으며 로동과 문학의 아름다운 목표들을 안고 밤마다 새벽마다 밀려드는 졸음에 항거하던 열혈처녀.

걸으면서 사색

앉으면 붓의 행군

탐구, 정열, 지향!

삶을 분으로, 초로 쪼개가며 살았고 련 이를 모진 동통속에 신음하던 생의 그 마지막 48시간

동안에도 병원침상에서 책과 만년필을 놓지 못하던 처녀.

자기만이 아니라 열살난 남동생까지 문학을 시키겠다고 매일 글 쓸 과제를 주고 답을 받아 내곤 하던 열정의 처녀가 그날은 동생의 숙제장에 점수도 매겨 주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큰누나!...》

울며 몸부림치는 동생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린 《금먼지》책이 침대밑에 나뒹굴었다. 필력이는 학습장갑피에는 그가 준 마지막문제와 그 답이 썩여 젖어 있었다.

《문제-오늘날씨를 가지고 자연묘사. 4가지 하시오.

답- 1. 먹장구름이 밀려 오더니 소낙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2. 아침에 시작된 비는 오후에 멎었다.

3. 소낙비가 내리던 하늘에도 인제는 해가 비쳤다.

4. 해가 지고 서쪽하늘에 저녁노을이 붉게 타고 있었다.》

아, 저녁노을, 붉은 노을, 하늘에는 먹장구름이 지나가고 해가 비치고 노을이 비졌는데 우리 누나는...

그날이 바로 주체 71(1982)년 7월 17일이였다.

하다면 그가 정말 자기의 《원썩》-잠에 지고 만졌인가? 그의 죽음으로서 그에 의하여 한초한 초 나누어 지고 분배되던 그의 천금 같은 시간도 끝났 것인가?...

나는 살아 있는 주옥양이를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다. 그와 얼굴도 모르면서 3년간 무수한 시와 편지들을 주고 받았다. 정녕 그 나날에 그가 보내오는 한편한편의 시가 어떻게 짜내고 어떻게 귀하게 쪼개고 쪼갠 시간과 시간에 쓴것이라는것을 내 다 알수 있었다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정에 의하여 그가 첫 《6월4일문학상》수상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청년문학》과 《로동신문》에 소개된 몇 년후 그의 집을 찾는 수많은 남녀청년들중의 한 사람으로 나는 그의 집을 찾았다.

거기서 나는 같이 이 시대를 사는 청년으로서 뜨거운 심장 없이는 볼수 없는 열정의 글발들을 보았다.

거기서 나는 결코 평범히는 대할수 없는 그의 뜨거운 얼굴을 보았다.

거기서, 바로 거기서 나는 마치 불타는 고지에서 한팔을 뒤로 뻗치며 탄약을 찾는 사수인양

《시간을! 시간을!...》하고 부르짖는 그의 절규를 들었다.

그가 산같이 쌓아 놓고 간 습작책들과 일기 그리고 꼼꼼히 옮겨 쓴 수집권의 장편소설들과 시집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가 5년동안에 《3개의 대학》을 나올 결심밑에 이루어 놓은 대학교재들과 참고서들, 선반기술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자.

그보다 자기의 《제자》- 남동생의 문학걸음마를 떼여 주던 문학숙제장 《금먼지》, 《은먼지》 책들을 보자.

나는 그 책들을 보는 순간에, 하루의 드림도 없는 그 문제들과 검열점수들을 보는 순간에, 자신은 시를 쓸 시간이 없어 그렇듯 안타까와 하면서도 일일이 고쳐 준 그 글줄들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도대체 너는 어떤 처녀냐?》하고 마음속으로 그에게 물어 보았다.

《나는 시간을 자기의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것이다.

그렇다!

그는 시간을 쪼개고 아껴 쓰면서도 결코 시간에 매여 허우적거린 처녀는 아니었다.

그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을 틀어 쥔 주인이었다. 그는 이 땅에 흐르는 시간과 시간을 위훈의 총계로 딛고 오르며 평범한 삶을 빛나는 삶으로 승화시킨 우리 시대의 딸이었다.

그는 비록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일찍이 애석하게 우리결을 떠나갔으나 백년, 천년

을 산 것보다 더 값 높고 빛나는 생의 자욱을 이 땅에 흐르는 시간우에, 자기가 남긴 열정의 시 줄마다에 수 놓고 갔다.

그렇다!

그는 여전히 붓대를 총검처럼 틀어 쥐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따라 힘차게 행진해 가는 우리 시인들속에, 문학통신원들속에 당당한 동행자로 함께 서 있으며 생전에 그가 것처럼 열렬히 사랑하던 어머니조국의 영원한 기억속에 자기의 귀중한 시간을 살고 있으며 그 시간을 쪼개여 로동하고 학습하고 시를 쓰며 자라나는 동생들의 시간을 겸열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조국에 바친 그 작은 《금장미》속에, 그 꽃을 애 타게 마련하던 그 불 타는 시간속에 그는 살아 있다.

시간의 영원한 주인- 주옥양!

그가 생전에 한껏 재운 시간의 태엽은 오늘도 풀리지 않고 있으며 래일도 풀리지 않을것이다.

그는 오늘도 시간의 채찍을 들고 나에게 이렇게 묻는듯 하다.

그대 삶은 끝나도 시간은 영원해
오고 오는 세대에 시간은 말하리
흘러 간 력사에 너의 시간은 어느것
두번 다시 오지 못할 삶의 구간을
그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명언해설

《애국자가 아닌 작가가 애국적인 작품을 쓸수 없으며 혁명가가 아닌 작가가 혁명적인 작품을 쓸수 없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작가자신이 열렬한 애국자, 참된 혁명가로 되어야만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작품을 쓸수 있다는 뜻이 담겨 저 있다.

작가는 문학창작의 주체이며 작품은 작가의 정신활동의 산물이다. 애국적인 작품은 애국적인 작가에 의해서만 창작될수 있고 혁명적인 작품은 혁명적인 작가만이 쓸수 있다. 작품에는 작가의 정치사상적립장, 계급적립장, 미학적리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작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려는 열렬한 애국심과 뜨거운 혁명적열정으로 가슴불태울수 없으며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해 낼수 없다.

편집부의 말

새 세기의 위대한 창조물로 일떠서서 어머니조국의 대지를 적시며 흘러 흐르는 개천-태성호물길!

세기를 두고 내려 오던 우리 농민들의 소원을 안고 출렁이며 흐르는 그 푸른 물결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세계가 비껴 있다.

위인이 낳은 창조물에는 언제나 전설이 깃드는 법이다. 전설에는 위인을 칭송하는 인민의 마음이 어려 있다.

편집부는 개천-태성호물길건설기간에 개천시 대각리와 순천시 오봉리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수집 정리한 전설을 소개한다.

전설

대각바위와 오봉산 옛 전설

멀고도 먼 옛날에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시절에는 이 고장에 아직 오봉산도 대각바위도 없었다. 강은 있었다. 땡산곶에서 흘러 내리는 산골강물이 겹겹이 늘어 선 산굽이를 돌고 돌아 이 고장에 들어 서면 빠끔히 열린 돌모래벌 한복판을 꿰치르며 나가다가 절벽에 막혀 흐름을 돌리고서 구불하게 뻗어 갔다. 강이 이 고장 사람들의 삶의 젖줄기라면 서북쪽으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늘어 선 산발은 정다운 울타리 같았다. 가까운 산이라고는 강물이 돌모래벌에 들어서면 초입 오른쪽에 있는 앞산뿐이었다.

강물의 먹을 지켜 썼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 앞산을 먹산이라고도 하였다. 먹산에 올라 가서 내려다 보면 강물의 흐름은 돌모래벌 한가운데에 어느 농사꾼이 일하던 호미를 놓아 둔것 같은 형국이었다.

《호미날》이 안으로 구부러든쪽으로 동안 뜨게 소담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을 안마을이라고 하였으며 물결이 굽어 들었다고 하여 《곡수리》라고도 하였다. 그 마을의 강 건너편 《울타리산》이 있는 방향으로 또 하나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바깥동네라고 불렀다.

그때도 이 고장은 경치가 아주 수려하였다. 강 흐름도 여기서부터는 급하지 않고 순탄해 저서 몇십리 하류에 있는 고을이름도 순천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물길도 좋아서 이 고장은 일찍부터 명승지의 하나로 손 꼽혔다.

노래구절에도 있다싶이 이 고장은 백수십리 하류의 모란봉줄기와 잇닿아 있어서 평양의 정기가 뻗쳐 올라 와 명승지가 되었다고들 하였다.

평양 모란봉의 최승대밑에 사는 농사꾼총각이 하도 마음에 들어서 하늘의 선녀가 내려 와 짝을 못고 살았다는 전설이 있듯이 이 고장 일대에도 그런 멋진 총각들과 미인처녀들이 많았다.

그가운데서도 바깥동네에 사는 대각이라는 총각과 안마을에 사는 오봉이라는 처녀가 으뜸가는 선남선녀라고 소문이 자자하였다.

대각이는 배사공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 간

다음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길손이 있으면 나루배로 건네다 주고 배손님이 없으면 우걱뿔 검정암소를 몰고 나가 강변 돌모래밭을 가꾸었다.

사람들이 문지방에 불이 일 지경으로 뻗질나게 찾아 와서 이 집 아들 대각이처럼 인물 환하고 힘 세고 일 잘하고 날과람 있고 마음씨 무던한 총각을 어서 장가 보내라고 홀어머니를 졸랐지만 시원한 대답을 못듣고 돌아갔다.

대각이 어머니는 곡수마을쳐녀 오봉이가 마음에 있었던것이다.

한편 오봉이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다. 봄부터 가을까지 아버지와 함께 안마을쪽 앞벌인 강가에 나가 밭일을 부지런히 하였고 겨울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먹산속으로 들어 가서 사냥을 하였다. 누구든지 아들 가진 부모치고 오봉이를 한번 본 사람은 다 머느리로 삼고 싶은 욕심을 내지 않는이가 없었다. 하지만 오봉이 아버지는 대각이를 사위감으로 점찍고 있었다. 그 속심을 눈치 챈 마을사람들은 오봉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였다.

《여보게, 강 건너 동네 대각이가 평양 모란봉의 최승대밑에 살았다는 농사꾼총각이라면 임자네 오봉이는 그 농사꾼총각에게 시집 갈려고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선녀와 같네. 하늘이 정해준 배필인데 어서 혼사를 치르어 주게나.》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씨 착한 오봉이 아버지는 구레나룻속에 묻혀 있는 입술을 짹 버그러진 밤송이처럼 벌리고 소리 없는 웃음을 웃어 보인 다음 조용히 대답하는것이였다.

《고맙쎄다. 올가을에 농사를 잘 지어 놓고는 그 집에 사람을 보내보렵네다.》

오봉이네 부녀와 대각이네 모자는 봄내, 여름과 가을 내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이는데 있는 발에서 일하였기때문에 두집 부모는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해오던 참이였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대각이 어머니도 마음이 흐뭇해서 마치 정혼이라도 다 한것처럼 오봉이를

머느리감으로 치부했으며 아들에게도 그런 속생각을 내보였다. 이제는 두집 부모뿐 아니라 당자들인 대각이와 오봉이도 어찌다가 길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공연히 얼굴을 발그레하게 물들이면서 서로 수집어 하였다. 겉으로는 내우를 하느라고 그렇게 수집어 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백년해로를 결심하고 있었다.

그해는 날알도 잘 영글어 가고 있었고 과일도 남새도 레년에 비길수없이 잘되었다.

칠월 칠석이 다가왔다.

이날 대각은 사랑하는 검정암소를 배에 싣고 강을 건너 가서 오봉이네 밭일을 도와 주기로 되어 있었다. 오봉이는 이른 아침 밥을 지어 먹고 강기슭으로 나와 대각을 기다렸다. 뽕도 딸걸 님도 볼 기쁜 심정이었다. 오봉이 아버지는 딸이 대각이와 함께 오늘 하루 정답게 밭일을 하도록 해주고 싶어서 자기는 일부러 땃산속으로 때 이른 산양길을 떠나갔다.

대각이가 기쁜 마음으로 노를 저으면서 배를 강북판짜까지 몰아 갔다.

《대각님-》

《오봉이-》

《음매-》

누구도 아직 밭일을 나오지 않아 인적 없는 강변에는 이렇게 서로 부르고 화답하는 정겨운 목소리가 노래처럼 울렸다.

그러나 어찌하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 두사람의 무르익어 가는 사랑을 깨뜨리려고 노리는 검은 악마가 강바닥에 숨어서 흉악한 눈알을 번뜩이고 있는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 검은 악마는 먼 날바다에서 서해로 기여 들어 와서는 못된짓을 다하는 몇백년 묵은 더럽고 못된 짐승이었다.

이놈은 물속으로 기여 다니는 악귀인데 대동강 물밑으로 숨어 들어서 경치가 좋은 상류인 땃산 있는데까지 올라 왔다가 오봉이의 미모를 한번 본 다음 부러는 자주 드나들면서 선녀 같은 이 처녀를 덮쳐 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악귀는 기여 들 때 마다 모진 바람을 일으켜 사람들이 눈도 뜰수 없게 해놓고 마을에 있는 집집승까지 잡아서 통채로 삼키고 달아 나곤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이 악귀놈이 대동강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속을 통해서 기여 드는데 그 구멍이 꼭 수리알 강바닥에 나 있다고들 말하였다. 누구도 본 일은 없었으나 사람들은 아니 뎌 굴뚝에서 연기가 날리 없다면 그걸을 사실처럼 이야기하였다.

이날도 악귀놈은 꼭수리알 강밑에 뚫린 구멍안에 숨어서 흉물스러운 대가리만 몰래 내밀고 기회를 엿보는중이었다.

배가 강북판에 이르렀을 때 그밑 강바닥에 난

구멍에 숨어 있던 악귀놈이 불쑥 대가리를 쳐들면서 배를 뒤집어 엎어 버렸다. 갑작스럽게 배가 뒤집히는통에 물에 빠진 대각이와 검정암소는 한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헤엄비다가 서로 의지하면서 오봉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건너편 기슭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이때 악귀놈이 몸을 공중으로 날려 강기슭에 서 있는 오봉이를 덮쳤다. 오봉이는 필사적으로 반항하였다. 힘이 세고 이악한 검정암소가 그것을 보고 먼저 강기슭에 후닥닥 뛰어 오르자마자 악귀놈에게 달려들면서 뽕질을 하였다. 악귀는 덮쳤던 오봉이를 저만치 휘뿌리고서 검정암소와 맞붙었다.

아무리 흉악한 악귀이지만 땃산의 맹수들도 두려워서 꼬리를 사린다는 검정암소의 날랜 뽕질에 맞붙어서는 건딜수 없었다.

악귀놈은 훌쩍 뒤로 뛰어서 여러문발자국씩 세 번 곤두박질을 하여 물러 서더니 후- 하고 입김을 내뿜었다. 악귀의 강한 무기인 바람을 내뿜는 것이었다.

강기슭의 모래가 날려서 온 하늘땅에 먼지장막이 덮인것같이 사방이 뽕양게 되었고 검정암소는 눈을 뜰수 없었다. 그래도 검정암소는 코를 벌름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악귀가 있는 방향을 잡아 뽕질을 하였으며 악귀는 요리조리 몸을 날리면서 암소의 맥을 뽕았다.

검정암소가 기운이 진해 가는것을 보자 악귀는 센 입김을 또 내뿜었다. 주먹 같은 돌멩이들이 모래알처럼 날리며 검정암소의 뽕을 드세게 쳤다. 그만에 검정암소의 뽕이 꺾어 지고 말았다. 아픔에 몸부림치던 검정암소는 계속 드세게 불어대는 악귀의 입김바람에 가랑잎처럼 날려서 강 건너편 땃산과 바깥동네의 중간쯤되는 저쪽 기슭에 내뽕려 졌다. 검정암소는 그만에야 숨지고 말았다.

이것은 짧은 순간에 벌어진 참변이었다.

이때에야 강기슭에 올라 설수 있었던 대각이는 오봉이를 또 덮치려고 하는 악귀놈에게 달려 들어 그놈의 목통을 등뒤에서 감아 조였다. 악귀는 오봉이를 놓고 대각이의 팔을 풀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안될 일이었다. 대각이는 악귀의 목을 죽기내기로 조였다. 악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입김바람을 내뿜어도 등뒤에 붙은 대각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대각이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이발을 사려 물고 온몸에 상처가 나서 쑤시고 아픈것을 참고 견디면서 깎지 낀 팔을 바짝 더 조이며 이마로 받고 발로 차면서 싸웠다.

급해 맞은 악귀놈은 강물속에 뛰어들어 바닥에 난 구멍안으로 들어 갔다.

실신하여 강가에 늘어 졌던 오봉이가 그때에야 정신을 차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오봉이가 악귀놈을 꺼안고 함께 강물속으로 빠져 들어 가

는 대각이를 부르며 달려 나가다가 돌부리에 걸쳐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얼어 저서도 오봉이는 고개를 쳐들고 《대각님-》, 《대각님-》하고 안타깝게 부르다가 그대로 굳어 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오봉이의 굳어 진 몸이 오봉산으로 되었는데 강쪽으로 놓인 그중 높은 봉우리, 즉 제1봉은 오봉이의 머리이고 그다음 봉은 어깨, 그뒤로는 등과 엉덩이, 발꿈치가 차례로 봉우리 한개씩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은후로 오봉이가 살던 마을을 오봉마을이라고 한다는것이다.

또한 검정암소가 악귀놈과 싸우다가 날려 가서 굳어 진 몸이 《암소바위》로 되었는데 바위색이 검은것은 암소의 색깔이 검정빛이었기때문이라는 말이 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후로 이 고장에서는 강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강가의 돌맹이가 날아 나고 집집의 지붕을 지킬귀 놓은 넙적돌들이 굴러 떨어 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 고장에서는 《검정소뿔 빠진 바람》이라는 말까지 전해 지게 됐다.

오늘에 와서도 그 《검정소 뿔 빠진 바람》이 자지않고 계속 태질하는것은 격노한 대각이와 악귀놈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였다.

이 모진 바람등쌀에 발에는 곡식이 뿌리를 내리 기 힘들었다. 남정네는 지계를 지고 아낙네는 머리에 동이를 이고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물에 콩나듯 하는 곡식포기에 주었지만 가을에 가면 죽정이야 대부분이었다. 별뿐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들도 바람에 말라서 꺼멓게 죽은 색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산》을 《먹반산》(검은색이 절반인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산이름이 다시 《목방산》으로 변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대각이가 악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 와야 바람이 자게 된다는 생각에서 검정소가 굳어 진 《암소바위》우에 대각이의 사당을 덩실하게 지어 놓았다. 대각이가 사랑하는 검정소잔등에 올라 타고서 기운을 내어 싸워 이기고 돌아 오기를 바라서였다. 그리고 해마다 칠월 칠석날이 오면 그 사당에 모여 대각이가 이기라고 빌었으며 대각이가 힘을 내라고 정치고 북 두드리면서 노래 불러 성원도 하였다. 이때부터 《암소바위》는 《대각바위》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는것이다.

하지만 가는 세월은 무정하고 사는 세상도 야속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발농사는 죽정이만 거두어 들이는데다 지주놈의 굶개질은 더욱 심해만 갔다.

마을에서는 한집두집 살 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가족이 생겨 났고 목방산속

에 들어 가서 사냥을 하고 솥을 굽다가 나중에는 거뭇게 솥이 되어 땅속에 묻힌 검은 솥돌(석탄)을 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 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람들은 할수없이 고향마을에 남아서 낱알 절반, 죽정이 절반의 강변 돌모래발 농사에 매여 달려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 가는수밖에 없었다. 《대각바위》에 세웠던 사당은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없어 지고 말았다.

마을에 남은 사람이든 마을을 떠나간 사람이든 누구나 다 것처럼 절승강산이고 살기 좋았던 옛날옛적의 자기 고향을 잊지 못해 하면서 고향을 아끼고 그리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지금도 마을의 늙은이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배운 노래라면서 들려주곤 하는데 그 곡조와 가사는 처량하였다.

대동강물 건너서 목방산아래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저곳에 계시련만
이곳에서 저곳까지 몇천리 되는고
언제 한번 고향 가서 부모동생 만날가

적막한 가을풍경 야밤삼경(깊은 한밤)에
슬피 우는 두견새 너 울지 말아라
나는 할 일 없어(할수 없어) 이곳에 왔건만
너로조차(너마저) 무엇하러 이곳에 왔느냐

난데로 떠나간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울 때면 모여 앉아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런 말들을 하였다.

《이제 대각이가 악귀놈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 돌아 올 날이 꼭 있을거야. 옛날부터 그날이 오면 저 산으로 굳어 진 오봉이와 바위돌이 된 검정암소까지 깨어 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리운 고향에 다시 돌아 가 바람걱정, 물근심 모르고 화목하게 살아 보겠는데... 하지만 그런 세월이 언제면 올런지.》

《바라고 바라면 언제이든 올 날이 있겠지.》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칠월 칠석날 밤이면 하늘에 있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라고 까치가 모여 은하수에 오작교를 놓아 준다는데 우리 대각이와 오봉이도 어서빨리 만나도록 곡수리알 강물우에 오작교를 놓아 줄 까치는 없을까?》

《검정암소도 못 건디는 바람등쌀에 까치가 어떻게 다리를 놓을수 있을까.》

《까치가 못 놓으면 우리 손으로라도 다리를 놓아 볼가.》

《사람이 놓은 다리가 오작교가 될라구.》

《하긴 그래. 그리고 또 설사 우리가 나무다리

를 놓는다 해도 악귀놈이 바람을 불어서 대번에 날려 보낼거야.》

《불편 놓고 또 놓아서라도 대각이와 오봉이가 만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그러자니 안타까와서 견딜수 있나 원.》

《안타까와도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살아 가는 수밖에 없다네.》

《아! 하늘이시여, 조상 신령이시여, 그런 날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계작가소개

이싸콥스끼

미하일 이싸콥스끼는 서정가요 《까츄샤》와 함께 널리 알려 진 이전 쏘련의 재능 있는 시인이 다.

미하일 이싸콥스끼는 1900년 로씨야 스몰렌스크주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다가 남의 도움으로 중학교 4학년에 편입하였으나 그마저도 6학년때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싸콥스끼는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문학공부를 착실히 하였으며 주체3(1914)년 시 《병사의 부탁》을 발표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후 이싸콥스끼는 출판사업에 종사하면서 인민들을 공민전쟁의 승리와 사회주의건설에로 불러 일으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농촌주체의 작품들을 많이 썼다.

주체16(1927)년 이싸콥스끼의 첫 시집 《밀짚속의 전기줄》이 출판되었다. 이 시집은 고리끼를 비롯한 작가들과 광범한 독자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밀짚속에 전기줄이 들어 왔다》 - 이것은 수백년간 무지와 몽매, 암흑속에 잠겨 있던 로씨야농촌의 세기적변혁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다 삭아 빠진 밀짚이영속으로 전기줄이 들어 온것은 사회주의10월혁명후 로씨야의 농촌에서 일어 난 거대한 변혁의 상징이며 새로운 인간적 생활, 문명을 누리게 된 인민의 기쁨이 그대로 어려 있었다.

시집에 들어 있는 《농가에서 농가로》, 《지나간 나날》 등 시들은 로씨야농촌의 변모된 모습과 농민들의 새로운 정신상태를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창작된 이싸콥스끼의 대표적 작품들로는 《배웅》, 《근무에서 돌아 오는 국경수비병》, 《까츄샤》, 《글쎄 그걸 누가 알아요》, 《얼마나 멋 있는 청년들이야》 등을 들수 있다.

시들에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하늘도 조상의 신령도 풀어 줄수 없었던 그 소원은 오늘 로동당시대에 와서야 풀리게 되었다.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 푸른 물이 출렁이며 흘러 들던 그날 이 고장 사람들은 대를 두고 내려오던 자기들의 소원을 풀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권택무

의 감정,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바치려는 헌신의 감정이 진실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까츄샤》는 쏘베트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 졌다.

주체27(1938)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한 처녀가 국경초소에 있는 애인을 그리며 노래 부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과꽃, 배꽃 하얗게 피고 물안개 서린 강가에서 사랑하는 애인 국경병사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애인에게 보내는 부탁의 노래를 부르는 처녀의 심정을 생동하고도 진실하게 노래한 이 노래에서는 쏘베트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깊은 정서와 은은한 선율을 통하여 흘러 나오 고 있다.

조국전쟁시기에 이싸콥스끼는 《잘 있거라 거리들아 농가집들아》, 《전선 가까운 숲속에서》, 《너 어디 있느냐 밤빛눈동자야》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파쇼도이칠란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에로 인민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전후에도 《로씨야녀성들에게》, 《후조들은 날아 가네》 등 많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이싸콥스끼의 시들에서는 깊이 있는 철학적문제들이 극히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노래되고 있다.

그의 시작품들에서 사상정서는 직선적으로 표현된 시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활화폭을 통하여 감명깊게 정서적으로 흘러 나오 고 있다.

한마디로 이싸콥스끼에게 있어서 생활은 그대로 시이고 노래였다고 할수 있다.

이싸콥스끼의 시에서 선택묘사한 생활세부들이 애정풍리생활에 치우친것과 같은 부족점은 있으나 시형식과 시어들이 소박하면서도 인민적이고 정서가 짙은것으로 하여 오늘까지도 그가 지은 노래들은 널리 불리워 지고 있다.

장철희

별과 물이 속삭인다

내 남벌의 새 봄

김승남

올해 내남벌의 류다른 봄은
개천-태성호물길 따라 오는가
등등 북소리마냥 봄우뢰를 태우고
유유히 흘러 드는 물결소리에
기나긴 한겨울 지루했던 잠에서
별은 기지개를 켜며 깨어 납니다

얼마나 장쾌하게 태동하는 봄입니까
강변에 피여 나는 젖빛안개는
대지를 얼싸 안아 입 맞춰 주고
제방쪽을 따라 아물대는 아지랑이도
별관의 뜬 김과 어울려 노닐잡니다

물이 맑아 종달새도 지중뎡니다
물이 좋아 물족새도 숨박꼭질 합니다
강변에 갓 심은 버들개지 움 티우며
봄바람이 후더운 입김인양
일매진 규격포전들을 어루만잡니다

아, 장군님 찾아 주신 12월의 그날에
만족하게 바라보신 내남벌의 저 물길은
그날에 벌써 봄꿈을 꾸며
드넓은 대지를 그리워 했습니다
어서 빨리 달디단 젖줄기를
물려 주고 싶었습니다

넘실넘실 봄춤 추며 물이랑이 파도치면
대동강 물비린내 싱그러운 벌에

감살 좋은 해토는 물큰물큰하여
논갈이 썰레질은 흥이 날것입니다
논갈이타령이 구성질것입니다

빨간 머리수건 기폭처럼 날리며
줄 지은 모내는기계에 이어
김매는기계가 논벌을 뒤덮고
누렇게 무르익은 풍성한 가을이
벼수확기동음을 부를것입니다

맑고 푸른 물빛에 물들어
처녀들은 더 싱싱하게 예뻐 집니다
물냄새에 흠뻑 취해
총각들은 더 푸르싱싱 활기에 넘칩니다
물노래에 정들어
로인들은 주름살을 환히 펴니다

거창한 대번혁의 천지개벽으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다 이뤄 진 땅에
물농사 기계농사 과학농사 꽃이 피니
억년 왕가물도 얼씬 못하고
마음 먹은대로 마음껏 농사 짓는
새 계절이 새 물길을 따라
벌써부터 두리둥둥 북소리 울리며
만복을 싣고 찾아 왔습니다
그 물결에 이끌려 서둘러 온 봄이
세세년년 오탁백과 주렁지을것입니다

(내남벌에서)

수문을 열며

박상민

이 수문
운명의 대문이던가
나의 아버지 연풍의 수문을 열며
물소리에 취했다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나도 취하며 수문을 연다

아버지가 쥐였던

강철륜대신 빨간 단추 가볍게 눌러
대각언체의 거대한 수문을 여니
그리운 고향으로 달려 가듯
사품치는 물모습이 장쾌하구나

가자 나도 함께 가자
맨발로 물 따라

보도랑 달리던 그 시절처럼
400리 굽이굽이
물 따라 나도 함께 가자

물 기다려 밤 새우던
서해벌방 덕지마을은 어디나
물냄새에 취하여
둥글소가 걸지 못했던
그 논배미는 어드메냐

들려 오누나
서해 한끝 목 타던 땅이
쭈욱쭈욱 물 들이키는 소리
땅과 물의 2중창처럼
이 가슴에 환희롭게 들려 오누나

가면서 이야기 하자
수령님의 은덕으로 물농사
마음껏 짓던 그 벌우에
강물처럼 저절로 흐르는 물줄기
피줄같이 이 벌에 틈없이 그어 주신 사랑

갈매기 넘나드는
열두삼천리벌 맨끝
마지막논배미까지
폭폭 적서 갈 이 물길
장군님사랑의 손길은 아니던가

이 물 마시면
하루밤에도 벼대들은
전설속의 무우처럼 자라리라
프락또르바퀴에 철철 감기며
물노래는 영원히 울리리라

아, 수문을 열며
나는 물만 보내지 않는다
선군시대 크나큰 쌀대문을 연다
이 나라 운명의 문을 열어
온 세상이 부러워 할
쌀과도소리를 더친다

(대각언제우에서)

축복의 미소가 내린다오

차명숙

봄빛이 내리오
내 고향 미남벌에
기쁨을 뿌려 주며 뿌리어 주며...

따사로운 봄빛의 애무에
온 미남벌엔 웃음이 부어 진듯
야산기슭의 선경마을은 꽃동네 꽃동산

새 생의 기쁨속에 한껏 부푼
청춘대지의 푸른 싹들
봄빛을 부여안고 봄빛을 감쌀면서 키돋움하오

대각의 언제에서 태성호로
연연 대지의 생명수되어
거창히 흐르는 저 물결도 유정한 봄노래...

봄
빠알간 머리수건 불길처럼 날리는
속눈썹 예쁜 프락또운전수 저 처녀

장군님께 드리는 충성의 마음을
청춘대지우에 갈아 번지며
이랑이랑 새기여 가는것인가

봄 봄이요 봄의 세계요
왜 아니 봄이겠어요 온 미남벌이 웃는-
이 봄과 같이 사람들도 다 웃는데야

그렇다오 그렇다오
산천도 마음도
꽃처럼 웃는... 꽃처럼 피는 이 봄

내가 안겨 있고
천지개벽된
나의 고향 선경마을도 안겨 있는
개천-태성호물길의 물노래까지도
강성대국 내 조국의 먼 미래까지도
다 안겨 있는...

우리 장군님의 품

그이의 품은
봄, 영원한 봄을 안은 우주라오

봄빛 이 봄빛은
세월속에 전선길 끝도 없이

가꿔 주신-

사랑하는 인민의 기쁨을 안아 보시며
지으시는
그이의 축복의 미소에서 내린다오!...

물마중하네

김근정

땅이 터갈라 진 들판을 보며
물을 달라 비를 달라 두손을 빌며
기우제를 지내던 둥글재언덕에서
온 마을이 떨쳐 나 물마중하네

못 잇을 그 옛날 부모와 함께
어린 가슴 두드리던 좌상로인도
오늘은 맑은 물에 한마음 잠그고
열씨구 절씨구 촉가락에 젖어 있고

아직은 애어린 지리선생처녀도
억만년 마름 없을 물길을 보며
아이들 질문에 대답할 말을
그것을 생각하며 진정 못하고

흐르는 저 물이 내 사랑 같아
넘치는 저 물이 내 행복 같아

청년분조모두가 젊음에 넘쳐
침병침병 물속에 뛰여 들며 웃는

물길은 굽이굽이 400리로 끝났어도
물이 오는 이 길은 사흘길로 끝나도
끝없이 설레이며 새봄이 오네
이삭들이 설레이며 가을이 오네

오는 물 흘러흘러 먼 길 왔어도
힘든줄 모르고 설레이는 물결은
시집 간 딸이 오듯 군대 간 아들 오듯
어쩔줄 모르는 기쁨이런가

물이 오네 물이 오네
장군님 열어 주신 물길을 따라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이 마주 오네
꿈 같은 세월이 반기며 달려 오네

진달래처녀

박상민

미남벌 새 전설을
노래처럼 외우는 처녀
진달래빛 머리수건에 물든 불이
꿈 많은 소녀인듯 귀여운 처녀야

처음엔
들말처럼 소리치며 우들대는
불도젤결에 서기도 무서워 했다더니
제법이구나 덩지 큰 불도젤
부채처럼 나긋이 움직여 가는 모습
장부처럼 미덥고 장하구나

질곡의 진땀으로
호미자루 절구던
할머니의 어제날을 생각하며 한뼘기
한여름 긴긴 해를 삽자루에 걸고

논뚝을 걷던 아버지 생각하며 한뼘기
두렁들을 터쳐 간다는 처녀야

피아노건반우에서 춤 출듯 한 그 손으로
무한궤도의 조종간을 틀어 잡고
지평선 한끝을 바라보는
너의 웃음 비낀 눈동자는
이 땅에 내린 한쌍의 별은 아니던가

달빛 일렁이는 밤이면
그 눈빛 전조등처럼 별을 누비고
비단 같은 마음씨
필필이 이 땅에 퍼놓으며
규격포전 금수 놓듯 꾸며 가는 처녀야

선군의 궤도 따라

행복을 엮어 가는 전설속의 선녀 같은
너는 새땅을 낳는 어머니 같구나
마음이 샘물 같은 너는 우람찬 불도젤로
선군해맞이 교향곡을 연주하는것 같구나

너의 진달래빛 머리수건은
이 대지에 봄빛을 부르는 신호기인듯
사계절 봄이 불 타는 너의 얼굴은

이 별에 솟아 지지 않는 둥근 달인듯

아, 이 땅 이 별의 잠을 깨우는
너의 불도젤동음소리는 봄의 교향곡!
처녀야 너 이 나라 땅크병같이 장한 딸아!
나는 너를 불도젤우에 곱게 피여 난
한떨기 진달래라 부르고 싶구나

(장흥리 미남벌에서)

사회주의선경마을

김승남

내 고향의 아침은 저 언덕에서 밝습니다
장군님 모셨던 영광의 저 자리에서
저 자리를 향해 집집의 창문들은 활짝 열리고
하루일의 맹세를 엮은 첫 걸음도
저곳에서 시작되는 가슴 벅찬 희망의 봉우립니다

밤이면 별들도 잠들지 못합니다
장군님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꺼질줄 모르는 불빛들과 속삭이며
하루일 성차지 않는 마음속에
때없이 우러르는 곳
저 자리는 사랑의 봉우립니다

아, 장군님 오늘도 서계시는듯
하얀 합각지붕 땀이 있게 틀어 올린
아담한 문화주택들을 정겹게 굽어 보시는듯
메탄가스로 밥을 지어 먹는다고
울담엔 과일나무도 많이 심었다고
그날처럼 환한 웃음 지어 보내시는듯

다른 나라 농민들은
저런 집에서 살지 못한다고
얼마나 멋 있는 사회주의선경인가고
그리도 호방하게 하시던 말씀

귀전에 쟁쟁히 올려 오는 곳

전선길에 쌓이신 피로
잠시라도 푸시고 떠났으면 좋으련만
사랑과 믿음만 안겨 주신채
선군의 자옥을 이어 가셨으니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워서
간절하게 안고 사는 삶의 봉우리

깊은 밤 잠에서도 꿈속을 더듬으면
태양은 마음속에 더 밝게 빛납니다
오붓한 밥상에 둘러 앉아도
때식마저 앞에 두고 떠나가신
그이 영상 눈앞에 삼삼히 밝혀 와
심장은 뜨겁게 불 타오릅니다

아, 이 세상 좋은 집은 다 안겨 주시고도
자신께선 사시장철 집을 떠나 사시니
누워도 불편잠 이룰수 없고
하얀 밥도 목이 메여 삼킬수 없는
농민들 사시절 그리움에 젖어 사는
내 고향은 사회주의선경마을입니다

(속천군 장흥리에서)

가사

내 고향의 새 모습

한광우

허리 굽은 땀기논들 어디로 밀려 갔나
꼬장모 내던 일 어디로 사라졌나
봄빛 푸른 새 포전 덕을 보는 새 물길
장군님손길아래 미남벌이 젊어 졌소

네귀 번듯 합각지붕 어디서 옮겨 왔나
발전기 노래소리 어디서 들려 오나

가스난방 새집들 넘쳐 나는 새 불빛
장군님손길아래 미남마을 솟아 났소

사람마다 한번 왔다 못 떠나는 곳이라오
자자손손 만복속에 살고 싶은 곳이라오
태어나는 새 전설 천지개벽 새 모습
장군님손길아래 무릉도원 꽃 피었소

소설에도 음악이 흐른다

리정웅

우리 나라 소설문학사나 세계소설사를 막론하고 성공한 작품들은 레외없이 소설자체내에 음악이 흐르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 흐르는 음악은 작품의 서정미에 귀착된다고 볼수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의 서정성은 대상에 대한 질은 정서적묘사와 주정토로를 통해서도 보장되지만 그보다도 이야기자체가 깊은 정서를 가지고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

소설의 서정미는 바로 깊은 정서적흐름을 가진 이야기와 그에 대한 정서적묘사, 주정토로 및 기타 이여의 요소들로 표현된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 문단에서는 좁과 넓새 그리고 회화와 음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것이리라! 이런 견지에서 소설에도 음악이 흘러야 한다는 우리의 론점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지만 대단히 흥미 있는 문제이며 이미 새 세기의 첫 걸음을 힘 있게 뻗 선군시대 우리 소설문학의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탐구분야가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소설에는 정서적흐름이 있다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 반주가 없이 선율만 들어도 음악의 형상세계에 깊이 잠기고 거기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소설에서 구태여 선율이라고 말할수 있다면 작품의 정서적흐름을 넘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서라는것은 일정한 조건에서 사물현상을 지각하거나 표상할 때 구체적이며 강하게 체험하는 감정으로서 소설에서의 정서적흐름은 이야기줄거리에 정서적인 굴곡을 만들어 놓으면서 독자의 마음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데서 생기게 된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를 놓고 분석해 보기로 하자.

《유난스러운 날씨였다. 봄이면 꽃이 피고 새가 운다지만 이해의 봄은 야단스럽기만 하다. 우르르하고 시꺼먼 구름이 달음박질쳐 오더니 하늘땅이 온통 캄캄해 졌다. 둔덕의 풀밭도 부처산기슭의 나무숲도 막 몸부림을 치며 설레인다. 기르마고개밑 연자방아간에서는 무엇이 와지끈 하고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나고 그옆의 세그루 백양나무는 방금 넘어질듯이 몸을 뒤채더니 마침내 그 우듬지에서 까치둥우리가 허물어져 내렸다.

꼭 접때 별안간에 눈보라가 터치던 그 무서운

날 밤과 같다. 연방 무엇인가 우르르-와-하고 사방에서 무서운 소리를 질러 대는데 그것은 꼭 수많은 수레바퀴떼가 한꺼번에 다리목을 건너 갈때처럼 야단스럽다.》

이렇게 시작된 소설의 이야기흐름을 가만히 음미해 보자. 그러면 저도 몰래 볼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의 선율이 그대의 귀전에, 뇌수에, 심장에 울려 올것이다. 때로는 관현악으로, 때로는 너주인공의 독창으로, 수많은 군중의 합창으로 가슴치며 울려 오는 그 음악은 소설의 뒤부분에 가서 혁명만이 살 길이라고 총 들고 결사전으로 부르는 활화산과 같은 웨침으로 터져 나왔다.

남편에게 왜놈들이 왜 우리 나라에 쳐들어 왔나요? 라고 묻는 순박한 농촌녀성-올남이 어머니가 겪게 되는 사랑과 증오, 아름다움의 생활세부들 속에 우리 민족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흐르고 미풍량속이 있으며 독특한 주인공의 성격적미가 차 넘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울려 오는 그 절통한 정서적흐름은 소설의 매 장면들과 세부마다에 속속들이 숨배여 있는바 그것은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 식 장단이며 조선민족의 정서적흐름이다. 이 흐름은 우리의 작은 가슴에 세차게 파도쳐 밀려 와 삶에로, 투쟁에로, 혁명에로 힘 있게 추동한다.

우리는 석운기의 많은 소설들에서 웅대한 시대정신의 교향곡이 울리는 메아리를 듣는다. 그 격동적인 억양과 화산처럼 분출하는 열정, 높디란 산봉우리의 첩첩에서 번쩍이는 지성세계가 각이한 작품들에서 표현된다.

특히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은 감정정서에 있어서 풍부하고 다양하다. 소설은 전쟁을 겪은 이 나라 사람들이 체험한 모든 감정을 진실하고 깊이 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주도적감정을 훌륭하게 펴나갔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다. 작품의 전반에 관통된 정서적흐름-그것은 사랑과 증오,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의 정서적흐름은 서장과 1편부터4편에 이르는 매 편과 절을 단위로 하여 흐르고 있으며 이것들은 작품의 전반에 관통되어 있다.

석운기-그야말로 세철이와 보패, 전학민과 윤하응을 축으로 한 긍정인물들과 덜레스, 폴드빈, 편을 위시한 미제와 그 추종자들인 민지식과 송경팔, 그들의 후손인 민환규, 송치호 등 부정인물이라는 각이한 악기들로 구성된 언어의 《교향곡》을 창조한 훌륭한 《지휘자》라고 말할수 있다.

최학수의 《평양시간》이나 김보형의 《로동가정》, 정창운의 《포성》과 《습격》, 김삼복의

《세대》와 《향토》, 정성훈의 《메아리》, 최상순의 《느티나무》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김명익의 《이삭은 속삭인다》, 정성훈의 《흐르는 별들》, 최영학의, 《그의 교향곡》과 같은 장중편소설들도 바로 자체의 고유한 정서적흐름을 타고 나갔다는데 대해서도 스쳐 지나지 말아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발표된지 오랜 로정법의 《고향의 모습》을 다시금 펼쳐 보자. 그리고 주인공인 교통보안원 선희와 운전사 박두남을 지켜 보자. 별안간 음악가가 어떤 현악기의 줄을 건드리거나 한것처럼 모 든것이 소리나기 시작하며 내부의 시정, 더 정확 하게는 질은 정서의 흐름-음악이 울린다.

작가는 독자를 자기 주인공의 생활속으로 자신 있게 끌어 넣기때문에 독자는 그들과 생활을 자연스럽게 체험한다. 독자에게는 웃음과 열정, 때로 눈물의 감정도 체현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소설에는 평양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마치 청춘남녀의 순정과도 같이 고상하고 아름답게 넘쳐 흐르고 있다. 마치도 평양에 대한 사랑의 찬가와도 같이.

어떤 요란한 사변이나 사건을 다루지도 않고 한 인간의 운명문제를 론한것도 아닌데 과연 무엇이 이런 감화력을 주었는가?

그것은 소설이 새로운 정서적음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독자들의 감정을 비상이 양양시키고 두드려 댄 작가의 높은 미학적리상이며 예술적기교이다.

그의 소설 《내 고향의 작은 다리》나 《기다리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에서 독자에게 필요한 정서와 기분을 자아내는 그런 리듬과 어휘, 그런 단어의 결합을 발견하고 하나의 정서적흐름으로 관통시키는 이 작가의 기교를 엿볼수 있다.

단편소설들인 김병훈의 《길동무들》과 정창운의 《덕흥나그네》, 백보흠의 《발걸음》, 정기종의 《행진곡 1번》, 안홍운의 《갈도마소리》, 김홍익의 《이 나라 녀인들》 그리고 최근 시기 나온 홍철진의 《옥계천물소리》, 김유권의 《해 저 무는 백사장에서》도 특색 있는 정서적흐름으로써 독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고 있는 작품들이다.

소설의 정서적묘사

소설은 현실생활의 형상재현이며 예술작품이다. 만일 소설에 기필코 음향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정서적묘사로 그려 지는 화폭에서 울리는 소리일것이다.

얼마전 한쪽의 그림을 감상하는데 한 화가가 《회화는 소리 없는 음악이고 음악은 소리 있는 회화》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 주었다.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회화는 화폭에서 음악이 울려 나와야 하며 진정한 음악은 선율에서

화폭이 펼쳐져야 하는것이다.

회화와 음악을 다 내포하고 있는 문학, 그 가운데서도 《왕》이라고 할수 있는 소설 역시 례외로 되지 않는다.

바로 이 회화성과 음악성으로 일관된 묘사가 정서적묘사이다. 소설의 정서적흐름은 이런 정서적묘사에서 울리는 그 음향의 련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까닭에 정서적묘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여된 억양과 색채까지 포괄하며 따라서 여기에는 화폭이외에 물동성이 더 첨부되게 한다. 작가는 자기의 언어에 대하여 높은 탐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매 작품이 새로운 언어를 요구하기때문이다.

소설가 석윤기만 놓고 보더라도 언어구사에 대한 각이한 태도를 볼수 있는바 처녀작단편소설인 《두번째 대답》을 쓰던 때의 언어는 이미 중편소설 《전사들》과 다르며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의 언어는 벌써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것이 아니다.

김병훈 역시 중편소설 《봄소나기》와 장편소설 《불 타는 시절》, 《개이지 않는 하늘》의 언어가 다르다. 그것은 다만 이 작품들이 그 창작의 시간적인 결과에만 리유가 있는것이 아니라 매 작품의 종자 그 자체의 성질에도 있다.

한 작가의 언어에 있어서 그럴진대 매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해서야...

우리의 눈길은 최근에 발표된 홍철진의 단편소설 《옥계천물소리》를 더듬는다.

《전쟁의 포성은 평온하던 옥계리별도 흔들어 놓았다. 사람도 땅도 급작스레 놀래운 주체39(1950)년 6월이었다.》

포성이 옥계리별을 흔든것과 마찬가지로 흔들린 독자의 평온하던 마음은 《사람도 땅도 급작스레 놀래운 ...6월》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벌어질것인가에 깊은 주의를 돌리게 된다.

이것이 작가가 발견한 첫 정서적음향이다.

여기로부터 작가는 처음부터 마감까지 시종일관 이와 같은 독특한 음향의 련속으로 정서적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는바 우리의 마음에 차분히 스며 드는 정서적묘사들을 례증하며 력점을 찍어 본다.

○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내인들속에서 누군가 《무슨 말주변이 저렇게두 없담.》하는 반죽 좋은 소리에 웃음화살들이 련거퍼 서기장에게 날아가 박혔다.

○ 《그 거렁배 같은 놈들은 새각시 태기 가질 짬도 안 준다니까...》

○ 서기장은 졸짱물 퍼내듯 련거퍼 물어 보았다.

○ 땅처럼 무뎠하고 어진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는게 우스운 모양이다.

○ 마을의 집들마다 주인들이 푹팍거리며 전쟁의 먼지를 털어 내는 소리가 어디서나 울렸다.

○ 팔소매를 걷어 올린 아낙네들이 떡처럼 빛
은 흙을 철썩철썩 산자벽에 쥐여 붙이며 남편 맛
을 준비에 성수가 났다.

○ 영웅메달에 맑은 물방울이 또글또글 맺혔
다.

○ 송기덕은 와락와락 물을 차며 옥계천에 들
어 섰다.

○ 송기덕의 집앞에 이르러 동네어른들은 철딱
서니없이 묻어 다니는 아이들을 닭무리 쫓듯 발
을 굴러 엄포를 놓고는...

○ 송기덕에게는 개 짖는 소리마저 고향의 정
서처럼 느껴 졌다.

○ 마라초연기는 늪실늪실 방안을 떠돌며 그간
비였던 남정네의 표적을 잠간사이에 남겨 놓았
다.

○ 쪼르륵-하고 술 붓는 소리가 송기덕의 가슴
을 파고 들었다.

○ 찰랑거리는 요 술속에 조국해방전쟁 3년간
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술에서 눈을 떼
지 못했다.

○ 옥계리가 받아야 할 영웅메달을 자기가 달
고 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 술에 취했고 정에 취했고 승리에 취했다.

○ 송기덕의 곁에는 전쟁 3년간이 담겨 저 있
는 빈 술병이 함께 누워 있었다.

○ 송기덕이 코를 골며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마다 가슴에 단 영웅메달이 함께 호흡하며 오르
내렸다.

지루한가! 아니, 전문을 다 쓴대도 지루감을 느
끼지 못할것이다. 때 문장들이 매번 새라새로운
정서적음향을 불러 일으키기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에서 인용한 문구들을 놓고
작가의 문제 일반론을 말하려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수 있다.

여기서 론하고자 하는것은 소설의 시, 정서적
묘사이다. 이 소설의 언어는 시어이다. 시처럼 말
을 참신하게 하는것은 없다.

시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온만큼 소설가가 소설
을 완성함에 있어서 시, 회화, 음악을 포함한 자
매예술에 대해 화제에 올리는것도 필요하다.

소설가는 시를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

단어는 자주 반복되는데서 자기의 생신성과 힘
과 자체에 가지고 있는 형상성을 파괴한다. 여기
서 작가의 언어는 사라진다. 말에서 다만 음향
하나만, 그 음향의 껍질만 남으며 우리의 의식과
상상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어 마침내는 소멸
하여 버린다.

그러나 시어는 그렇지 않다.

시의 언어는 본래의 생신성과 힘과 음악성을
띤다. 말은 시속에 들어 와 진정한 자기의 내용
을 표현한다.

회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것을 처음 보듯이 보며 관습의 무거운 짐

이 없이 항상 새로운것을 보는 어린 아이들처럼
미술가에 특유한 이 자질은 작가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때 인간의 행동과 말, 몸짓, 호흡 그
리고 때 사물현상들이 새삼스러운 힘과 활력을
띠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시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도
출한다.

그것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그 시인만이
할수 있는 말, 시인이 생활에서 보고 그를 두고
사색하고 느끼고 리해하고 결론했기때문에 그
자신만이 할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있다. 그러되 그 이야기는 시인자신이나 몇몇 사
람이 아니라 광범한 독자들에게 어떤 크고도 의
의 있는 그리고 흥미 있는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옥계천물소리》의 작가가 그전에 자기의 시적
재능을 보여 준 시초 《움직이는 땅》과 시 《어
린이와 묘비》, 《나에게 목숨이 들어있던가》 그
리고 《달리는 울음소리》를 연구해 보면 이에 대
해 더 잘 알수 있다.

이 작가는어느 한 연단에 나서 작가는 쌀이고
편집원은 물이며 그 합이 바로 작품이라는 내용
의 말을 한적이 있다.

우리는 이에 긍정을 표시하되 쌀과 물도 바로
불이 있어야 밥(작품)으로 된다는데 대해 강조하
며 새로운 정서적음향은 바로 그 불(열정)에서부
터 이루어 진다고 덧붙여 말하고 싶다.

임의의 레를 들어 보자. 독자들의 기억속에 오
래오래 살아 있고 우리 문학사의 폐지마다에 빛
나게 장식된 소설들을!

《금수강산을 수 놓는 처녀》로부터 《스물한발
의 포성》에 이르는 한웅빈의 단편소설들도 좋고
《1학년생》과 그 속편인 《따뜻한 도시》에 이르
는 김정의 아동중편소설들도 좋다. 이 소설들의
정서적묘사에서 우리는 음향은 능란한 연주가의
기타소리처럼 얼마나 맑고 청정한가!

그런가 하면 정창운의 《정보로 걸어라》나 안
동춘의 《까툴팔사람》에서 우리는 정서적음향은
저음가수의 서정가요와 같이 얼마나 저력 있고
서정미에 넘치는가!

주정토로도 중요하다

문학작품일반에서 작가자신의 사상감정을 직접
표현한 말이 주정토로이다.

서정시에서는 시인의 주정토로에 의하여 시적
형상이 창조되지만 소설에서는 작품의 이야기흐
름에서 환기된 작가의 사상감정, 작품의 사상적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등 작가자신의 열정
을 사상정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정토로가 울
리게 된다.

그러므로 주정토로는 소설의 이야기흐름에 직
접 관계되지 않지만 인물들의 성격형상과 작품의

사상정서적기백을 돋구는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게 되며 따라서 소설의 서정미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기억에 생생한 김병훈의 《길동무들》과 권정웅의 《백일홍》의 주정토로를 다시 상기해 보자.

지난해에 발표된 편속단편소설 《빈 말은 없다》에서 김병훈의 그러한 열정을 다시금 보게 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사람이 한생을 살아 이처럼 궁지 높고 보람 있는 행복을 맛 볼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입을 열면 그 행복을 흘러 버릴것만 같아 꼭 다물고 가슴속에 다지고 또 다져 넣고 있는것이다. 아 그날에 전사한 전우들이 함께 살아서 **김정일**세기로 시작되는 오늘날실을 잠시라도 볼수 있다면 내 목숨과 바꾸어 주고 싶은 절절한 심정이었다.》

이것은 세련의 단편으로 이어 온 편속단편소설의 최절정에서 울리는 주정토로이다.

옛 전우들과 함께 최고사령부, 당중앙을 우러를 때 울리는 이 주정토로는 그대로 한쪽의 시라고 말할수 있다. 아니 분명코 음악이다. 이미 소설의 전 대목에서 울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서정적선율, 중대장이 《피스톤》을 누르며 나팔통이 통채로 터져 나가게 울리어도 말로는 다 표현할 길 없는 세 전우와 그 후손들의 마음을 풍만하게 그리고 섬세한 색깔까지도 남김없이 울려 주고 있는 소설속의 시, 소설의 음악이다. 우리는 여기서 시에서 시인의 얼굴이 보여야 하듯이 소설에서도 인물의 심리와 작가의 얼굴을 다같이 볼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뜨겁게 감수하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젊었던 그 시절처럼 패기와 정열에 넘쳐 우리 문학대오의 앞장에서 나가는 김병훈과 그 동년배작가들에게 문학후배로서 경의를 표하게 된다.

안동춘의 단편소설 《까툴꿀사람》은 종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특색 있는 구성수법을 리용하여 비전향장기수-엄한규의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 있으나 주정토로를 론하는 이 마당에서는 론조의 굵을 찾아 소설의 대목을 펼친다.

《글을 쓰다가도 뭔가 막히거나 감정이 격할 때면 비록 나이 많은 몸이긴 하지만 그제날 엄한규와 함께 울랐던 관모봉 제일 높은 바위부리에 오르곤 한다. 그곳에서는 백두산이 보인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디서나 백두산이 보이지만 이곳에서는 마음으로부터 아니라 눈으로도 보게 된다.

희스름한 구름에 휘감겨 언제나 순결과 지조의 상징처럼 보이는 희디흰 백두산, 엄한규는 밤이고 낮이고 백두산을 보았을것이다. 그리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그리운 장군님을...

무엇이 그를 영웅으로 되게 하였는가.

엄한규는 까툴꿀사람들의 인정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인정을 새겼기에 그는 세월이라는 녀자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

엄한규는 언제 한번 백두산3대장군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김정숙어머님과 우리 장군님을 만나뵈온것은 불과 반시간도 채 못된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받아 안은 사랑이 반세기 넘는 동안에도 꺼질줄 모르는 불길로 심장을 덥혔으니 그는 인간중의 인간 영웅중의 영웅으로 되었고 영생의 삶을 얻게 된것이다.

심장이 제일 즐겨 받아 들이는것은 사랑이다.

조용히 산길을 내릴 때면 나는 세월이와의 상봉을 즐겨 그려본다. 세월은 통일되는 날 남편의 유골을 가져다 이 까툴꿀에 안치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만날가. 그날은 언제이고.

하지만 반드시 만나게 될것이라는데 대해서만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덕정치의 따사로운 빛발은 동서남북 어디나없이 비쳐 가는것이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비교적 길게 인용한 우의 레문을 탓하지 마시라!

앞에서 인용한 김병훈의 주정토로에 비하여 근육 보다도 지방이 더 많아 보이는, 어찌 보면 좀 처진감까지 드는 이 레문속에서 우리가 살펴 봐야 할것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오래동안 안동춘의 소설들을 주시하며 이 작가가 자기의 소설들이 독자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온데 대해 깊은 주의를 돌리었다.

그 기본요인은 이 작가의 감각화된 묘사와 함께 정서적색채로서 특징 지어 지는바 특히 소설에서 주정토로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그의 작가적인 미학적 지향에서 한계단 더 높은 발전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더 말하지 않아도 우의 방점에서 작가의 시적인 주정토로에서 울린 음악적흐름을 감수하리라고 본다.

최근 우리 독자들의 미학적리상은 비할바없이 높아 졌다.

종전에 주목시키던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사건)뿐아니라 그로부터 울리는 정서적음향, 특히 작가의 주정토로에도 각근한 주의를 돌리는 독자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 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정토로가 작품의 내용에 맞는 작가자신의 높은 미학적리상을 담으며 독자들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진실하고 생동한 음악으로 울리게 될 때 진실로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리듬과 색채

노을이 불 타네 해 저무는 백사장에

정답게 흐르는 처녀들의 노래소리

...

지난 세기 70년대에 우리는 이 노래를 너무도 귀에 정히 익히었고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새로운 감정으로 이 노래를 불러 본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노래를 상으로 잡고 쓴 김유권의 단편소설 《해 저무는 백사장에서》가 안겨준 정서이다.

그렇다! 작가는 자기의 호흡과 억양은 물론이고 생활에서 감득한 제나름의 선율과 함께 리듬과 색채(왜냐면 소리에 색갈이 있기에)를 두고 사색한다. 자기가 쓰려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줄거리와 주인공의 성격속에서 음악적인 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선율과 리듬 그리고 색채를 포착했을 때 비로소 작가는 안심하고 붓을 들어 써내려 갈수 있는것이다.

확실히 작가 김유권은 이전 시기 단편소설 《고향》을 쓸 때보다 한계단 더 도약하여 능숙하게 이 노래의 리듬에 맞춰 소설의 정서적색채를 더해 주었다.

자기가 선택한 작품의 음악적상을 우리 인민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 의탁한 작가의 기교에 대하여 우리는 값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도 자기 개성의 리듬을 타고 나간 작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경탄한다.

사전적해석에 의하면 음악에서는 리듬이라는 말이 일정한 속도와 박자속에서 음률이 갖가지 형태로 어우러져 흘러 갈 때 그 흐름의 길고 짧은 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며 보통 생활현상에서는 리듬이라는 말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운동현상, 혹은 사상감정을 표현하는데 쓰이면서 정서적흐름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소설문단을 둘러 보면...

새롭게 발견된 일정한 상도 없이 신문기사처럼 논리에 매달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전달자적 역할밖에 못하는 소설들이 더러 눈에 띄운다.

단편소설들인 《주로우에 새긴 자옥》(강성일), 《함께 가는 길》(공천영), 《로양》(라광철), 《한녀교원에 대한 추억》(리경명) 등의 작품들은 아무런 정서적계기도 포착하지 않고 그저 이야기거리를 전개하는데 몰두하면서 장면장면의 타당성과 진실성만 운운하며 늘어 쓴게 확연히 알린다. 그러다나니 정서의 흐름이 통일되고 감정이 승화되기는커녕 예술적감흥을 크게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단편소설들인 《해후》(강귀미)와 《푸른 하늘》(윤경수)을 놓고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조선문학》 주체90년 9호에 실린 상반년도 단편소설에 대한 평론에서는 소설의 형상기교가 높지 못하고 생활소재가 새롭지 못한데 대해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컨대 어떤 작품은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가 조국에 와서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류형적으로 쓰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자기의 몫이 크지 못하면 첫 시작만 보아도 그 끝이 뻔드름하게 보이는 법이다.》

이미 이 두 소설을 두고 쓴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푸른 하늘》은 하반년도에 나온것이지만) 아주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것은 비록 소재가 어긋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종자와 주인공의 성격을 발견한 기초우에서 작가가 자기의 개성적인 정서적 묘사로 음향을 일으키며 그 정서적흐름으로 작품의 이야기를 타고 나갔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다.

단편소설 《다섯번째 사진》(림화원)을 놓고도 말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특이한 생활을 취급한것으로 해서 비교적 읽히우는 이 소설에 대해서 평단이 일언반구 없는가를 작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응당 이 소설을 올렸어야 할 레의 평론에서는 《앞으로 소설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단편소설일반(《조선문학》에 실린 나머지 소설 포함)의 중요한 부족점을 찾아 본다면 희귀한 생활에 매혹되어 그 어떤 추리소설(이 작품의 한구절)을 쓰듯이 사건일면을 추구해 나가고 그로부터 환기되는 정서적흐름을 도외시한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1인칭소설로서 까짜와 그 일가의 체험을 통해 《죄 많은 고르바초브, 엘찐시대》의 저주로운 감정과 이를 투시하는 진옥부인(1인칭당사자)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의 정서를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며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펴나갔더라면 아마 지금보다는 독자들에게 훨씬 감흥을 줄수 있었을것이다.

이러한 허점들이 나타나게 된것은 한마디로 작가가 소설을 쓸 때 이야기줄거리를 진실성과 타당성만 생각하며 펴나감으로써 정서의 흐름을 외면한데 있다고 본다.

진실성과 타당성문제도 중요한것만큼 그것을 보장하면서도 정서의 흐름을 견지하는데 작가의 재능이 있고 그런 작품만이 독자들을 무한한 견인력으로 끌어 당길수 있는것이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정서보다는 사상이 투철해야지.》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상의 옷을 입지 못한 사상은 문학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제에 대해 상기시켜 주고 싶다.

형상의 옷이란 곧 예술적감각화이며 그것은 정서의 흐름으로 표현된다고 볼 때 소설에도 음악이 흐른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

훌륭한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할줄 아는 그 사람 역시 훌륭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훌륭한 독자들에게 훌륭한 소설을 감상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소설가-우리 작가들에게

있다는것을 명심하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소설의 정서적 흐름-음악성이 사상을 위해 필요하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하여 사상에 대해 강조하려는것은 아니다.

소설이 감각적으로 되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흥을 배태하려면 애당초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그렇게 돼먹어야지 장면묘사나 심리묘사 몇군데를 감각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작가는 새 세기의 사상미학적요구를 구현한 알맹이-새롭고 특색 있는 종자를 잡았을 때 자신도 믿지 못할만큼 놀라운 정열이 생기며 그 왕성한 호흡에 의해 비로소 남들이 아직 울리지 못한 정서적흐름을 감득하고 전혀 독특한 정서적음향을 포착하는것이며 리듬과 색채까지 능숙하게 구사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울리는 소설의 음악은 사람들의 청각은 물론 폐부와 심장에까지 어느 한가락도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스며 들게 되리라!

우리 소설가들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높이와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위력한 무기, 강성대국건설의 강력한 추동력, 풍만한 정서로 선군시대를 꽃 피우는 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선군소설문단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선군시대 우리 소설문학은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작가들이 리기영, 천세봉, 석운기와 같은 판록 있는 작가로 불리우기를 바란다.

작가들이여, 자신들이 쓰는 소설에 풍만한 정서세계를 담은 특색 있는 음악이 흐르게 하자!

그리하여 그대들의 소설에서 울리는 음악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아침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입에서, 아직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늘 관심을 두는 주부들의 입에서 위대한 선군정치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노래로 불리워 지게 하자!

제대되던 날

강옥녀

한품에 썩근썩근 자식을 안아
도닥이며 안아 주신 어머니의 팔
군복 입고 초소에서 어느 한시도
잊은적 없었던 어머니 그 품
어머니는 두팔을 벌리고 마중 오시네
제대된 아들을 마중 오시네

당지 큰 아들을 얼싸안기엔
어머니 두팔이 얹힐 모자라
어머니보다 훨씬 키가 큰

장군님병사를 한품에 어찌 안을가
군모를 벗어 쥐고 아들은 달려 오네
동쪽을 가로 질러 달리여 오네

어머니앞에 마주 선 순간
두무릎 꿇쩍 땅에 댄 아들
일곱살 그 나이로 키를 꺾어서
어머니 두팔에 척 안겼네
어머니 쓸어 주던 그날의 더벅머리
보고 싶던 가슴에 꼭 박았네

가사

어머니는 영웅이 되었다네

전완식

처녀시절 군복은 벗은지 오랫동안도
어머니는 그날처럼 병사들과 함께 사네
한생토록 원군길 걷고 걷는 어머니
장군님 아시는 영웅이 되었다네
라 원군길에 영웅이 되었다네

언제 한번 젖은 손 마를새 있었으랴
하루인들 초소를 떠난적 있었으랴
마음속에 총대를 안고 사는 어머니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이 되었다네
라 원군길에 영웅이 되었다네

어머니는 오늘도 병사들과 한식술
아들딸이 많아서 기쁨도 많다네
장군님의 전선길 따라 걷는 어머니
선군시대 빛내는 영웅이 되었다네
라 원군길에 영웅이 되었다네

옛 병사시절에 대한 추억

오영재

작별

소년의 때를 채 벗지 못한
열여섯 어린 시절에 나는
남해바다에서
의용군으로 총을 메고
어려운 싸움길에 들어 섰던 몸

진공과 적후의 준엄한 불비속에서
언제 한번 제 얼굴 비취 본적 있었던가
그런 째인들 없었고
나에겐 또한 한조각 거울도 없었으니

50년 12월에 평양을 해방하고
며칠간 휴식을 얻게 되었을 때에야
나는 내가 든 동녀맹위원장집
옷방의 바람벽에 걸려 있는
폭풍에 반나마 깨여 진 쪽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처음 비취 보았다

숨털이 보시시켰던
내 얼굴은 어디 가고
웬 낯 선 청년이 넌 누구냐듯
의문을 가득 품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돌아 났는가
거뭇거뭇한 수염들
없어야 할것이 생겨 난듯
그 수염을 허거프게 쓸어 보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나니
아 이젠 가버렸구나 영영
나의 소년시절이

포사격이 몇자
총탄을 쏘아 대며
나에게로 향해 오는
검은 물체들
진주 함안계선에서 내가 맞이한 첫 전투

무섭다
가슴이 후두둑 뼉다

어데까지 따라 왔느냐
홍안의 그 소년은
적과의 접전으로 귀뿌리가 따갑던
락동강의 그 모래언덕까지였더냐
태백산줄기를 넘을 때
잠시 배낭에 기대여 쪽잠에 들던
그 락엽지던 산마루까지였더냐
아니면 적후제2전선활동으로
양구를 해방하던 서리 낀 그 아침이었더냐

이제는 내가 올 길은 다 왔다고
청년기의 문턱으로 나를 넘겨 주며
부디 잘 가라
멈춰 서서 석별의 손을 흔들며
포연 덮인 산야에 홀어 저 간
그 지점이 분명 있었으련만
모르고 왔구나
사랑스런 소년아

불현듯 내 두볼로 눈물이 흘러 내렸거니
내 지금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알수 없어라
기뻐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닌 그 눈물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눈물이였을가

인사도 없이 보내고만
그 소년에 대한 죄스러운 생각에서였던지
아니면 성스러운 조국수호전에서
총을 메고 철들어 청춘기를 맞은
그것이 그리도 보람 높아서였던지...

첫 전투

총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이미 나는 죽은 몸이다

소대장의 사격구령소리가 울린다
나는 나에게로 곧바로 달려 드는
검은 물체를 조문 조성우에 놓고

방아쇠를 당긴다

어깨를 치는 총탄관의 충격과 함께
검은 물체-적은 쓰러진다
런거퍼 또 다른 물체를 조준하여
당기고 당기는 방아쇠...

불이 인 눈길과 눈길의 부딪침
생명과 생명
죽음과 죽음의 대결
원쑤가 나를 죽이려 달려 들기에
내가 먼저 원쑤를 쏜것이다

어린 시절 패를 갈라 벌리는
이것은 전쟁유희가 아니다
무대에서 쓰러진 배우가
막이 닫히면 털고 일어 나는
그런 연극도 영화도 아니다

통담도 없고 속임수도 없는
이것은 전쟁이다
죽으면 지고
살면 이기는
죽음과 삶이 엉켜서 덩구는
판가리 결전의 소용돌이다

×

나는 이날까지
토끼 한마리 제손으로 죽여 본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각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물체의 생명을 끊고 있다

이것은 사냥도 아니고 도살도 아니다
그것에는 적의가 없지만
이 시각 나의 온몸은
적의와 증오심으로 끓고 있다
하여 나의 이 행위는
물리적인것이 아니라 정신의 행위이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을 덮고 넘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을 죽일것이기애
내 조국땅을 징 박은 그 군화로 짓밟겠것이기애
나는 원쑤를 도살이 아니라 처단하는것이다
바다 건너 달려 든 원쑤를 징벌하는것이다

이 고지우에서
네놈과 나는 결코 1대 1이 아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네놈은 아메리카합중국
나는 신성한 내 조국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들과 인민의 이름으로
백년숙적인 미제를 소탕하고 있는것이다

아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
락동강계선에서의 전투
어깨에 건장을 달고 군모를 썼다고
다 병사일것인가
나는 이 전투의 세례를 받고
부모형제의 피를 보았기에
원쑤를 죽여야 하는
조선인민군 병사가 되었다

전쟁 1,000 여일

전쟁의 날에 병사가 되어
총과 인연을 맺으니
나의 길은
자욱자욱 죽음을 밟고 가는
처절한 싸움의 길

삶을 아껴
그것을 몸에 불안고 얹드려 있으면
비겁한 자
생명을 우박치는 탄우속에 던져 버리면
용감해 지는 병사의 길

적의 총탄은 그 무엇도 가릴줄 몰라
비겁해서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용감해서 탄환이 피해 간 사람도 있거니
그날의 병사들 그 누구인들

이 전쟁에서 자기가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장담한 사람이 있었던가

50여년 세월이 흘러
내 그 나날을 돌이켜 보니
죽음의 령하 100도로부터
삶의 1,000도 고열속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며 버리어 놓은
병사의 몸은 강철의 덩어리

그날엔 너무도 애젊은 병사의 몸에
전쟁 1,000여일은
얼마나 큰 인간의 무게를 지니게 해주었던가
평범하게 산다면 한생토록 다 터득 못할
얼마나 심오한 인생의 철학을 안겨 주었던가

녀병사들(1)

격전이 벌어 진 고지우
부상병을 응급처치하던
위생병치너
적탄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다섯번째로 적들을 물리친 고지우에
그는 자는듯이 누워 있었고
우리는 공병삽으로 땅을 팠다

전호에서 전호로
제비처럼 날아 다니며
부상병들을 찾던 치너
서울의 숙명고녀를 다니다 나왔다는
말씨도 상냥하고 부드럽던 치너

병사들 누구 하나 말이 없었고
피발이 선 눈들은 묻고 있었다
-누가 죽었느냐

어느 봄이 죽었느냐

...내 홀어 진 가족친척방문단으로
서울에 가서
빠스에 몸을 싣고 거리를 달릴 때
문득 그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거니

어대냐
그가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골목은
녀학생교복을 입고
동무들과 천진하게 웃으며 걸던 그 길은

그렇게 부드럽고 곱던
아 50여년전 녀병사
우리를 없애려고
원췌가 도발한 전쟁은
그를 어디에 묻히게 하였는가

녀병사들(2)

내가 중상을 입고
련대에서 사단군의소로 후송되어 갈 때
나의 담가를 들고 가던
두 처녀간호원

앞에서 뒤에서 쉼근거리던
그 가쁜 숨소리
고개마루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가까이에서 터진 포탄

폭풍에 두 처녀는 쓰러지고
땅을 찢는 충격
숨이 넘어 같듯 한 아픔으로 하여
나는 소리쳤다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황황히 일어 나
아픔에 흘리는 내 눈물을 닦아 주던
두쌍의 검은 눈동자
-환자동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먹이던 그 목소리

숨털이 돋은 하얀 볼우에
흘러 내린 단발머리 단발머리...

고향도 이름도 나이도 알수 없는
두 처녀간호원
집에 있을 땐
작은 물동이도 들지 못하게 했을 처녀들

그 무슨 인연이 있어
나의 생명을 지켜 주려
이름도 모를 작은 고개길을 뚫고 있는것인가
아, 고마운 그들에게
내 왜 소리치며
아픔의 눈물을 보였던가

그 어리광을
그처럼 너그럽게 받아 주며
진심으로 나에게 사죄하던 그들
전쟁은 순간에 그들을 어머니로 되게 했던가
아, 단발머리 내 어머니들...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내 전쟁을 겪어 본 사람이기에
바라지 않노라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들쭉쭉 지는것을

얼마나 많은 생명을
전쟁은 앗아 갔던가
얼마나 많은 집을 불 태우고

아름다운 이 강토를 파헤쳐 놓았던가

50여년 세월이 흘러
눈에 보이는 그 흔적은 지워 졌다 해도
사람들 가슴에 남은 보이지 않는 그 상처는
그 무엇으로 지울수 있을것인가

지금도 미제의 총구가

독사의 눈알처럼 우리를 겨누고 있어
그 몇번이나 내 조국강토가
또다시 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릴번 했던가

그때마다 우리가 막아 놓은 아찔한 칼벼랑밑에서
미제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나니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인민을 구원하고
삼천리강토를 구원하신분은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그이의 위대한 선군이여라

이 선군의 칼벼랑에 부딪치면
피를 즐기는 자
제놈이 흘리는 피속에 묻히리

민족음식

불을 즐기는 자
제놈이 지른 불속에 타죽으리

바라지 않노라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가 들썩워 지는것을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하나 구걸하지는 않노라

하기에 우리는
반미의 기세높이
지켜 간다
받들어 간다
우리 장군님의 고맙고 위대한 선군을!

장

장은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료품이다. 그것은 장이 직접 부식물로 리용될뿐아니라 부식물의 맛을 돋구어 주는 주원료이기 때문이다.

장 특히 간장은 음식물의 간을 맞추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료품으로서 장맛이 어떠한가에 따라 음식물의 맛이 좌우된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해마다 장을 정성 들여 담그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장맛이 음식맛을 좌우하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장을 맛있게 담그지 못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지어로인들은 장을 담글 때 집식구들이 나들이를 가면 장맛이 나들이 가는 집으로 따라 간다고 하면서 나들이 가는것을 막기까지 하였다.

콩의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 장을 만들어 온 력사는 매우 오래다.

장은 대체로 음력 정월 우수 또는 음력 10월 립동월에 담그었는데 그것은 이 시기에 장을 담그면 변질되지 않고 잘 익었기 때문이다.

장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담그었다.

콩을 하루쯤 불구어 큰 가마에서 충분히 익혀 방아나 절구에 찧는다. 이것을 둥글게 빻어 단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 메주를 비짚에 싸서 두석달 잘 말려서 굳어 지면 물에 깨끗이 씻어 독에 넣는다. 이때 독밑에 숯불을 피워 놓고 꿀을 조금 넣어 타는 냄새가 날 때 메주를 넣는다. 소금물을 타서 독에 가득히 붓는다. 매일 이른새벽이면 반드시 장독뚜껑을 열어 맑은 공기를 쏘이고 아침해빛을 쬌으며 맑은 물로 장독걸을 깨끗이 닦아 낸다. 이것은 장이 익는 과정에 변질되지 않게 하며 나쁜 균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였다.

이렇게 담근 메주에서 두달쯤 지나면 맛이 우러나면서 까만 빛갈의 물이 생기는데 이 물을 졸이면 간장이 된다. 간장 만들고 남은것에 메주 부스러뜨린것을 소금물에 담그어 삭히면 된장이 된다.

식생활에서 간장은 주로 조미료로, 된장과 고추장은 부식물로 많이 리용되였다.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된장에는 담복장, 고기장, 폐장,

청대장이 있으며 고추장에는 뽕쌀고추장, 찹쌀고추장, 보리고추장, 팔고추장, 약고추장, 떡고추장 등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그 집 음식맛은 장맛이라고 일러왔으며 녀성들의 일솜씨와 재주도 바느질, 부엌일과 함께 장담그는 솜씨를 가지고 평가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장은 오래 묵여 둘수록 더 맛 있다고 하여 한두해 또는 그 이상 저장해두고 일상적으로 리용하였다.

장과 관련한 속담 몇가지

- 장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말라.
-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다.
- 말 많은 집에 장이 쓰다
- 그 집 장 한독을 다 먹어 보아야 그 집 일을 잘 안다.
- 구태기 무서워 장 못 담글가.
-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 뚝배기 봐서는 장맛이 달다.
- 콩으로 메주를 쏘대도 끝이 듣지 않는다.

외국소설문학의 발생발전에 대하여

리동성

1. 《로맨》

일부 연구자들은 소설의 발생을 고대 그리스, 로마의 《로맨》에서 찾고 있다. 《로맨》이란 대체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수다한 모험을 거쳐 결말에서 행복을 찾는 형식으로 씌여 진 연애모험이야기를 가리켰는데 이런 작가들을 《엘로디고이》 즉 연애이야기작가라고 불렀다.

《로맨》은 1세기 후반기부터 4세기 사이에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작품들의 무대는 대단히 넓어 동지중해지역으로부터 근동에까지 미치었으며 때로는 여행모험담을 펼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주인공들의 운명도 매우 극적이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랜 그리스 《로맨》은 카리톤(1~2세기)의 역사이야기 《카일레아스와 카릴로에의 이야기》이다. 카리톤은 소아시아의 서남부 갈리아의 아프로디시아스에서 태어나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은 유명한 슈라크사의 정치가 헤르모크라테스의 딸 카릴로에와 카일레아스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 일종의 역사이야기였다.

카리톤의 뒤를 이어 롱고스(3세기경)가 전원목가적인 생활을 배경으로 한 목가적연애이야기 《다프니스와 클로에의 이야기》를 썼다. 소아시아의 서북부 레스보스섬에서 태어난 롱고스는 다른

고대이야기들과는 달리 전원생활과 목가적풍경 묘사를 밀접히 결부시켜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해냄과 동시에 소설특유의 극적인 변화도 결합시켜 이야기를 짜나갔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줄거리가 소박한 자연묘사와 잘 융합된것으로 하여 독자들을 크게 매혹시켰고 후세 문예부흥기의 시, 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이 류형의 작품에서 절정을 이루는것은 헬리오도로스(3세기)의 《에티오피아이야기》이다. 헬리오도로스는 수리아의 에페소에서 태어나 《에티오피아이야기》(일명 《다게네스와 카리글레이야 이야기》)를 쓰고 용약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복잡한 사건들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사건과 인물을 잘 통일시키고 정신적, 역사적, 지리적흥미를 동반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을 끌어 당겼으며 수법에서도 당시 작품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되어 16세기 소설과 희곡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4세기의 마지막작가로 인정되는 아킬레우스 타티오스(300년경)는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출신으로서 《레우기페와 클레이드폰의 이야기》를 썼다.

이 작품은 이른바 연애소설이라고 할수 있는것으로서 구성이 몹시 산만하고 언어도 주제를 벗

어 난 퇴폐한 묘사를 람용한것이였으나 생생한 문체와 우수한 묘사로 하여 후세에 널리 읽혔다. 줄거리구성에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언어에서 일종의 매력을 가진 개성 있는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B. C. 3세기이후 헬레니즘의 일환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로마문학에서도 《로맨》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성과에 토대하여 1세기에는 페트로니우스(?-65년)의 장편이야기 《사튀리곤》이 출현하였다. 16세기이후 각국에 유행되었던 악당소설의 시조라고도 평가되고 있는 장편이야기 《사튀리곤》은 오늘날에 와서 그 일부분이 전해 지는데 불과하지만 남이탈리아를 무대로 하여 사랑하는 세 청년의 방랑과정을 그리면서 각 부분에 운문을 배합한것과 함께 당시의 생활용어, 세속어까지 자유로이 구사하여 그리고 예리한 관찰과 풍부한 기지, 라블레몽의 풍차해학, 사회의 리면에 대한 충실한 사실주의적묘사로 하여 특색 있는 풍자이야기로 평가되고 있다.

페트로니우스의 작품에서는 특히 네로를 원형으로 했다고 보아 지는 《트리마르키오의 향연》과 녀성의 방탕을 풍자한 《에펜스의 창부》 등이 유명하며 그중 《에펜스의 창부》는 중세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각색취급되었다. 또한 작품들속에 자주 보이는 문학비평은 18세기의 영국시인 포프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페트로니우스 이후 또한 아플레이우스(123년경-?)도 자서전적이야기 《변명》을 창작하여 이름을 날렸다. 그의 작품으로는 《변명》외에 후시기의 변론을 수록한 《미문구집》이 잘 알려 지고 있으며 라틴어로 쓴 고대의 유일한 소설 《메타모로포세스》(《변신이야기》 또는 《황금하늘소》라고도 알려 진다)가 특히 유명하게 전해 지고 있다. 《황금하늘소》는 전 세상에서 만들어 진 인간이 하늘소로 변하여 이리저리한 체험을 겪는

《하늘소 루키우스》설화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여러 일화와 윤색을 더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풍부한 사실주의적미와 풍자적인 색채 그리고 극적인 변화와 일종의 호색적인 요소로 하여 후세문학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중의 긴 이야기로 알려 지는 《에펜스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문예부흥기의 《데까메론》과 《캔터베리이야기》에 그대로 나타났다.

주인공이 마술에 대한 흥미로부터 올빼미로 될 번 했다가 하늘소로 되어 산적의 손에 들어 가

이러저러한 고역을 치른후 결국에는 사람의 말을 하는 하늘소로 되어 세상구경을 나갔다가 마침내 이시스녀신의 혜택을 입어 인간으로 돌아 간다. 여기에는 사랑과 평혼의 이야기도 있고 결합을 범한 사람이 속죄하는 결말도 있으며 천상에서 평혼과 다시 만나는 우화도 들어 있다.

이처럼 소설의 발생을 고대 그리스, 로마의 《로맨》에서 찾는 견해는 일정한 자료적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로맨》을 정식 소설이라고 보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아직 더 해명을 보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이야기줄거리는 사건전달식이나 기록식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허구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성격위주가 아니라 신비적요소나 경이담을 보여 주는데 그치고 있다.

2. 《로만스》와 《노벨라》

중세유럽에서 발생한 《로만스》와 《노벨라》도 현 시기 연구자들에 의해 소설발생의 출발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로만스》란 사랑과 싸움을 주제로 한 중세기사 이야기를 가리켰는데 로만스라는 말은 원래 귀족 지식계급속에서 쓰이던 라틴어에 대비하여 토착어인 로만스어로 씌여 진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후에 와서 기사도와 궁정련애를 묘사한 이야기의 명칭으로 되어 버렸다.

중세에 유럽나라들에는 《아더왕전설》, 《지그 프리드전설》을 비롯한 많은 로만스작품들이 있었다. 에스빠냐의 셰르반페스는 이러한 《로만스》 즉 기사소설을 읽고 미쳐 버린 돈 끼호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당시 에스빠냐의 사회적배경과 인물들을 그려 낸 유명한 소설 《돈 끼호떼》를 창작하였는데 이것은 《로만스》로부터 소설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 하나의 실례라고도 할수 있다.

이 소설은 일종의 권력소설이기도 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악당소설형식을 갖춘 소설이라고도 볼수 있다. 에스빠냐에서는 이미 1554년에 대표적인 악당소설 《라싸릴리요 데돌메스의 생애》가 나와 권력모험소설의 형식을 확립했는데 《돈 끼호떼》는 그 연장선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소설의 또 하나의 원천은 이탈리아의 《노벨라》라고 부르던 설화체통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다. 프랑스의 《파블리오》도 이와 유사하다. 《노벨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1353년)이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들을 하나로 묶은 이야기집이면서도 복합소설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죠프리 초서도 《로만스》계통의 작품과 《노벨라》계통의 작품을 썼다. 《로만스》계통의 작품으로는 남유럽의 문학적영향을 받아 창작한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아다》(1380년~1386년)이며

《노벨라》계통의 작품으로는 《켄터베리 이야기》(1393년~1400년)이다.

《로만스》와 《노벨라》의 출현은 도시민들의 미학적요구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허식적이며 운물적인 형식에서 기쁨을 찾던 귀족들과는 달리 도시민들은 일상생활의 구체성과 세속에서 기쁨을 찾았으며 도시민들의 이러한 미학적요구로부터 《로만스》와 《노벨라》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작품들은 주로 도시의 네거리에서 한사람이 이야기하는것을 또는 한사람이 읽는것을 여러사람들이 둘러 서서 듣는 형태로 창작되었다가 14~15세기 활자인쇄가 일반화되면서 책으로 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확연히 운물보다도 구체적인 묘사가, 영웅적인것보다 일반인간들의 생활의 고뇌와 번민, 즐거움이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 당겼고 하여 점차 소설이 독자들을 확대함과 동시에 서사시나 음유시인들을 쫓아 내고 예술의 제왕권을 행사하는데 이르기까지 되었다.

이야기의 구성은 한개 장소에 많은 인물들을 모아 놓고 교대로 이야기를 시키는 방법과 악당소설과 같이 하나의 줄거리속에서 주인공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면서 변하는 사건과 생활을 묘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데카메론》과 《켄터베리 이야기》가 전자의 대표작이라면 《라싸릴리요 데 돌메스의 생애》와 《돈 끼호떼》는 후자의 대표작이었다.

이 두가지 소설형식에 비유되는것이 또한 14세기부터 16세기경에 나온 《천하루밤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다. 이 작품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그 인물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 그속에 낀 이야기를 포함하는 세포분렬형식을 취하였다.

이 형식이 후에 발자크의 《인간희극》과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같은 대교향악적구조의 작품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로만스》와 《노벨라》가 시극이나 서사시에 비해 생활을 자유롭게 묘사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는 참다운 사실주의소설과는 먼 거리에 있다고 볼수 있다.

생활을 생활자체의 방식으로 진실하게 그리는 진정한 첫 사실주의소설은 이로부터 근 300년후에 창작된 영국의 소설가 데포가 쓴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1719년)이다. 이 소설은 그야말로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땅을 일구고 종자를 보존하고 빵을 굽고 양을 길 들이는 등 현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근대의 사실주의소설이다.

데포의 뒤를 이어 1740년에 쎄뮤엘 리처드슨이 서한체소설 《파밀라》를 내놓았다. 작품은 생활자체의 방식으로 주인공인 녀승과 젊은 주인공과의 사랑과 결혼을 묘사하여 일정한 평가를 받았

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비진실성과 위선성으로 하여 비난도 적지 않게 받았다. 이 소설을 비판적으로 본 헨리 필딩은 소설 《톰 존즈》(1749년)를 써서 진정한 사실주의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작품은 교아인 톰과 그의 애인 소피아와의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곡절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 낸것으로 하여 근대소설의 표본으로까지 내세워 지게 되었다. 후에 샤펜디나 엘리엇까지도 이 소설을 모방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주의에 충실했다. 디켄스나 발자크의 출현도 어찌 보면 이 소설에서 원류를 찾을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근대적인 소설이 발전하였다. 《우아한 문학》계통의 궁정문학과 같은 선상에서 궁정소설의 일종으로 발생한 심리추구소설이 그 기본형식이었는데 대표작은 라 파에트부인의 소설 《글레브의 심방》(1678년)이었다. 이 작품은 인간심리의 변화를 매우 상세히 묘사한것으로 하여 그후 심리추구소설의 첫 작품으로 내세워 졌다.

이어 이 류형의 소설은 19세기에 이르자 유럽 각국에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스탕달의 《붉은것과 검은것》이 그 대표작이며 이어 콩스탕의 《아돌프》, 라글로의 《위험한 관계》 등이 나왔고 영국에서는 메레디스의 《에고이스트》 등이 창작되었다.

그후 이 여러가지 경향의 수법을 종합하여 인간사회와 생활을 전체로서 묘사한 발자크가 등장했고 그의 장편소설 《인간희극》은 단편의 서사시 《신품》에 대비되어 높이 평가되었다. 유럽소설은 플로베르의 출현이후 그 형상수법이 보다 깊이 추구되었다. 플로베르는 《가능한것 진실을 발굴하여》, 《하나의 대상을 묘사하는데는 하나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엄정한 사실주의를 지향하면서 장편소설 《보바리부인》과 같은 사실주의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소설의 수법은 점차 인간의 내면세계의 묘사에로 돌려져 심리묘사수법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 경향은 20세기에 들어와 더 강화되었는데 아일랜드의 조이스는 《율리시스》를, 프랑스의 뷔르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의 탐색》을 비롯한 심리추구를 기본으로 한 소설들을 써냈으며 아메리카의 포크너도 이러한 창작경향으로 나갔다. 그러나 이들의 창작은 지나친 심리추구로 하여 오히려 사실주의에서 벗어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실주의에서 탈선되지 않고 이 경향에서 작품을 창작하여 성공한것은 로씨야의 레브 톨스토이이며 그의 대표작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는 사실주의와 심리주의가 균형있게 잘 결합된것으로 하여 후세문학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동시대인 도스토옙스키도 《까라마로브형제들》과 같은 작품을 썼으나 인간존재의 비합리성에 대한 지나친 심리추구로 하여 오히려 사실주의에서 벗어 나는 길로 나갔다.

심리추구는 어디까지나 생활의 본질과 성격의 본질을 밝히는데 복종되어야 하며 이를 배제한 심리 그자체의 추구는 무의미할뿐아니라 나아가서 사실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조이스나 뷔르스트 그리고 도이칠란드의 까뻬까 등의 창작은 심리추구일면에 치중하여 결국 사실주의를 안개속에 묻어 버렸다.

3. 현대소설

방법의 중시 그리고 내면으로의 침투 이 두가지 점이 현재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대소설의 발전추세이다. 그러나 뷔르스트, 조이스 등의 창작은 일찍부터 사실주의의 계선을 넘어 서서 그것을 파괴하는 길로 나갔으며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후부터 반사실주의소설을 구축하는데로 떨어 졌다. 즉 1950년대 부터 1960년대에 걸쳐 신소설의 영향밑에 창작된 작품들은 소설 본래의 성격을 잃고 소설을 마치 상징시와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소설의 발전경향은 유럽뿐아니라 이외의 나라들에서도 나타났다. 이미 19세기부터 비유럽적인 요소를 명백히 나타내면서 창작을 시작한 메르빌의 작품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창작된 헤밍웨이와 포크너의 작품들, 라틴아메리카에서 창작된 작품들은 1940년대에 들어와 최성기를 맞이했다. 라틴아메리카소설들중에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보르헤스의 《전기집》과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간의 고독》이다. 이어 아스투리아스, 켄데스, 도논 오네리, 사바트, 쿨다살 바르가스, 료사 등 작가들도 자기들의 개성이 차넘치는 작품들을 써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유럽에서는 이미 낡은것으로 치부된 사실주의가 한창 성행하여 마술적사실주의라는 간판밑에서 작품창작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마술적사실주의는 유럽의 신소설의 수법도 도입하여 소설의 신세계를 개척한다고 떠들지만 지나친 추상과 암시, 상징으로 하여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4. 중국의 《소설》

《소설》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의 고전어였다. 중국에서의 《소설》의 기원에 대해 《한서》의 《예문지》에서는 옛날에 패관이라는 벼슬이 있어 이들이 가두설화, 도덕설화를 수집하였는데 그 수집된것을 《소설》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주나라시기 패관이라는 관직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소설이 나왔다고 보는

것은 과학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 있는 점은 행인들의 이야기에서 소설이 나왔다고 하는것이다. 즉 말하고 듣고 하는 식의 행인들의 이야기에서 소설이 나왔다고 보는 점은 소설발생의 일반적원리와 대동소이하다. 《예문지》에 열거되어 있는 《이운이야기》, 《신하를 불러 기다리는 요임금의 심리술》, 《신하를 불러 기다리는 안성미양술》, 《신수주기》 등 15편의 작품들은 각이한 사람들이 쓴것이지만 일정한 류사성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랜 《소설》이라고 알려 지는 것은 《목천자전》과 《산해경》이다. 그 내용은 주나라의 목왕이 나라를 돌아 보는 이야기와 각 지방의 괴이한 이야기들을 묶은것이다. 이것은 그후 1~3세기경에 나온 《지피소설》의 원류로 되었다고 보아 진다.

또한 한나라시기에 나온 《바다속 10주기》, 《신이경》, 《한무고사》, 《한무내전》, 《한무통명기》, 《비연외전》, 《잡사비행》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 소설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부족점을 안고 있다.

원래 중국의 고전어로 쓰인 《소설》이라는 말은 《보잘것 없는 이야기》라는 뜻으로서 봉건지배계급이 시문학만을 숭상하고 산문문학을 천시한데서 나온것이다. 때문에 오늘에 쓰이는 소설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구별되며 중국에서 발생한 고대의 《소설》이나 중세초기의 《지피소설》 등은 오늘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소설이라고 말할수 없고 다만 그 원류로서만 해석될수 있다. 달리 말하면 묘사와 문학적인 이야기가 있는 소설이라고 말할수 없다.

중국에서 소설이라고 불릴수 있게 소설의 체모를 갖추고 씌여 진 작품들은 8세기 당나라시기에 나온 《전기소설》들이다.

8~9세기에 중국에서 소설이 나오게 된것은 앞선 시기의 산문문학의 전통과 도시민들의 미학적 요구, 일반서사체로 글을 쓸데 대한 《고문운동》이 벌어진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전기소설》이란 일반 전기를 넘두에 둔것이 아니라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는 소설로서 소설적인 체모 즉 묘사와 작가의 허구에 의해 가공된 기연기봉형식의 이야기줄거리를 가진 소설이며 중국에서는 8~9세기에 《유선굴》, 《앵앵

전》, 《리와전》, 《침중기》, 《남가태수전》, 《홍선전》, 《곤륜노전》, 《규엄객전》 등 무려 160~170여편에 달하는 《전기소설》들이 창작되었다.

《전기소설》에서 첫 걸음을 댄 중국의 소설은 그후 화본소설, 장회체소설을 거쳐 더욱 발전하였다.

송나라시기 북송의 변경, 남송의 립안 등지에서 도시가 발전하고 상공업이 흥성함과 함께 서민계층의 중대되는 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화본소설이 나왔다. 그 대표작은 《대당삼장법사취경기》, 《전상삼국지평화》, 《신편5대사평화》 등이다.

이 소설들은 원, 명 시기에 더욱 발전하여 장회체소설로 이어 졌는바 《수호전》, 《삼국지연의》, 《서유기》, 《금병매》가 그 대표작이다.

한편 이 시기에 명나라시기의 《전등신화》를 비롯하여 청나라시기의 《료재지이》, 《자불어》, 《야담수록》, 《탈미초당필기》와 같은 공상적색채가 농후한 《요사소설》도 발전했다.

소설의 발전은 나아가서 자서전적요소의 대하소설들인 조설근의 《홍루몽》, 오경재의 《유림외사》, 리여진의 《경화연》 등을 낳는데까지 이르렀다.

청나라 말기의 계몽소설을 거쳐 5.4운동시기에 중국의 소설은 근대소설으로 이행했다. 그 다리로 된것은 《고전적사실주의》라고 불리우는 장회체소설 《홍루몽》이었다.

중국의 첫 근대소설은 로신의 《미친 사람의 일기》이며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 전반에 이르는 근대적인 성격으로 하여 중국소설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이어 인차 첫 현대소설 《아큐정전》이 창작되어 로신은 중국의 근대 및 현대문학의 개척자로 공인되게 되었다. 로신과 함께 모순, 파금, 로사 등도 사실주의적인 소설창작의 길로 나갔다.

그후 국내혁명전쟁과 항일전쟁시기 해방구들에게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창건이후시기에는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위한 문학이 주류로 되었다.

1966~1976년 《문화대혁명》시기 일시적인 잠정기에 들어 갔던 중국의 소설은 오늘 다양한 주제의 설정과 새로운 수법의 적극적인 탐구 등 새로운 추세를 보이며 현저히 발전하고 있다.